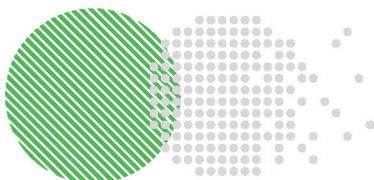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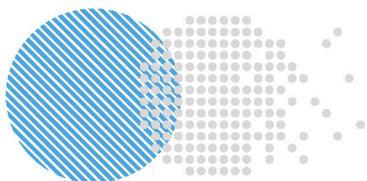


연구보고25-연적금 01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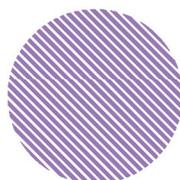
김승경 · 백혜정 ·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

연구보고25-연적금01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저 자 김승경, 백혜정, 김경준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2016년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발깎창을 생리대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그간 월경에 대해 부끄럽고 불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월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월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해오던 사회적 분위기를 여성의 건강에 관련된 권리문제로 전환하여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됨.
  -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6년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18년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 정부 주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추진됨.
  -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2024년 김남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집행행률은 매년 80% 전후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18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추진 이후 이용자 실태 및 사업개선 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지원사업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자 및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지원요구 및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인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을 포함한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 검토, 이용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하고, 스코틀랜드,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생리용품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파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실태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바꾸쳐 이용 경험 및 요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 지원사업 이용 현황, 이용실태, 애로사항, 제도개선방안 등 파악

##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내 및 해외 동향 분석을 포함한 문헌연구,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자문회의, 정책실무협의회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 활용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위해 최근 3년간 약 126~148 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되었으며, 신청률은 전체 대상 인원의 약 70~87% 수준이었고 실제 이용률은 전체 대상자의 약 59~73% 수준이었음. 해마다 신청률 및 실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접근성, 신뢰도가 증가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21세 이상의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생애전환기가 되는 19~20세가 되었을 때 이용률과 순예산 소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총 115개였으며, 이 중 108개는 지자체 관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그 중 경기도가 26개로 가장 많았음. 지원대상의 연령은 11~18세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연령인 9~24세에 비해 협소함.
  -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은 인천, 경기, 광주,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보편지원'의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일정 연령에 제한되어 있거나 예산에 맞춰 일정 인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연구결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교육부령과 시·도규칙에 시설과 기구, 용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다만 시·도규칙 내에 생리용품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은 4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가의 생리용품 무상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생리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학업 및 사회활동 참여 저해 방지를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한 접근'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인권과 교육 평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줌.

- 생리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교육노동참여권 보장이라는 사회참여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선택이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생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교사나 직원의 도움 없이도 학생들이 사생활이 보장된 환경에서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공공기관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생리용품 부족 문제가 직접적으로 학업 중단 및 사회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보건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과 연계하여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이 단순히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을 알리는 포용적 생리 인식 문화 조성이 필요함.

- 정부(지자체)-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하거나 생리용품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정부(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상을 포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결과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21.3%)였으며, 비수도권의 미이용자들은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수도권에 비해 높았음.
  - 주요 바우처 이용처는 '대형마트(50.4%)'였고, 오프라인 이용률(63.4%)이 온라인 이용률(36.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바우처 이용자의 92.1%는 바우처 지원금을 '거의 다 사용'하였으며,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1순위)는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였고, 지원사업에 대해 89.4%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에 관한 조사에서 이용자들은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56.1%, 1~3순위 합산)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미이용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간편화(49.8%)'를 가장 많이 요구함.
  - 바우처 이용으로 인해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98.0%)'되었으며, 일상생활 전반 및 생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93.1%)했다는 응답이 높음.
  -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 대상 유지'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80% 이하 등에 대한 '부분적 확대'가 23.9%, '여성청소년(9~24세) 전체로 확대' 21% 등의 순임.
  -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가 '현재 지원 대상에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긍정 응답률은 70.7%,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7.1%,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3.2%로 나타남.
  -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75.3%)는 응답이 높았고, 가장 설치가 필요한 곳은 청소년시설(41.6%), 공공기관(23.9%), 공공도서관(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74.2%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초경을 시작하였으며, 그 중 '초등학교 6학년'(30.0%)에 초경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주요 연구결과

평균 생리주기는 28.2일, 평균 생리기간은 6.1일이었고,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으로는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비율은 95.6%임. 일일 평균 생리용품 사용 개수는 평균 5.4개/일이었는데, 바우처 이용자(5.5개/일)가 바우처 미이용자(4.9개/일)에 비해 생리대를 자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바우처 지원 이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으나 지원 이후로 없었다'는 응답은 57.7%이었으며, 특히 바우처 이용자(60.7%)에게서 이러한 응답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의 적극적인 사용이 생리대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음.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자 및 미이용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여자들은 주민센터의 안내도 있었지만 대체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지원 정보에 대한 대상자의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미이용자들은 바우처를 신청하였지만 카드 발급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카드 발급을 포기하거나 카드 발급 후에도 구매처에서 결제 오류를 경험하면서 사용을 포기하기도 함.
- 참여자들은 바우처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의 바우처 신청과 은행에서의 카드 발급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점,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을 동행해야 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바우처 카드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도 함. 카드를 본인이 수령해야 하는 점 역시 카드 발급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됨.
- 바우처를 이용하여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카드사별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상이하고 잔액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문자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응답함. 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생리용품과 타 생활용품을 분리하여 결제해야 하거나 무인계산대 사용이 불가능한 점,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민행복카드' 또는 '생리용품 바우처' 등 전용 카테

## 주요 연구결과

고리를 검색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로 다른 브랜드나 사이즈의 생리용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없어 동일 품목별로 별도 결제하고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불편함으로 호소함.

- 참여자들은 생리용품 바우처를 이용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어 생리대 교체 주기가 단축되는 등의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가격부담으로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던 것에서 벗어나 제품의 품질과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대체로 지원금액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리량이 많은 등 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전화번호 변경이 없었음에도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알림 문자 설정 문제 혹은 시스템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또한 안내 및 잔액 확인 문자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바우처 대상자 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함.

## ■ 정책제언

### 핵심 정책제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해외 주요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안함.

#### ●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의 편의성 제고

- 신청방법의 편의성 제고: ①“신청 → 카드 발급 → 구매”에 이르는 바우처 이용 절차 자체의 번거로움 및 단계별 이용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바우처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 ②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 사례와 같이 기초생활

## 핵심 정책제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등록 청소년들에게 자동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③은행계좌나 신용(체크)카드 없이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QR·바코드형 전자바우처, 선불형 IC칩 카드, 정부 전자지갑 등) 마련 필요

- 구매처 확대: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으므로 농협하나로마트 계열 등 전국적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구매처 추가 확보 필요
- 구매처 이용방식 개선: 정부가 바우처 결제용 API를 결제수단 중 하나로 등록 가능하게 표준화함으로써 일반 결제창에서도 생리용품 바우처를 선택 가능하도록 결제 연동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복수 품목 결제 가이드라인 제공, 온라인 쇼핑몰별 이용 및 결제 방식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필요, 무인판매대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표준화·통합화 필요
- 잔액조회 등 사용방식의 편의성 제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카드사 API 및 모바일 인증시스템의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동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복지 플랫폼 개발 및 모바일앱 제공 등

### ●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지속적인 안내

- 대상의 특성 및 접근 가능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맞춤형 홍보 강화: 부모 대상(학교 및 지역 커뮤니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 유관기관 온라인 사이트 홍보, 캠페인 홍보 등), 청소년 대상(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학교, 청소년시설 등의 시설과 SNS 플랫폼, 메신저·알림톡, 모바일 앱·웹, 디지털 캠페인 등 디지털·모바일 중심) 홍보 전략 수립 필요
- 바우처 지급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지속적인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 알림 시스템의 구축,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하는 복수 채널 안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시설과의 연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중 바우처 신청 누락자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별 개별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이용자 점검의 제도화,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통합 모바일 앱을 개발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대상자의 앱 내 연락처 변경을 통한 연락처 현행화 방안 모색 필요

## 핵심 정책제언

- 생리대 바우처 금액 책정 시 현실적 기준 적용
  - 생리용품 지원 금액 책정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한 생리용품 사용 기준에 따라 평균 생리 주기 및 일수와 생리대 교체시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 지원 기준 마련 및 적용 필요
- 낙인효과에 대한 예방책 마련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전용 앱 설치, 카드에 인쇄된 “국민행복카드” 문구 삭제(또는 암호화), 다양한 간편결제시스템 연동 지원 등 지원대상의 신분 노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낙인효과 예방 필요
- 신청률 및 이용률(실이용률),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 지자체의 자체 추진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영향 확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지자체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예산의 조정배분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 필요
-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대 비치 개선
  -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무상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 및 양질의 제품을 구비한 자판기를 화장실 내 설치 필요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보편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감소의 측면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함. 다만 지원확대의 범위 및 확대방법, 수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수요조사와 더불어 지자체 지원 예산 및 방법 등에 대한 종합분석, 중앙-지자체 간 사업조정, 법령 및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효율적 방식의 보편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추진체계 ..... 7
- 3. 연구내용 ..... 7
- 4. 연구방법 ..... 8

## I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분석

- 1. 생리용품 지원의 필요성: 월경에 대한 인식 변화 ..... 13
- 2. 중앙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 16
-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 29
- 4.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생리용품 지원 현황 · 41
- 5. 소결 ..... 42

## III. 해외 주요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추진 현황

- 1. 스코틀랜드 ..... 47
- 2. 영국 ..... 51
- 3. 뉴질랜드 ..... 53

4. 프랑스 .....	55
5. 미국 .....	57
6. 캐나다 .....	60
7. 시사점 .....	63

#### IV.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69
2. 실태조사 결과 .....	73
3. 소결 .....	134

#### V.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초점집단면접

1. 면접개요 .....	141
2. 초점집단면접 결과 .....	144
3. 소결 .....	168

#### V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의 편의성 제고 .....	173
2.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지속적인 안내 .....	182
3. 생리대 바우처 금액 책정 시 현실적 기준 적용 .....	186
4. 신청률 및 이용률(실이용률),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	187
5. 낙인효과에 대한 예방책 마련 .....	188
6.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대 비치 확대·강화 .....	189
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보편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190

**참고문헌** ..... 193

**부 록**

1. '25년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현황 ..... 205

2. '25년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및  
자체 사업 추진 현황 ..... 206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설문지 ..... 223

**Abstract** ..... 235

## 표 목차

표 II-1. 결제 가능한 구입처 .....	20
표 II-2.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및 신청·이용률 .....	23
표 II-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구성과 추진계획 및 실적 .....	24
표 II-4. 최근 3년간 연령별 지원대상 .....	25
표 II-5. 최근 3년간 연령별 신청률(상단) 및 이용률(하단) .....	26
표 II-6. 최근 3년간 연령별 예산 사용률 .....	28
표 II-7.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조례 분석 .....	30
표 II-8. 지방자치단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률 (‘24년 기준) .....	33
표 II-9. 지방자치단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 (‘24년 기준) .....	34
표 II-10.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및 예산 증감률(‘24년 12월 기준) .....	35
표 II-11.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자체 지원사업 예산 구성 및 추진계획, 추진실적 .....	37
표 II-12. 기초자치단체 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24년도 예산 및 지원대상 구성 .....	39
표 II-13. 기초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기관 지원사업 '24년도 예산 및 지원기관 구성 .....	40
표 II-14. 시·도교육청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내 여성용품 포함 여부 .....	42
표 III-1. 스코틀랜드의 생리용품 지원 법·제도 추진 경과 .....	49
표 III-2. 뉴질랜드 학교의 월별 생리용품 신청 한도 .....	54
표 III-3.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의 학교 무료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 .....	63
표 IV-1. 권역 및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 할당 .....	70
표 IV-2.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확인 및 배경) .....	71

표 V-3. 조사대상자 특성 .....	74
표 V-4. 응답자 특성 .....	75
표 V-5. 동거가족 여부 .....	76
표 V-6. 후보호자 .....	77
표 V-7. 중복취약 여부(복수응답) .....	78
표 V-8. 바우처 사용 대상자와의 관계 .....	79
표 V-9. '24년 바우처 이용 여부 .....	80
표 V-10. 바우처 신청 시점 .....	81
표 V-11. 바우처 신청자 .....	82
표 V-12. 바우처 신청 경로 .....	83
표 V-13. 바우처 카드 명의자 .....	85
표 V-14. 과거 지원 여부 .....	86
표 V-15. 과거 지원받은 기관(복수응답) .....	87
표 V-16. '24년 바우처 미이용 사유 .....	89
표 V-17. '24년 바우처 미이용 사유(응답자별) .....	91
표 V-18. 미이용자의 올해 바우처 이용 의향 .....	92
표 V-19. '25년 바우처 미이용 이유 .....	93
표 V-2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인지경로 .....	95
표 V-21. 생리용품 주구매자 .....	96
표 V-22. 바우처 주이용처 (1순위) .....	97
표 V-23. 바우처 주이용처 (1+2순위) .....	98
표 V-24. 바우처 이용 생리용품 구입 빈도 .....	99
표 V-25. '24년 바우처 사용 정도 .....	100
표 V-26. '24년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이유(1순위) .....	102
표 V-27. '24년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이유 (1+2+3순위) .....	103
표 V-28. 바우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생각 .....	107
표 V-2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만족도: 점수별 .....	108
표 V-3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만족도 .....	108
표 V-31.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 필요 사항 .....	109
표 V-32.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 필요 사항(1+2+3순위) .....	111
표 V-33. 생리용품 개선 필요 사항(중복취약 유무) .....	112
표 V-34. 지원대상 확대 시 우선 지원 대상 .....	114
표 V-35. 생리용품 무상지원사업 9~24세 연령별 단계적 확대 필요 여부 .....	115
표 V-36. 9~24세 중 우선 지원대상 연령대 .....	116

표 IV-37.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	117
표 IV-38.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119
표 IV-39. 공공기관 내 생리용품 비치 목적 및 사용 여부 .....	120
표 IV-40. 무상 생리용품(생리대) 자판기 설치 필요 여부 .....	121
표 IV-41. 무상 생리용품(생리대) 자판기 확대 시 설치 장소 .....	122
표 IV-42. 복지에 대한 책임 소재의 상대성 .....	123
표 IV-43. 초경 시작 연령 .....	124
표 IV-44. 생리의 규칙성 및 평균 주기 .....	125
표 IV-45. 평균 생리 기간 .....	127
표 IV-46.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 .....	128
표 IV-47. 일일 평균 생리대 사용 개수 .....	129
표 IV-48. 생리용품 선택 기준(1순위) .....	130
표 IV-49. 생리용품 선택 기준(1+2+3순위) .....	131
표 IV-50.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 구매가 곤란했던 경험 .....	133
표 V-1.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특성 .....	142
표 V-2. 초점집단면접 주요 질문 내용 .....	143
표 VI-1. 바우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	175
표 VI-2. 은행계좌나 신용(체크)카드 없이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	177
표 VI-3. 바우처 잔액조회 등 편의성 제고 통합 복지 플랫폼의 구성 내용 .....	180
표 VI-4. 바우처 사용방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 .....	180
표 VI-5. 부모 대상의 홍보 방법 .....	183
표 VI-6. 청소년 대상의 홍보 방법 .....	185
표 VI-7. 바우처 지급 대상자 누락 방지 방법 .....	186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II-1. 국민행복카드 신청 흐름도	19
그림 II-2. 생리용품 바우처 업무흐름도	22
그림 II-3. '22년 기준 9세~11세의 3년간 신청률	27
그림 II-4. '22년 기준 17세~18세의 3년간 신청률 및 이용률	28
그림 IV-1. 조사참여자 특성	74
그림 IV-2. 중복취약 여부(복수응답)	78
그림 IV-3. '24년 바우처 이용 여부	80
그림 IV-4. 바우처 신청 경로	83
그림 IV-5. 바우처 카드 명의자	84
그림 IV-6. 바우처 미이용 (주요) 사유	88
그림 IV-7. 미이용자의 올해 바우처 이용 의향	92
그림 IV-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주요 인지경로	94
그림 IV-9. 바우처 주이용처(1+2순위)	98
그림 IV-10. 바우처 이용 생리용품 구입 빈도	99
그림 IV-11. '24년 바우처 사용 정도	101
그림 IV-12. '24년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주요 이유 (1+2+3순위)	104
그림 IV-13. 바우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긍정 응답률	106
그림 IV-14.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 필요 사항(1순위)	110
그림 IV-15. 9~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무상지원사업 확대 필요 정도	115
그림 IV-16. 생리용품 지원사업 확대 방법	117
그림 IV-17.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118
그림 IV-18. 초경 시작 연령(학년)	124
그림 IV-19. 생리의 규칙성 및 평균 주기	125
그림 IV-20. 평균 생리 기간	126
그림 IV-21.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	128
그림 IV-22.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 구매가 곤란했던 경험	132

그림 VI-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처 .....	178
그림 VI-2. 바우처 사용내역 조회 절차 .....	181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경 이후 여성의 몸은 주기적으로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내고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혈액을 비축하게 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필요 없어진 난자가 혈액과 함께 배출되는 생리현상을 월경이라고 한다. 청소년기에 초경이 시작되면서 여성은 폐경까지 출산기간을 제외하고 약 30년 이상 매월 월경을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평균 10~15세 사이에 초경을 경험하는데, 12세가 35.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3세가 26.9%, 11세 이하는 20.6% 등의 순(정혜원, 2019)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초경은 1960년대에 15세부터 17세까지의 연령에서 관찰되다가 1980년대에서는 14세 전후가 되었고 1990년대 조사로는 12.8세(홍창호, 2006)로 나타나는 등 최근 초경 연령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초경연령의 저연령화와 더불어 출산율이 높던 과거에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월경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과거에 비해 월경기간이 길어지는 특성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초경부터 폐경에 이르는 12~50세까지 매달 1회 월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8년간 456회의 월경을 경험하고, 1회 월경 시 3~7일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일생동안 총 1,358일~3,192일, 평균 2,280일(약 6.25년)간 월경을 하는 것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월경주기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9.8%이고, 월경일수는 2~7일(97.0%), 월경주기가 정상의 범주인 평균 21~45일인 경우는 89.7%였다(정혜원, 2019).

월경은 여성에게 단순히 월경이라는 현상 외에도 월경 전후에 경험하는 다양한 통증

1)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건강상의 문제요소, 생리대 이용 방법 및 교체 시기 등과 관련한 위생상의 문제요소, 월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사회적 배제, 성불평등 등의 사회적 문제요소를 가지고 있다. 월경과 관련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는 무월경, 월경통, 월경전 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등이 있고, 위생상의 문제는 생리용품 사용 방법 및 생리용품 유형에 따른 부작용 문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월경으로 인한 기회 박탈,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22년 UNFPA(유엔인구기금)에서는 '월경은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월경위생관리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존엄성을 가지고 월경을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 UNFPA는 여성청소년들이 ①월경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과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문제 경험, ②월경과 관련된 낙인이 여성과 소녀들이 월경 관련 질환이나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③생리대 교체를 위한 안전한 장소나 생리 위생 관리 능력 부족, 생리 관련 통증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여학생의 학교 출석률과 학업 성취도 저하, ④월경 위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월경 관련 질환이나 통증을 치료할 약물 부족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 근무시간 및 임금 포기, 그리고 화장실 사용과 같은 월경 관련 요구로 인한 불이익으로 불평등한 근무 조건 및 직장 내 차별 직면, ⑤월경과 관련된 낙인과 규범으로 인한 차별적인 관행을 강화, 성 불평등 고착화 등 월경으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인권목록(UNFPA, 2022.5.)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권리를 명시하면서 ①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리용품, ②생리용품 교체 및 처리, 재사용 가능한 용품 세척이 가능한 사생활이 보장되는 장소, ③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사적으로 씻을 수 있는 장소, ④월경 관리방법에 대한 기본교육, ⑤월경 관련 건강정보 및 질환 치료에의 접근 등(UNFPA, 2022.5.) 월경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발깎찰을 생리대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그간 월경에 대해 부끄럽고 불결하다는 인식 탓에 월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월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해오던 사회적 분위기를 여성의 건강에 관련된 권리문제로 전환하여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6년 이후

월경을 금기시하거나 월경하는 여성을 배제하는 등의 사회적 배제나 차별을 당연시하고 월경이라는 현상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놀림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발달과정 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월경을 여성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차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칼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6년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7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18년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sup>2)</sup>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19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 전자바우처를 도입·시행하였으며, '21년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25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4,000원(연 168,000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12~18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청소년 3,400명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여주시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경기도는 여주시의 사업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여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의사를 밝힌 시군과 함께 도 내 11~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시작하였다.<sup>3)</sup>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김남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예산 실행행률은 ('21) 84.7%→('22) 65.2%→('23) 84.4%→('24) 78.3%로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4.10.30.;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25).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권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이며,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고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2)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5년 10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었음. 다만 2025년 10월 이전 발간된 자료나 사업연혁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

3) 경기신문 (2021.3.28). **이재명이 쏘아올린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전국화된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444> (검색일 : 2025.05.20)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과정이 번거롭다(34.4%), 행정 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렵다(21.9%), 온라인사이트(복지로누리집) 사용이 어렵다(18.8%), 지자체마다 지원대상이 달라서 혼란스럽다(12.5%),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12.5%) 등 지원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카드뉴스, 2024.10.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9~24세 모든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11~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나 청소년 여성시설에 생리대 무상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11~19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의 조사 결과, 지원 만족도는 53.4%, 불만족도는 49.9%로 확인되었다. 불만족 사유는 지원받은 물품이 내 몸과 맞지 않아서 (18.6%), 사용량에 비해 지원내용(비용)이 적어서(20.9%),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9.3%) 등(오마이뉴스, 2020.05.28.)으로 나타났다.

‘18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추진 이후 이용자 실태 및 사업개선 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지원사업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자(대상자)를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지원요구 및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을 포함한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추진체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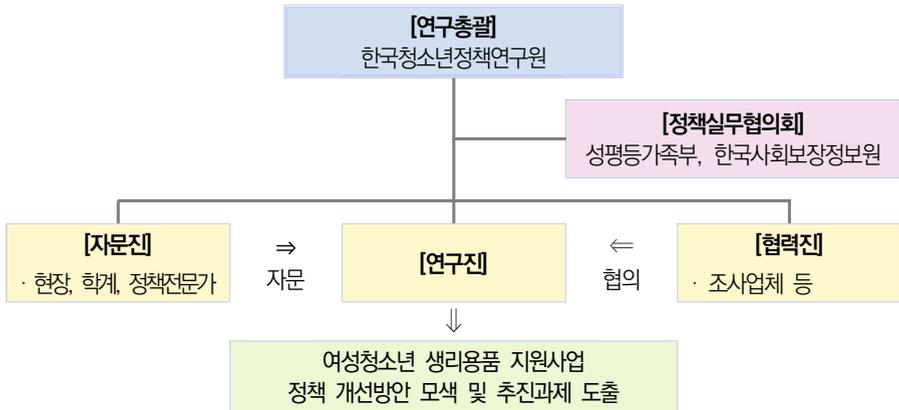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1)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선행연구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고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해외 주요국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실태 조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현황, 제도 접근성, 이용실태 및 애로사항 등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수혜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세부적

인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사업담당자 자문을 통해 지자체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3) 시사점 및 추진과제 도출

국내의 정책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초점집단면접 결과 분석을 통해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정례적 조사실시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하였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국내외 문헌, 통계, 정책자료 분석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 통계자료 분석

### 2) 실태조사

- 정책수혜자 대상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 확인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 각 연령별 모집단 규모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규모 할당
표집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
표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 중 2024년 기준 16~21세(현 17~22세) 청소년(또는 보호자(법정 대리인)) 2,500명 내외 ※ 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대상자(청소년)의 보호자(법정 대리인)가 신청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가 응답하도록 설계
표집방법	17개 시·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대상(2024년 기준 16~21세)을 모집단으로 하여 인구분포에 비례하여 바우처 이용 여부 및 권역별 표본 수 할당

주요 요소	내용
주요내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배경문항, 조사대상자 식별문항 등 총 37문항
조사방법	웹조사
조사시기	'25년 7~8월
비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 (승인: 202506-HR-연개금-002)

\* 주: 표집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자에게 조사링크를 개별적으로 발송, 조사링크를 받은 신청자는 조사설명문 확인 후 개별의사에 따라 조사동의 후 참여

\* 주: 조사링크는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를 활용하여 개별 발송하며, 조사 및 답례품 지급을 위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음.

### 3) 초점집단면접

○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생리용품 이용/미이용 실태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조사> 설문 참여 시 관련 의견수렴에 동의한 여성청소년
면담참여자 수	10~15명 내외 (집단별 3~5명 내외)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 중 실태조사에 참여한 2024년 이용자 및 미이용자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비대면 집단 면담 (집단별 3~5명 내외)
면담 시간 및 횟수	각 집단별 90분 내외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사전 동의서 수령 후 기록 및 녹취
면담자	연구진
비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 (승인: 202506-HR-연개금-002)

\* 주: 면접대상자는 '24년 12월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함.

\* 조사참여에 대한 면접대상자 동의서는 웹동의서로 개발하였으며, 대상자의 휴대폰(또는 메일)으로 웹동의서를 발송, 대상자가 웹상에서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음.

#### 4) 전문가 자문

- 정책 개선방안 도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담당자 자문 실시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개최시기
1차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세종, 부산, 광주	11월 4일
2차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제주, 경북	11월 4일

#### 5) 정책실무협의회

- 연구설계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소관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상시적으로 실무 협의 추진
-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추진

차수	주요내용	참석자 소속기관	개최시기
1차	연구 방향 설정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	4월
2차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논의	성평등가족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월
3차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문항 논의 등	성평등가족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월

## ○ ————— 제2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분석

- 1. 생리용품 지원의 필요성: 월경에 대한 인식 변화
- 2. 중앙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 4.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생리용품 지원 현황
- 5. 소결



### 1. 생리용품 지원의 필요성: 월경에 대한 인식 변화

월경은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궁내막이 탈락하여 발생하는 생리적 과정(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01.10.)으로, 여성은 자궁내막이 성숙해지고 배란이 발생한 후 자궁내막이 배출되는 월경을 평균 12세부터 52세까지 약 28일의 주기로 40년간 반복한다(프레시안, 2021.05.06.). 월경주기는 자궁내막의 탈락 시작부터 다음 탈락 시작까지의 기간으로, 난소의 난포 발달과 배란, 황체 형성 과정에 따라 내막이 증식, 분화, 탈락을 반복하는 주기를 말한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01.10.). 정상적인 월경주기는 초경이 시작된 이후에 바로 규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리잡게 되는데, 이러한 월경은 여성의 인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여성만의 고유한 경험이자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여성의 월경을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문화가 많았다(노지은, 2018). 우리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다르지 않아 ‘월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리적 현상을 일컫는 ‘생리’로 뭉뚱그려 표현하거나 ‘그날’, ‘마법에 걸린 날’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월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다루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월경을 여성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였고 월경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사춘기를 맞아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4)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김경준 명예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본 장은 '24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 신청률 및 이용률 등을 분석하였으며, '25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및 사업 관련 현황은 <부록 2>에 첨부하였음.

이고 자신의 몸과 신체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월경건강 및 위생관리 문제 등에 대해 대처할 역량을 갖추어야 함(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김명희, 송현중, 서상희, 김정우, 20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경을 불편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 식수위생(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분야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해 기본위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목표로 안전한 식수와 위생환경에 접근 불가능한 인구를 반감할 것과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을 목표로 모든 교육수준에서 남녀차별 철폐를 세부목표로 수립하였다(외교부, 2025.11.26.검색). Bharadwaj와 Patkar(2004)는 새천년개발목표 중 '식수위생'의 현황을 검토하기 위한 보고서에서 물과 위생에 대한 정책 논의에 월경 위생 및 관리에 관한 논의가 부재함을 주장하였다. 즉, 월경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교육받고, 월경혈이 더럽고 냄새나며 비위생적이고 불결하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메시지로 인해 자연스러운 신체과정인 월경에 대한 위생관리 문제와 그로 인한 여성청소년의 결석 및 학업 중퇴 등의 문제 등이 무시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월경과 관련한 위생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UN은 포스트-2015 아젠다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정하고 여섯 번째 목표를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로 설정하여 2030년까지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 및 청결을 확보하도록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목표를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과 소녀, 그리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위생 및 청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세부목표로 수립하였다(UNDP 서울정책센터 홈페이지, 2025.11.26.검색).

이후 월경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월경권'이란 '개인이 월경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주야, 2025.01.15.)이자 월경이나 성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권리, 월경으로 인한 차별·낙인에서 자유로울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이용할 권리, 생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UN인구기금(UNFPA)은 역사적으로 여성을 다양한 역할과 환경에서 배제하는 데 월경이 이용되어 왔지만, 실제로 여성이 월경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UNFPA, 2022.05.)고 명시하면서 오히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①건강권, ②교육받을 권리, ③일할 권리, ④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양성평등, ⑤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UNFPA, 2022.05.). 이에 월경 중에는 ①개인이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월경혈을 흡수하거나 모을 수 있는 깨끗한 생리용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②생리용품을 교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장소와 사용한 월경용품을 버리거나 재사용 가능한 용품을 세척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③비누와 물로 안전하고 개인적으로 씻을 수 있어야 하고, ④불편함이나 두려움 없이 월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며, ⑤월경 중인 여성은 건강 정보와 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월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월경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UNFPA, 2022.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월경 빈곤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월경 빈곤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바라볼 때 여성들은 수치심이나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위축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생리용품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생리용품을 장기간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 및 위생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학교 결석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교육의 문제로 이어지거나 사회경제활동 참여 포기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즉 월경 빈곤은 단순히 생리용품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참여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6년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사례가 보도된 이후 월경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생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신 신발깔창,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하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채 방에 수건을 깔고 지내야 하는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위생문제나 생식기 질환 등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연령, 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혹은 생리용품을 제공하거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개별적인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대상의 중복이 발생하거나 일부 대상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건강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월경을 경험하는 것, 이와 가장 필수적인 생리용품의 최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프레스안, 2021.05.06.).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월경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과 교육, 노동, 환경 등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월경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것이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의제임을 인식해야 한다(프레스안, 2021.05.06.). 나아가 월경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로 바라보고 생리용품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월경 및 성 건강 관련 교육, 월경 관련 의료서비스에의 접근, 생리용품 안전성 평가기준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 중앙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 1) 추진배경

갈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6년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7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18년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sup>5)</sup>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19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 전자바우처를 도입·시행하였으며, '21년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25년부터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4,000원(연간 최대 168,000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

---

5)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5년 10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었음. 다만 2025년 10월 이전 발간된 자료나 사업연혁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

## 2) 사업내용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sup>6)</sup>

### (1) 대상자 선정

#### ① 지원 기준

지원대상은 연령 기준과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령 기준은 9~24세로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격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최소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신청 자격

신청은 대상자인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정 사정상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이 만14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양육자가 신청할 경우 주양육자의 범위 안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이 포함된다. 부모를 제외한 주양육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6) 이 절은 여성가족부 (2025a). 청소년사업 안내(II)에 제시된 사업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이후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여성가족부, 2025)를 바탕으로 보완하였다.

### ③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는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행복e음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 올해(2025년 1월)부터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다만 이 경우 보장기관은 주소지 지자체이다(여성가족부, 2025c).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나 앱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에 한정한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자의 자격에 따라 청소년과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나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12월에는 사업연도 전환 등에 따라 결정 통보 및 바꾸쳐 지급이 12월 넷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대상자는 자격 기준과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자동으로 자격이 유지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사 등으로 관할 지자체가 변동되더라도 자동 연계된다. 단 자격기준 변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서비스 재신청을 하면 된다.

### ④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은 시·군·구청(행복e음 담당부서)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통지문은 서면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되는데 이 때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용 안내문도 함께 전달받는다.

## (2) 이용 방법

### ①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5년부터 1인당 월 14,000원으로 연간 최대 168,000원이다.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에는 다음날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이후 바우처는 매년 2회(1월, 7월) 6개월분씩 생성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에 소멸된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내선4)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업무포털 참조) 등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하다.

### ② 국민행복카드 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소년 본인이나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지원 가능하므로 선정 당시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14세 미만의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14세~24세 대상자는 본인 명의 체크카드나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sup>8)</sup>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 및 일부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절차는 [그림 II-1]과 같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청소년사업 안내(II). p.800

그림 II-1. 국민행복카드 신청 흐름도

- 7) 일반적으로 14세~16세는 직접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17세 이상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함.
- 8)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로 인하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받는 카드

중도에 카드 사용자 변경을 원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을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신청 내용을 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변경 처리된다. 이후 새롭게 변경된 사람(카드사용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지급되면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구매할 수 있다. 한 해에 생성된 바우처 내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한 번에 대량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자부담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몇 가지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품 구입처는 카드사마다 다르며 카드사별 구입처는 <표II-1>과 같다. 예를 들면 BC카드 소유자는 지마켓, 옥션, 쿠팡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 물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삼성카드 소유자는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표 II-1. 결제 가능한 구입처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뽐샵, 엘포인트몰, 베팅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CU편의점, GS25편의점
KB국민카드	KB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CU편의점, GS25편의점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청소년사업 안내(II). p.805.

둘째, 배송비는 바우처로 결제가 안되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바우처(지원금액) 외에 별도의 배송비가 부담되는 경우 일반 온라인몰 사용은 어렵지만 이런 경우 바우처 전용몰인 ‘국민행복몰’을 이용하면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구매 시 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라 할 수 있는 전용카드 이용자, 그리고 일부 구매처(예: 지마켓)에서 구입할 경우는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하다. 배송비를

자부담할 수 있고 온라인몰에 판매물품이 있더라도 무료배송이 아니면 구입이 불가능하다.

넷째, 구매처에 비치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바코드(Bar-code) 등으로 가맹점 POS) 등록 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구매할 수 없다. 최근에는 아주 영세한 개인 점포가 아니면 대부분의 유통점에서 PO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표II-1>에 제시된 구입처는 모두 POS 등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매우 적다.

### ③ 자격 변동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자격(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둘 중 한 기준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연령 초과, 소득 증가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시·군·구 사업담당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대상자를 인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 외 본인이나 신청인이 직접 증지를 신청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증지를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한다. 자격 변동이 결정되면 증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sup>10)</sup>하고 자격 증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그다음 일로부터 바우처 사용을 중지하고 미사용한 바우처를 회수한다.

### ④ 지자체 별도 유사사업 시행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별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 같은 경우 정부 지원대상자에게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자체 별도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비취약계층까지 확대할 경우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이용하고 비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등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계층 간 지원 금액 사용 방식의 차이는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별도 재원을 투입하여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지원금액의 우선 집행이 원칙이다.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대상 확대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관리 차원에서 이를 성평등가족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업무흐름도는 [그림II-2]와 같다.

---

9) POS 시스템: 가맹점별로 판매상품의 상품명이나 가격 등 상품 정보를 등록하여 주문, 결제, 매출, 재고 등을 관리하는 제도  
10) 변동사유가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의 경우에는 안내 생략 가능

구분	주체	내용
서비스 신청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상담	읍·면·동 담당공무원 (행복e음)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확인
↓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 통보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 (시·군·구→신청인) 선정결과 통지(우편, 문자 등) · (행복e음→전자바우처) 결정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		
카드 신청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등	· 전담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카드신청 * 금융기관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으로 발급신청 가능
↓		
카드 발급 정보 전송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정보 수신 · 바우처 정보를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		
결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자	· 생리대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구매 * 청소년 본인, 신청인 카드로 결제 가능
↓		
정산	시·군·구 담당공무원,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비용 예탁(시·군·구) · 바우처 결제 비용 청구(카드사) · 바우처 정산(사회보장정보원)
↓		
정보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 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정보관리 * 행복e음 변동내역 주기적으로 확인
↓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생성 및 사용 안내 ·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읍·면·동 접수, 시·군·구 중지결정)

\* 출처: 여성가족부 (2025a). 청소년사업 안내(II). p.790

그림 II-2. 생리용품 바우처 업무흐름도

### 3) 사업추진 현황

#### (1) 법적 근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sup>11)</sup>이다. 동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 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sup>12)</sup> 제3조의 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급 방법,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2) 예산 및 지원대상 현황

2016년 9월 보건소를 통한 현물지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9년부터는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생리용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24a). 이에 최근 3년('22년~'24년)간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만9~24세 여성청소년 약 23만~24만여 명에게 연 15~15.6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산 하에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실제 신청 인원은 전체 대상 인원의 약 70~87%, 신청인원 중 이용률은 약 82~86% 범위 안에 머물러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률을 계산하면 약 59~73% 정도이다. (<표II-2> 참고).

표 II-2.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및 신청-이용률

(단위: 명, 원, %)

연도	대상 인원	신청 인원	생성 금액	신청률	이용 인원	이용 금액	이용률	실이용률
'22	243,006	173,027	19,563,125,000	71.2	143,032	16,530,492,686	82.7	58.9
'23	237,818	190,603	28,091,557,000	80.1	162,811	22,132,714,513	85.4	68.4
'24	233,358	204,002	29,765,190,000	87.4	170,767	23,633,282,150	83.7	73.2

\* 출처: 여성가족부(2025). 내부자료.

\* 주: 신청률: 신청인원/대상인원×100  
이용률: 이용인원/신청인원×100  
실이용률: 신청률×이용률/10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5년 5월 15일 검색.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에서> 2025년 5월 15일 검색.

물론 해마다 신청률 및 실이용률(〈표 II-2〉참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 신뢰도의 증가, 복지 사각지대 감소, 사업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상 인원과 신청 인원 및 이용 인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신청을 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I-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구성과 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 원, 명)

지자체명	'24년 예산 (단위: 백만 원)				'24년 추진계획	'23년 추진실적	
	총계	국비	시·도 예산	시·군·구 예산	목표치	목표치	지원수
서울	4,340.0	1,302.0	1,519.0	1,519.0	35,000	35,550	26,530
부산	2,376.0	1,188.0	594.0	594.0	14,500	14,150	16,264
대구	1,772.0	886.0	443.0	443.0	11,300	10,500	11,253
인천	2,176.0	1,088.0	544.0	544.0	13,948	11,871	13,033
대전	1,044.0	522.0	261.0	261.0	5,500	5,000	6,082
광주	1,396.0	698.0	349.0	349.0		10,905	8,850
울산	578.0	289.0	144.5	144.5	4,534	4,534	3,837
세종	124.0	62.0	62.0				981
경기	5,990.0	3,049.0	1,497.0	1,444.0	46,684	47,391	31,237
강원	1,018.0	509.0	102.0	407.0	7,698	8,162	
충북	982.0	491.0	245.0	245.0		7,688	6,234
충남	1,128.0	564.0	169.2	394.8			
전북	1,780.0	890.0	356.0	534.0	11,402		
전남	1,308.0	654.0	196.2	457.8	8,384	7,582	7,582
경북	1,680.0	840.0	252.0	588.0	10,000	10,000	10,153
경남	2,290.0	1,145.0	573.0	572.0	15,000	12,900	14,413
제주	534.0	267.0	267.0			4,186	3,291

\* 출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3~'27)의 2024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24b).

\* 주: 빈칸은 시행계획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임.

충남의 경우 시행계획 내 예산 내역 미기재로 인해 담당자 유선 확인 후 기재

본 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구성 및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 예산)로 구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서울은 2024년도 기준 총 예산 4,340백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302백만 원은 국비로, 70%에

해당하는 3,038백만 원은 지방비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총 예산 5,990백만 원의 50.9%가 국비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비 비율에 비해 국비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50:50으로 매칭되었으나, 경기도는 시·군·구 예산에 비해 시·도 예산이,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는 시·도 예산에 비해 시·군·구 예산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지원사업 이용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지원대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 지원대상은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대략 약 23만~24만여 명 선으로 연령별 지원대상 규모는 <표 II-4>와 같다.

표 II-4. 최근 3년간 연령별 지원대상

(단위: 명)

구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합계
'22	10,356	12,430	13,552	13,686	13,518	15,122	16,810	15,807	16,476	18,238	18,978	17,489	17,870	17,670	13,855	10,784	243,006
'23	10,475	11,368	13,134	14,333	14,403	14,335	15,723	17,559	16,437	16,842	18,375	16,880	16,483	16,047	14,715	10,709	237,818
'24	10,372	11,288	12,209	13,976	15,117	15,322	15,002	16,467	18,329	16,842	17,022	15,826	15,897	14,815	13,335	11,479	233,358

\* 출처: 여성가족부 (2025). 내부자료.

지원 대상 인원을 바탕으로 연령별 신청률과 이용률, 실이용률을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신청률은 대상 인원 중 지원을 신청한 비율로 전반적으로 지원의 시작 연령인 9세의 신청률은 50% 미만으로 나왔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청률은 점차 증가하여 13~14세에 이르면 지원대상의 90%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에서는 신청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당해 24세가 지난 청소년, 수급자 변경, 이사 등의 이유로 신청자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집계된 경우도 모두 포함하며 이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자료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 신청률 및 이용률은 중복 집계된 인원을 보정한 자료이다. 또한 어린 연령대에서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부분적으로 아직 초경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sup>13)</sup>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13) 실제 성평등가족부에서는 9~10세의 목표 신청률을 대상 인원의 42.5%(대상 인원의 50% 중 신청률 85%)로 잡고 있다.

표 II-5. 최근 3년간 연령별 신청률(상단) 및 이용률(하단)

(단위: %)

구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합계	
신청률	22	<b>49.8</b>	<b>56.1</b>	<b>66.5</b>	85.4	95.0	99.6	100.4	99.0	<b>97.5</b>	<b>96.7</b>	90.9	45.2	39.3	36.3	31.4	27.0	71.2
이용률	23	30.2	<b>63.2</b>	<b>70.7</b>	<b>79.0</b>	90.1	95.1	98.7	100	97.1	<b>98.8</b>	<b>95.7</b>	100	56.1	51.1	50.6	74.8	80.1
	24	32.6	52.8	<b>75.7</b>	<b>83.5</b>	<b>88.4</b>	93.6	96.6	99.8	98.9	<b>98.1</b>	<b>97.7</b>	106.6	103.8	65.8	63.6	106.3	87.4
이용률	22	79.9	80.7	82.1	86.4	87.3	87.2	87.2	85.9	<b>85.7</b>	<b>84.7</b>	76.4	75.3	73.3	72.8	72.8	78.5	82.7
이용률	23	85.3	87.7	88.1	88.7	89.1	88.0	88.4	86.6	86.8	<b>83.8</b>	<b>82.3</b>	79.7	84.1	83.9	82.7	81.9	85.4
이용률	24	84.0	85.5	87.2	87.6	88.0	87.7	87.5	86.6	85.9	84.6	<b>79.6</b>	<b>78.7</b>	77.0	81.4	80.8	79.9	83.7
실이용률	22	39.8	45.3	54.6	73.8	83.0	86.9	87.6	85.1	83.5	81.9	69.4	34.0	28.8	26.4	22.9	21.2	58.9
실이용률	23	25.8	55.4	62.2	70.1	80.3	83.7	87.3	86.6	84.3	82.8	78.8	79.7	47.2	42.9	41.9	61.2	68.5
실이용률	24	27.4	45.2	66.0	73.1	77.8	82.1	84.5	86.4	84.9	82.9	77.7	83.9	80.0	53.5	51.4	84.9	73.2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내부자료.

\* 주. 신청률: 신청인원/대상인원  
 이용률: 이용인원/신청인원  
 실이용률: 이용인원/대상인원

한편 '22년의 자료를 보면 21세 이상에서 신청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19년에서야 비로소 19세~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 연령대에서 해당 사업의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23년도와 '24년도 자료에서는 이들의 신청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24년 기준 22~23세 여성청소년의 신청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조하므로 해당 연령대의 신청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대에서 신청률이 점차 증가한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24년의 신청률은 '22년에 비해 대부분의 연령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 신뢰성이 증가하였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22년 기준 9~11세에 속한 집단의 청소년은 '24년 기준 11~13세에 속하면서 신청률이 연령별로 22~26%p 이상 증가하였는데(〈표 II-4〉, [그림 II-3] 참고) 이는 초경 시작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 등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신청률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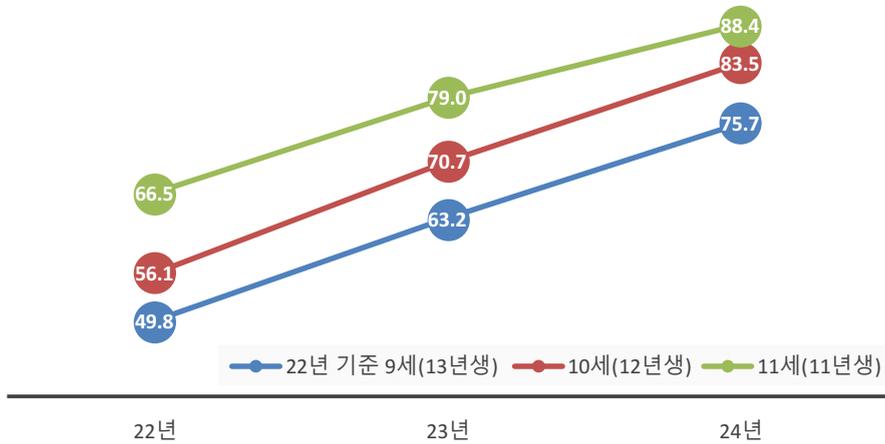


그림 II-3. '22년 기준 9세~11세의 3년간 신청률

이용률은 지원사업 신청자 중 바우처(지원금)를 조금이라도 이용한 이들의 비율로 신청자의 8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된다. 연령별 이용률은 보면 12세~18세에는 신청자의 85%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인원이 바우처를 이용하였으나 19세 이후에는 이용률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2년 기준 17~18세('24년 기준 19~20세)의 경우 '22년에 비해 '24년의 신청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률이 '22년에 비해 '24년에는 6%p 정도 감소하였다(〈표 II-4〉, [그림 II-4]). 우리나라에서 19세~20세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는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원가정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기존에 받던 복지 지원들이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는지, 복지 지원에서 유리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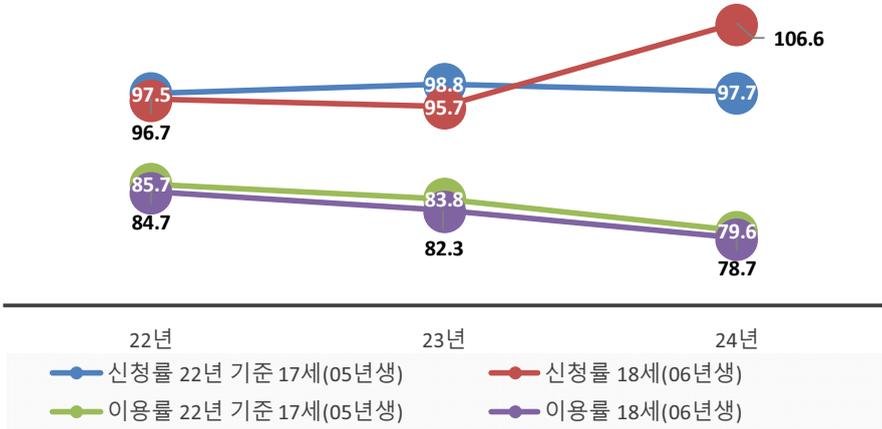


그림 II-4. '22년 기준 17세~18세의 3년간 신청률 및 이용률

한편 지원대상자 대비 실제 이용자의 수를 계산한 것을 실이용률로 정의하면 실이용률은 '22년 58.9%에서 '24년 73.2%로 14.3%p 증가하였다(〈표 II-5〉 참조). 이는 산출 방식의 특성상 신청률의 추이와 같은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즉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연령대의 실이용률은 낮았고 13~18세 연령대의 실이용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률과는 별도로 실제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즉 이용은 하였으나 전체 예산의 일부만 사용하였다면 이용률에 비해 예산 소진율이 부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6. 최근 3년간 연령별 예산 사용률

(단위: %)

구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합계
'22	84.6	85.0	86.0	87.3	86.8	86.5	86.7	85.4	<b>84.5</b>	<b>84.4</b>	79.0	80.4	78.7	77.4	77.2	77.8	84.5
'23	81.2	81.6	81.9	82.4	82.2	81.7	81.9	80.5	79.7	<b>79.0</b>	<b>75.3</b>	73.0	77.1	75.7	74.8	73.8	78.8
'24	83.1	82.8	83.4	84.3	84.2	83.6	83.1	82.1	81.3	80.3	<b>75.1</b>	<b>74.5</b>	72.7	75.9	76.0	74.9	79.4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내부자료.

\* 주. 예산 사용률: 이용액/생성액

단순 예산 소진율을 살펴보면(〈표 II-6〉) '22년에 17~18세였던 청소년들의 예산 사용률은 84% 내외로 나타났으나 2년 후인 '24년에 19~20세 때에는 예산 소진율이 75% 내외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년 사이에 약 9~10%p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앞서 '22년 기준 17세~18세의 3년간 이용률과도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이용률의 감소치(6%p 내외)보다 좀 더 높은 수치로 과거 예산 사용자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애 전환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복지 지원 연계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 1)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하여 17개 시도 및 시·군·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조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조례 수는 총 115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개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서울(12개)과 전북(12개), 경북(11개), 전남(9개), 충남(8개), 광주(7개), 강원(6개), 인천(5개), 부산(4개)과 경남(4개), 대구(3개)와 울산(3개), 대전(2개), 세종(1개)과 충북(1개)과 제주(1개)의 순이었다.

조례의 명칭을 살펴보면, 생리용품, 보건위생물품, 월경물품 등 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 처리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가 대부분이었고, 건강·위생물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여성청소년과 함께 남성청소년의 건강위생용품(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가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보건위생물품의 시설 내 비치,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 대상의 직접 지원 이외에 청소년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었다. 이밖에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 인권 또는 복지 지원 조례 내에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있었다.

지원대상을 대상 범위와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관내 여성청소년 대상의 조례가 108개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관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6개), 지자체 관내 취약계층 남성 및 여성청소년(1개)의 순이었다. 대상 연령은 11~18세가 64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9~24세(42개), 9~18세(5개), 13~18세(2개), 19세 미만(1개),

11~24세(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4)</sup>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의 직접 지원이 108개로 대부분이었고, 생리용품 직접 지원과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 비치(3개), 생리용품 직접 지원과 학교, 청소년시설, 공공시설에 생리용품 비치(1개) 등 여성청소년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설에 생리용품 비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조례, 그리고 보건위생용품 비치(2개), 청소년 시설에 생리용품 비치(1개) 등 생리용품의 시설 비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었다.

표 II-7.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조례 분석

지역	조례수 (자치구 수)	조례명칭	지원대상		지원내용
			범위	연령	
서울	12 (25)	· 생리용품 지원조례: 6개 · 생리용품 보편지급조례: 1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3개 · 건강·위생물품 지원조례: 1개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11개 · 지역 취약계층 남성 및 여성청소년: 1개	· 11~18세: 4개 · 19세 미만: 1개 · 9~24세: 7개	· 생리용품 지원: 11개 · 생리용품 지원 및 학교, 청소년시설, 공공시설에 생리용품 비치: 1개
부산	4 (16)	· 생리용품 지원조례: 3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3개 · 지역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1개	· 11~18세: 1개 · 9~24세: 3개	· 생리용품 지원: 4개
대구	3 (9)	· 생리용품 지원조례: 1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1개 ·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3개	· 11~18세: 1개 · 9~24세: 2개	· 생리용품 지원: 2개 ·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 비치: 1개
인천	5 (10)	· 생리용품 지원조례: 2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3개	· 지역 여성청소년: 5개	· 11~18세: 2개 · 9~24세: 3개	· 생리용품 지원: 5개
광주	7 (5)	· 청소년복지 지원조례: 1개 · 생리용품 지원조례: 5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7개	· 11~18세: 6개 · 9~24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4개 · 생리용품 지원 및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 비치: 3개

14) '25년 기준 지자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및 자체사업 추진 현황 비교표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지역	조례수 (자치구 수)	조례명칭	지원대상		지원내용
			범위	연령	
대전	2 (5)	· 생리용품 지원조례: 2개	· 지역 여성청소년: 2개	· 11~18세: 1개 · 9~24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2개
울산	3 (5)	· 생리용품 지원조례: 3개	· 지역 여성청소년: 3개	· 11~18세: 1개 · 9~24세: 2개	· 생리용품 지원: 3개
세종	1 (1)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1개	· 9~24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1개
경기	26 (31)	· 생리용품 지원조례: 21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5개	· 지역 여성청소년: 26개(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15개)	· 11~18세: 24개 · 9~24세 : 2개	· 생리용품 지원: 26개
강원	6 (18)	· 생리용품 지원조례: 3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개 ·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 6개	· 9~18세: 1개 · 11~18세: 4개 · 9~24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5개 · 보건위생용품 비치: 1개
충북	1 (11)	· 생리용품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1개	· 9~18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1개
충남	8 (15)	· 생리용품 지원조례: 7개 · 월경용품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 8개	· 11~18세 : 2개 · 13~18세 : 2개 · 9~24세 : 4개	· 생리용품 지원: 8개
전북	12 (14)	· 생리용품 지원조례: 8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4개	· 지역 여성청소년: 9개 · 지역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3개(다자녀가정 여성청소년 1개 포함)	· 9~18세: 1개 · 11~18세: 4개 · 9~24세 :6개 · 11~24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12개
전남	9 (22)	· 생리용품 지원조례: 5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4개	· 지역 여성청소년: 8개 · 지역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1개	· 11~18세: 8개 · 9~24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9개
경북	11 (22)	· 생리용품 지원조례: 7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3개 ·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 물품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10개 · 지역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1개	· 9~18세: 2개 · 11~18세: 4개 · 9~24세: 5개	· 생리용품 지원: 10개 · 보건위생용품 비치: 1개
경남	4 (18)	· 생리용품 지원조례: 4개	· 지역 여성청소년: 4개	· 11~18세: 2개 · 9~24세: 2개	· 생리용품 지원: 4개

지역	조례수 (자치구 수)	조례명칭	지원대상		지원내용
			범위	연령	
제주	1 (2)	· 생리용품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1개	· 9~24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1개
계	115	· 생리용품 지원조례: 75개 · 생리용품 보편지급조례: 1개 ·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19개 · 건강 위생물품 지원조례: 1개 · 월경용품 지원조례: 1개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1개 · 청소년복지 지원조례: 1개 ·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 2개 ·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1개	· 지역 여성청소년 : 108개 · 지역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6개 · 지역 취약계층 남성 및 여성청소년: 1개	· 9~18세: 5개 · 11~18세: 64개 · 13~18세: 2개 · 19세 미만: 1개 · 9~24세: 42개 · 11~24세: 1개	· 생리용품 지원: 108개 · 보건위생용품 비치: 2개 · 생리용품 지원 및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 비치: 3개 ·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 비치: 1개 · 생리용품 지원 및 학교, 청소년시설, 공공시설에 생리용품 비치: 1개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검색일: 2025.5.19.~5.22.)

생리용품 지원 외에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이상 월경 원인에 대한 상담과 교육, 한의학적 치료를 지원하여 월경통 완화로 여성 생식건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안양시 한의약 육성조례 제7조(추진사업 등)에 근거하여 안양시에 거주 중인 만13~18세 여성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상 및 예산 분석

(1)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이용률 및 예산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사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상인원은 233,358명이었고, 신청인원은 204,002명으로 신청률이 87.4%이었으며, 이 중 중복인원을 제거한 이용건수는 170,767명으로 이용률은 83.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청률은 세종특별자치시가 96.5%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81.5%로 가장 낮았고, 이용률은 대구광역시가 88.1%로 가장 높은 반면, 전라남도가 8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지방자치단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률('24년 기준)

(단위: 명, 건, %)

시·도명	대상인원 (A)	신청인원 (B)	이용건수 (C)	신청률 (B/A)	이용률 (C/B)	실이용률
합계	233,358	204,002	174,935	87.4		
중복제거 합계			170,767		83.7	
서울특별시	31,994	28,380	24,865	88.7	87.6	77.7
부산광역시	17,806	16,693	14,246	93.7	85.3	79.9
대구광역시	13,478	11,773	10,367	87.3	88.1	76.9
인천광역시	16,725	14,420	12,381	86.2	85.9	74.0
대전광역시	7,800	7,365	6,467	94.4	87.8	82.9
광주광역시	10,573	9,703	8,324	91.8	85.8	78.8
울산광역시	4,556	4,069	3,408	89.3	83.8	74.8
세종특별자치시	976	942	815	96.5	86.5	83.5
경기도	46,753	38,446	33,052	82.2	86.0	70.7
강원특별자치도	7,401	6,567	5,486	88.7	83.5	74.1
충청북도	7,616	6,844	5,741	89.9	83.9	75.4
충청남도	8,949	7,680	6,491	85.8	84.5	72.5
전북특별자치도	13,545	11,944	10,193	88.2	85.3	75.2
전라남도	10,059	8,787	7,187	87.4	81.8	71.5
경상북도	13,054	10,869	9,269	83.3	85.3	71.1
경상남도	17,902	16,121	13,750	90.1	85.3	76.9
제주특별자치도	4,171	3,399	2,893	81.5	85.1	69.4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내부자료(2025). 내부자료

\* 주: 중복제거는 시도 간 전출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원 중복분을 제거한 수치를 말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내부자료(2025)를 통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3년도 예산은 총 101,238백만 원이었고, '24년도 예산은 90,56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의 생성금액은 30,512백만 원이었고, 이중 집행금액은 23,772백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은 77.9%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도가 85.5%로 생성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69.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 지방자치단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24년 기준)

시·도명	생성금액(C)	집행금액(D)	집행률(D/C)
합계	30,512	23,772	77.9
서울특별시	4,328	3,414	78.9
부산광역시	2,376	1,922	80.9
대구광역시	1,780	1,419	79.7
인천광역시	2,176	1,619	74.4
대전광역시	1,044	856	82.0
광주광역시	1,396	1,121	80.3
울산광역시	578	462	79.9
세종특별자치시	124	106	85.5
경기도	5,990	4,541	75.8
강원특별자치도	1,018	743	73.0
충청북도	982	763	77.7
충청남도	1,128	884	78.4
전북특별자치도	1,780	1,411	79.3
전라남도	1,308	987	75.5
경상북도	1,680	1,269	75.5
경상남도	2,290	1,883	82.2
제주특별자치도	534	371	69.5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내부자료.

\* 주: 중복제거는 시·도 간 전출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원 중복분을 제거한 수치를 말함.

## (2) 지방자치단체 생리용품 자체 지원사업 관련 예산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총 예산의 증감률은 다음 <표 II-10>과 같다. '23년에 비해 '24년 총 예산은 3,355백만 원 감소하였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경기도는 보편지원을 위한 예산이 7,292백만 원 감소하고, 경상북도에서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을 위한 예산이 54백만 원 감소함에 따라 전체 예산이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및 예산 증감률('24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

지역	'23년 예산		'24년 예산 (B)	예산 증감률 (B-A/A)	
	예산(A)	집행			
합계	61,908	57,561	58,553	-5.4	
서울	4,133	3,095	4,340	5.0	
부산	2,208	1,892	2,376	7.6	
대구	1,556	1,359	1,780	14.4	
인천	1,852	1,551	2,176	17.5	
대전	976	811	1,044	7.0	
광주	1,186	1,046	1,396	17.7	
울산	506	434	578	14.2	
세종	116	103	124	6.9	
경기	취약지원	5,044	4,216	5,990	18.8
	보편지원	35,229	35,229	27,937	-20.7
	계	5,160	4,319	6,114	-15.8
강원	840	730	1,018	21.2	
충북	800	677	982	22.8	
충남	904	764	1,128	24.8	
전북	1,540	1,389	1,780	15.6	
전남	1,082	912	1,308	20.9	
경북	취약지원	1,422	1,170	1,680	18.1
	지급기 운영	146	146	92	-37.0
	계	2,504	2,082	2,988	2.8
경남	1,892	1,661	2,290	13.0	
제주	476	376	534	12.2	

\*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다.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경북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및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인천과 경기, 광주에서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인천은 18세 여성청소년을, 경기도는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일정 연령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청소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 일정 수의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또는 반기분의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광주는 시와 교육청 간 예산을 50:50으로 매칭하여 16~18세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지원대상에 비해 연령대가 제한적임을 볼 수 있다. 전북의 경우에는 보편지원은 아니지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고 있고, 인천, 충남과 경북은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사업을 통해 상담복지센터 등 여성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11.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자체 지원사업 예산 구성 및 추진계획, 추진실적

자치현명	사업명	'24년 예산 (단위: 백만 원)		'24년 추진계획 목표치	'23년 추진실적		비고	추진기초단체(목표치 등)
		총계	시·도 예산		시·군· 구 예산	목표치		
인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600	300	300	9,923 명	7,851 명	18세 여성청소년, 지역화폐 활용 월 13,000원 지원	옹진군(월20명), 중구(120명), 미추홀구(500명), 남동구(1,300명), 부평구(1,118명, 반기분), 계양구, 서구(1,490명, 반기분)
	청소년이용시설 비상용 생리용품 비치	10	10		10개소	10개소	23년 청소년이용시설 협력기관 확보 10개소 신규 설치, 24년 3건 설치 예정	
광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2,975	2,975			17,412 명	시-교육청 예산(50:50), 학교밖 1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27,937	8,381	19,556	223,846 명	174,024 명	11~18세 여성청소년	기평군(1,583명), 과천시(2,996명), 광주시(12,865명), 구리시(4,938명), 군포시(8,000명), 김포시(16,012명), 동두천시(2,300명), 시흥시(15,000명), 안양시(5,000명), 양주시(7,579명), 양평군(2,700명), 여주시(2,600명), 연천군(966명), 의왕시(3,500명), 이천시(8,172명), 평택시(15,000명), 포천시(2,964명), 하남시(11,870명), 화성시(33,773명)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지자체명	사업명	'24년 예산 (단위: 백만 원)			'24년 추진계획		'23년 추진실적		비고	추진기초단체(목표치 등)
		총계	시·도 예산	시·군· 구 예산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지원수		
충남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1.2	1.2						학교 밖 청소년에서 도 내 위기(가능)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생리대 지급기 상시 운영 및 관리, 생리대 상시 지원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0	10		400				9~24세 학교밖 여성청소년, 1인당 연 25,000원 한물지원	
경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92	33	59	74대	65대	66대		여성청소년 이용시설 내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 및 운영 지원	경주시, 경산시, 의성군, 봉화군, 울진군

\*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3) 기초자치단체 생리용품 자체 지원사업 관련 예산

#### ① 개인 지급 방식의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서울 성동구, 울산 동구, 인천 강화군, 강원 태백시 및 양구군, 충북 영동군, 전북 김제시, 장수군, 부안군, 전남 광양시, 구례군, 화순군, 경북 울진군 등 총 13개 시·군·구였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대상연령에 차이가 있긴 하나, 시·군·구 예산을 통해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역화폐, 현물 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중 9~24세 여성청소년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지정한 곳은 없었으며, 보편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일정 연령, 여성청소년 중 인원이 정해진 일부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2. 기초자치단체 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24년도 예산 및 지원대상 구성

(단위: 백만 원)

지역명		사업명	시·군·구 예산	비고
지자체명	기초 단체명			
서울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621	11~18세 여성청소년
인천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	235	9~18세 1,500명, 지역화폐(인천e음)
울산	동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	190	19~22세 여성청소년, 9~18세 학교 밖 여성청소년 1,200명
강원	태백시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보건위생 물품지원	253	관내 여성청소년 및 54세 이하의 다자녀 가정 여성 1,700명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20	9~19세 여성청소년
충북	영동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25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 구입비용 지급(12,000명 중 900명 목표)
전북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414	관내 여성청소년 2,400명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현물지원 550명
	부안군	청소년 건강지원	126	11~18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900명

(단위: 백만 원)

지역명		사업명	시·군·구 예산	비고
지자체명	기초 단체명			
전남	광양시	청소년 건강지원	303	16~18세 여성청소년 2,300명
	구례군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76	11~18세 여성청소년 연 12만 원 지원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230	11~18세 1,600명
경상북도	울진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	140	13~18세 여성청소년에 실물바우처 카드 지원(13,000원, 900명)

\*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② 학교( 및 청소년 이용시설) 중심의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현황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생리대를 보급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은평구와 구로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봉화군 등 총 3개 시도, 4개 시·군·구였다. 이들 지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구로구의 경우 청소년시설 포함)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고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13. 기초자치단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기관 지원사업 '24년도 예산 및 지원기관 구성

(단위: 백만 원)

지역명		사업명	시·군·구 예산	비고
지자체명	기초 단체명			
서울	은평구	여성청소년 비상용 생리대 비치 지원	12	관내 학교 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생리대 지원(생리대 20,000개 보급)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594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 설치 및 보급(14,000명 지원)
경기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함 지원	32	관내 초중고등학교 생리대, 위생용품함 지원 (34개교)
경북	봉화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107	관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내 생리대 무리지급기 설치 및 생리용품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4.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생리용품 지원 현황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2항에 따르면 보건실에는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②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는 시·도규칙으로 정하고 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서 규정한 [별표1]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 내에는 생리용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영역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등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고 있는데, 규칙 내에 여성용품(생리대)를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 부산, 울산, 충북 등 4개 교육청이었고,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구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경우는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교육청이었다. 광주와 제주는 규칙 내에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만, 각 규칙 내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서로 달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4. 시·도교육청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내 여성용품 포함 여부

지자체명	규칙명	생리용품 포함 여부	구비 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교육부령 제270호)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	△	-
서울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	○	필수
부산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필수
대구	대구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권장
인천	인천광역시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권장
광주	광주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X	-
대전	대전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권장
울산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필수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권장
경기	경기도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권장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	권장
충북	충청북도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필수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에 관한 규칙	△	권장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에 관한 규칙	△	권장
전남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권장
경북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권장
경남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권장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X	-

\* 출처: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자치법규(조례·규칙)(검색일: 2025.07.25)

\* 주: 생리용품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생리용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 △: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로 광범위하게 제시
- X: 보건관리에 필요한 용품이 명시되지 않음

## 5. 소결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2016년 보건소 현물 지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약 126~148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30%, 그 외 지역은 50%였다. 신청률은 전체 대상인원의 약 70~87% 수준이었고, 실제 이용률은 전체 대상자의 약 59~73% 수준이었다. 해마다 신청률 및 실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접근성, 신뢰도가 증가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21세 이상의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19세 이상부터는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18세 청소년들이 생애전환기가 되는 19~20세가 되었을 때 이용률과 순예산 소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로도 신청률과 이용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세종시가 신청률과 예산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은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총 115개였으며, 이 중 108개는 지자체 관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그 중 경기도가 26개로 가장 많았다. 지원대상의 연령은 11~18세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성평등가족부의 지원 연령인 9~24세에 비해 협소함을 볼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서는 생리용품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공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며, 안양시와 같이 월경통 한방진료지원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은 인천, 경기, 광주,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추진 중인데, '보편 지원'의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일정 연령(18세, 11~18세 등)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에 맞춰 일정 인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는 서울 성동구, 울산 동구 등 전국 총 13개 시·군·구가 개인지급방식의 보편사업을 추진 중이나, 기초자치단체 사업 역시 9~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아닌, 일정 연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나 청소년시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과 기구, 용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교육부령과 시·도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생리용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도규칙 내에서도 생리용품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은 4곳, 권장하고 있는 교육청은 11곳,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교육청은 2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제시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지원현황,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생애전환기(19~20세)의 이용률과 예산 소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원가정을 떠나 생활하며 복지 지원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이 시기 동안 복지지원의 이탈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생애전환기 연계지원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성평등가족부의 사업이 9~24세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보편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지원 대상이 일부 연령에 국한되어 있거나 일정 예산 내에 속하는 일정 인원만 지원하고 있어 보편지원의 개념과 괴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 신청률이나 이용률, 예산집행률 등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도교육청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이 수립되어 있으나, 생리용품의 구비가 필수가 아닌 권장 또는 미포함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교육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학교 내 생리용품 비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제3장 해외 주요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추진 현황

- 1. 스코틀랜드
- 2. 영국
- 3. 뉴질랜드
- 4. 프랑스
- 5. 미국
- 6. 캐나다
- 7. 시사점



# 3

## 해외 주요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추진 현황<sup>15)</sup>

월경빈곤 문제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월경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복지 문제이자 기본적인 인권의 측면으로 인식하여 법적 의무화 및 공공기관·교육기관 등을 중심의 무상생리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스코틀랜드<sup>16)</sup>

#### 1) 개요

스코틀랜드는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제공을 법률로 명문화(생리용품 무상제공법)하여 여성청소년을 포함한 ‘생리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무료로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지역 당국과 각급 학교 및 단과대학/종합대학 등은 학교 화장실 등 일정 장소에 생리용품을 비치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본 장은 장지희 연구원(넥스텔리전스)이 자료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음.

16)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 (Scottish Government). *Poverty and social justice*. <https://www.gov.scot/policies/poverty-and-social-justice/access-to-free-period-products/> (검색일: 2025.5.14.)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 (Scottish Government, 2022.09.29). *Access to free period products in educational settings during the 2018-19 academic year: monitoring and evaluation report*. <https://www.gov.scot/publications/access-free-period-products-educational-settings-during-2018-19-academic-year-monitoring-evaluation-report/pages/2/> (검색일: 2025.10.10.)

## 2) 법·제도적 근거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7년부터 일명 ‘생리빈곤(period poverty)’이라 불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정부 및 스코틀랜드 기금위원회(Scottish Funding Council)와 협력해 다양한 환경에서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간 생리용품 무료 제공 시범 사업(애버딘 시범 사업)을 지원했고, 동 사업 참가자 및 파트너 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세계 최초로 39만 5,000명의 모든 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sup>17)</sup>을 시작했고, 2019년 12월부터는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도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선단체인 페어셰어(FareShare)에도 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무료 생리용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2020년 11월에는 ‘학교 생리용품 규정(Period Products in Schools (Scotland) Regulations 2020)’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들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내 모든 학교에 생리용품이 비치되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생리용품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동 규정은 2021년 ‘스코틀랜드 생리용품 무상제공법(Period Products (Free Provision) (Scotland) Act 2021)’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여성청소년은 물론 스코틀랜드 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생리용품을 얻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지방정부와 교육기관에 생리용품 무상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무는 동 법의 발효일인 2021년 1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전에도 여러 지방 당국은 생리용품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 법에 따라 정부는 2021년 9월 27일 지방 당국과 교육 제공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이행 방안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지침은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17) 특별한 고유 명칭 없이 “Access to Free Period Products in Educational Settings” 또는 “Free Period Products Scheme for Students” 등으로 불렸으며, 정부 공식 문서에서는 “free period products i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로 표기함.

표 III-1. 스코틀랜드의 생리용품 지원 법·제도 추진 경과

명칭	주요 내용	주요 경과
학교 생리용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교(전문대학, 종합대학 포함) 학생들에게 무료 생리용품 제공</li> <li>· '생리빈곤'으로 인해 수치심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li> <li>· 학교 및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자발적인 합의)으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8.24. 발표, 2018/19학년도 적용</li> </ul>
학교 내 생리용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li> <li>·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무료로 생리용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li> <li>· 현재는 스코틀랜드 생리용품 무상제공법으로 대체되어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6.22. 의회 통과, 2020.10.19. 발효</li> </ul>
스코틀랜드 생리용품 무상제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당국 및 교육기관들에 대해 생리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li> <li>· 2020년 학교 내 생리용품 규정 대체</li> <li>· 정부는 동 법에 따라 생리용품 제공 의무를 지닌 기관('책임 기관')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법적 지침을 발표(2021년 9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11.24. 의회 통과, 2021.1.12. 왕실 재가, 2022.8.15. 발효</li> </ul>

\* 출처: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 (Scottish Government), *Period Products (Free Provision) (Scotland) Act 2021: Equality Impact Assessment*. <https://www.gov.scot/publications/period-products-free-provision-scotland-act-2021-equality-impact-assessment/> (검색일: 2025.10.10.).

### 3) 운영 방식

생리용품 무상제공법에 따라 지역 당국 및 교육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관련 자금을 활용하여 실제로 생리용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지역 정부를 예로 살펴보면, 정부가 32개 지방의회(council)에 생리용품 예산을 전달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지역사회 및 학교에 배분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예산 사용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스코틀랜드의 독립 비영리 미디어 협동조합인 더 페럿(The Ferret)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법률 시행 첫 해인 2022/23년을 기준으로 지방의회들은 평균적으로 지원금의 대부분(약 71%)을 지역사회 일반 대중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약 15%는 학교(단과대학/종합대학 제외)에, 그리고 나머지 약 14%는 행정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기금위원회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한편 생리용품 무상제공법에 따라 생리용품 무상 제공 의무를 갖게 된 기관들을 '책임 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① 접근성, ② 존엄성, ③ 합리적인 선택이라

18) The Ferret (2023.3.12). *Scotland's councils underspend on period products*. <https://theferret.scot/scotlands-councils-underspending-period-products/> (검색일: 2025.10.10.).

는 3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첫째, 접근성은 제품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제품을 요청할 때 제품이 필요한 이유나 양을 설명할 필요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접근성에는 제품을 구할 수 있는 장소 등 관련 정보의 제공, 특정 장소에서의 수령 또는 우편 배송, 제품 수령을 위한 문서절차 요구 금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존엄성이란 생리용품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생리용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용품을 구매할 때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당혹감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개인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누군가에게 제품을 직접 요청하는 불편,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하는 불편, 왜 무료로 제품을 얻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셋째, 합리적인 선택이란 책임 있는 기관이 의무 이행을 위해 어떤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할지 결정할 때 개인이 어떤 제품 유형을 선호하는지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 법은 생리용품을 “월경혈을 흡수하거나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품”이며 “탐폰, 생리대,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기관은 모든 지역이나 모든 배송 방법을 통해 모든 종류의 제품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생리용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책임 기관들은 법률에 따라 무료 생리용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해당 제품의 제공 방식, 제공 장소, 그리고 제공해야 할 제품의 종류 등에 대한 협의 의무가 있다. 협의해야 할 개인에는 모든 성 정체성과 연령대가 포함되며, 특히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이후 책임 기관은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공표하고 생리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sup>19)</sup>

---

19)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 (Scottish Government, 2021.09.27). *Period Products (Free Provision) (Scotland) Act 2021: guidance - September 2021*. <https://www.gov.scot/publications/period-products-free-provision-scotland-act-2021-guidance-responsible-bodies-september-2021/pages/2/> (검색일: 2025. 10.10)

#### 4) 추진 비용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8년 관련 사업을 처음 시행할 당시 39만 5,000명의 모든 학생 및 대학생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520만 파운드 규모의 지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규정 및 법이 정비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80만 파운드를 지역 정부에 지원하였다. 또한 단과대학/종합대학에 대해서도 매년 별도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데 2024/25년도 기준 약 120만 파운드이다.<sup>20)</sup> 이와 더불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등 파트너 기관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86만 파운드를 지원해 왔다.

생리용품 무상제공법이 마련될 당시인 2019년 중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생리용품이 필요한 전체 인구(11~55세)는 대략 157만 명으로, 정부는 동법 시행을 위한 비용을 2022/23년도 기준 약 870만 파운드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비용은 제공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추산치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sup>21)</sup>

## 2. 영국<sup>22)</sup>

### 1) 개요

영국 정부는 2020년 1월 20일부터 학교·대학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무료 지급 제도(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를 시행하여 5학년(9~10세) 이상

---

20) Scottish Funding Council (2024.11.08.). *Access to Free Period Products FY 2024-25*. p.6-7. <https://www.sfc.ac.uk/wp-content/uploads/2024/11/Access-to-Free-Period-Products-2024-25.pdf> (검색일: 2025.10.10.).

21) CBS News (2020.11.25). *Scotland becomes 1st country to make free period products the law*. <https://www.cbsnews.com/news/free-period-product-scotland/> (검색일: 2025.10.10.).

22)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Updated 2024.09.0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riod-products-in-schools-and-colleges/period-product-scheme-for-schools-and-colleges-in-england> (검색일: 2025.10.10.).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2025.01.21). *Period product scheme: management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riod-products-scheme-management-information> (검색일: 2025.10.10.).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01.21). *Period product scheme Management information: 2023 to 2024 academic year*.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798ed1f4686aac158606421/P/eriod\\_product\\_scheme\\_management\\_information\\_2023\\_to\\_2024.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798ed1f4686aac158606421/P/eriod_product_scheme_management_information_2023_to_2024.pdf) (검색일: 2025.10.10.).

여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공립학교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16~19세 교육기관<sup>23)</sup>에 생리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를 위한 생리용품 주문 처리 및 배송은 정부가 계약한 민간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영국여성단체들이 면도기 등 남성용품이나 다른 생필품과는 달리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탐폰세(tampon tax) 철폐운동을 벌여온 결과,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용품에 부과되었던 탐폰세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영국 정치권에서도 탐폰세 폐지를 지지했으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해야 해서 유럽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소 세율 5%를 적용했었으나,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첫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탐폰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탐폰세 폐지로 탐폰 20매를 기준으로 7펜스(한화 약 105원), 12매 생리대는 5펜스(약 75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24)</sup>

## 2) 법·제도적 근거

스코틀랜드와 달리 영국은 생리용품 무료 지급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지 않았다. 영국의 제도는 ‘생리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편성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교육부의 주도로 운영된다.

## 3) 운영 방식

생리용품 무료 제공을 위해 정부는 위생용품 기업(Personnel Hygiene Services Limited)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적격 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동 기업이 운영하는 전용 포털을 통해 학교별 ‘지출한도(spend cap)’ 금액 내에서 생리용품을 주문하고, 배송을 받을 수 있다.

학교의 지출한도는 현재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9세 이상의 학생 중 생리를 시작한 학생 수<sup>25)</sup>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영국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무료 생리용품을 필요로

23) 16~19세 대상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독립 학습 기관, 16세 이상 대상 특수교육 기관 등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03.31.). **영국, 2020년 12월 말부터 여성용품 부가가치세 폐지**. <https://www.kwdi.re.kr/research/fttrandView.do?p=1&idx=125563> (검색일 : 2025.05.20.).

25) 연령별로 생리를 시작하는 비율은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9세 5%, 10세 10%, 11세 20%, 12세 50%, 13세 75%, 14세 95%, 15세 100%로 추산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예상 이용률을 35%로 설정하고, 지원 대상 여학생 수의 35%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 인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각 학교는 매 학년도마다 전용 포털에서 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3/24학년도를 기준으로 영국 중등학교의 지출한도 평균은 1,667 파운드, 초등학교의 지출한도 평균은 23파운드였다.

학교들은 연중 언제든지 생리용품을 주문할 수 있으나, 지출한도에 따라 배송 가능한 횟수가 제한된다. 예로, 연간 지출 한도가 최대 40파운드인 학교는 연중 최대 2회 제품 배송 신청이 가능하고, 지출한도가 1,800파운드 이상인 학교는 연중 최대 11회까지 제품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주문 가능한 제품은 일반 생리대, 친환경 재사용 생리대, 면 생리대, 탐폰, 생리팬티, 생리컵 등 다양하다.

#### 4) 추진 비용

2023/24학년도에는 8,567개 교육기관(전체 적격 기관의 42%)이 무료 생리용품을 신청했고, 전체 주문횟수는 1만 9,300건이었다. 총 주문금액은 5,417,000파운드로, 영국 정부가 모든 적격 기관을 위해 배정한 총 예산의 73%에 달하였다.

### 3. 뉴질랜드<sup>26)</sup>

#### 1) 개요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무료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학교 생리용품(Period products for schools)'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뉴질랜드 전역의 각급 공립학교와 마오리 학교(Kura)에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

26) 뉴질랜드 교육부 웹사이트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24.08.14). *Period products for schools*. <https://www.education.govt.nz/education-professionals/schools-year-0-13/administration-and-management/period-products-schools#about-the-programme-1> (검색일: 2025.10.10.).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 (Beehive.govt.nz, 2021.2.18.). *Free Period products to be available in all schools and kura*. <https://www.beehive.govt.nz/release/free-period-products-be-available-all-schools-and-kura> (검색일: 2025.10.10.).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 (Beehive.govt.nz, 2024.03.24.). *Government commits nearly \$3 million for period products in schools*. <https://www.beehive.govt.nz/release/government-commits-nearly-3-million-period-products-schools> (검색일: 2025.10.10.).

핵심으로, 학교들은 정부와 계약한 공급업체를 통해 직접 필요한 생리용품을 주문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2) 법·제도적 근거

뉴질랜드는 생리용품 무료 지급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았다. 동 프로그램은 '생리빈곤'과 생리용품이 없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중반 와이카토(Waikato) 지역 15개 학교에서 실시한 시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별도의 정부 예산을 편성해 시행되는 것으로,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다.

## 3) 운영 방식

생리용품 무료 제공을 위해 정부는 사무용품 및 학용품 업체(OfficeMax)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들은 교육부에 문의하여 동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계정을 받을 수 있다. 학교별 신청(주문) 한도는 학교급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생리용품이 필요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표 III-2. 뉴질랜드 학교의 월별 생리용품 신청 한도

생리용품이 필요한 학생 수	초등학교(1-6학년)	중등학교(7-8학년)	고등학교(9-13학년)
50명	8팩	62팩	125팩
200명	32팩	248팩	500팩
500명	80팩	620팩	1,250팩
1,000명	160팩	1,240팩	2,500팩

\* 출처: OfficeMax 웹사이트. *Ordering Guidance*. <https://www.officemax.co.nz/Ministry-Of-Education-Period-Products?srsltid=AfmBOoqkmKpASVgBtqFhLsTRZPee6oDIBI7a3YtH2au1JdXJLKXnIntR> (검색일: 2025.10.10.).

\* 주: 생리용품이 필요한 학생 수는 1-6학년 여학생 중 6.3%, 7-8학년 여학생 중 49%, 그 이상 학년 여학생은 100%로 추산

주문 가능한 생리용품은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로 한정적인 편이다. 정부는 2023년 1학기부터 3학기<sup>27)</sup>까지 생리팬티, 생리컵 등 재사용이 가능한 생리용품을 일부 학교에

27) 뉴질랜드의 학사 운영은 연 4학기제로, 각 학기는 약 10주로 구성되고 1학기는 일반적으로 2월 초에 시작됨.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했고, 이에 대한 독립 평가에서 학생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통해 편의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학교 환경에서 실용적이지 않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비하더라도 일회용 제품 역시 이중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당장은 학교들에 재사용이 가능한 생리용품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학교는 교내 화장실, 교사, 상담사, 기타 수납장이나 디스펜서(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제품 지급 방법은 각 학교가 결정한다.

#### 4) 추진 비용

2021년 학교 생리용품 프로그램을 발표할 당시 뉴질랜드 정부는 2024년까지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8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4년 3월 뉴질랜드 교육부는 정부가 동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290만 뉴질랜드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히고, 최대 20만 명의 학생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4. 프랑스<sup>28)</sup>

#### 1) 개요

프랑스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전국 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 생리용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생리빈곤’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차질이

---

28)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info.gouv.fr, 2021.02.23.). *Gratuité des protections périodiques pour les étudiantes*. <https://www.info.gouv.fr/actualite/gratuite-des-protections-periodiques-pour-les-etudiantes> (검색일: 2025.10.10.).

Franceinfo (2021.02.23). *Protections périodiques gratuites pour les étudiantes : la Fage salue "une volonté de lever le tabou"* [https://www.franceinfo.fr/sante/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pour-les-etudiantes-la-fage-salue-une-volonte-de-lever-le-tabou\\_4308151.html](https://www.franceinfo.fr/sante/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pour-les-etudiantes-la-fage-salue-une-volonte-de-lever-le-tabou_4308151.html) (검색일: 2025.10.10.).

Allo Docteurs (2022.11.24). *Protections périodiques gratuites dans les universités : peut mieux faire*. <https://www.allodocteurs.fr/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dans-les-universites-peut-mieux-faire-33649.html> (검색일: 2025.10.10.).

NHK World (2021.04.30). *"Period poverty" enters spotlight in France*.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backstories/1607/> (검색일: 2025.10.10.).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 2) 법·제도적 근거

프랑스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학생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생리용품 무료 지원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생리용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sup>29)</sup>들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 3) 운영 방식<sup>30)</sup>

프랑스 정부는 '21년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교내 학생 서비스 센터, 기숙사 등에 1,500개의 생리용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 전국 고등교육기관에 1,500개의 생리용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했는데 제공되는 제품은 주로 생리대와 탐폰이었다. 다만 이 목표는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생리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4년부터 25세 이하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4) 추진 비용

대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투자한 비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2021년 대학교 내 생리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포함해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과 인식개선활동 등 '생리빈곤'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원 활동을 위해 약 500만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마련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9)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 헤글르 켈레망떼르(Règles Élémentaires)는 여성의 월경빈곤에 맞서 싸우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최초의 비영리단체. 동 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생리용품을 수거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30) Euro News (2023.10.03.). *Rising period poverty: France announces free sanitary products for under 25s*. <https://www.euronews.com/2023/03/10/rising-period-poverty-france-announces-free-sanitary-products-for-under-25s> (검색일: 2025.10.10.).

## 5. 미국<sup>31)</sup>

### 1) 개요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학생 또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생리용품 연합(Alliance for Period Supplies)에 따르면,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 내 28개 주정부와 워싱턴 D.C.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료로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인 곳은 뉴욕시, 캘리포니아주 등이다.

### 2) 뉴욕시<sup>32)</sup>

뉴욕시는 2016년 6월 21일 미국 지자체 중 최초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Int 1128-2016, 일명 ‘뉴욕시 학교 생리용품법’)을 통과시켰다.<sup>33)</sup> 동 법안은 뉴욕시 행정법 제21-A편(교육) 제8장을 개정하여, 시 교육부로 하여금 6학년부 터 12학년 학생들이 재학 중인 모든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 화장실에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생리대와 탐폰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내 30만 여 명의 적격 학생들을 위해 800여 개 학교에 생리대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었는데, 시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비 370만 달러, 연간 유지관리비 190만 달러로 추산하였다. 법률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학교들에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 관리

31) Alliance for Period Supplies 웹사이트. *Period Products in Schools*. <https://allianceforperiodsupplies.org/period-products-in-schools/>. (검색일: 2025.05.18.).

32) 뉴욕시 웹사이트 (NYC, 2016.07.13). *Transcript: Mayor de Blasio Signs Intros. 1122-A, 1123-A and 1128-A*. <https://www.nyc.gov/office-of-the-mayor/news/622-16/transcript-mayor-de-blasio-signs-intros-1122-a-1123-a-1128-a> (검색일: 2025.10.20.).

Vox (2016.06.23). *New York City to provide free tampons and pads in public schools, jails, and shelters*. <https://www.vox.com/2016/6/22/12005866/free-tampons-pads-in-new-york-city> (검색일: 2025.10.20.).

Schmitt, M. L., Booth, K., & Sommer, M. (2022). *A policy for addressing menstrual equity in schools: a case study from New York City*, USA. *Frontiers in Reproductive Health*, 3, 725805.

33) 동 법안과 더불어 노숙자 쉼터 등 임시 쉼터에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법안(Int 1123-2016)과 교도소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Int 1122-2016)도 ‘월경 평등’을 위한 법안 패키지로 묶여 함께 통과되었고, 2016년 7월 13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제정됨.

서비스 교육, 학교 지도부 등에 대한 통지 조치 등이 시작되었는데,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시 교육부 산하 학교시설국(Division of School Facilities)이 담당하였다.

이어서 뉴욕시의회는 2023년 12월 6일 또 다른 학교 생리용품 무상 제공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 패키지를 통해 시는 기존에 사용해 온 ‘여성용 위생용품(feminine hygiene product)’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menstrual product)’으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생리컵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교육부에 대해 학교 생리용품 제공 현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이 부여하였다(뉴욕시 법안 Int 1055-2023). 또한 6학년 이전에 생리를 시작하는 여학생의 경우 무료 생리용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기존 6학년에서 4년으로 낮춰 제공 대상 범위도 확대하였다(Int 1056-2023).<sup>34)</sup>

한편, 시 교육부는 새로이 부여된 보고 의무에 따라 2024년 11월에 최초로 학교 생리용품 제공 현황을 보고하고 2023/24학년도 기준 모든 학교들에서 학교 생리용품법이 준수되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무료 탐폰과 생리대가 학교에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었더라도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품질이 너무 낮아 사용하기를 꺼린다는 증언 등이 잇따르면서 2025년 3월 교육부를 상대로 비영리단체(Period Law) 등이 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sup>35)</sup>

### 3) 캘리포니아주<sup>36)</sup>

---

34) NYC Council Seal New York City Council (2023.12.06). *New York City Council Votes to Pass Comprehensive Menstrual Equity Package that Expands Access to Products in City Facilities*. <https://council.nyc.gov/press/2023/12/06/2511/> (검색일: 2025.10.20.).

35) Chalkbeat (2025.03.18). *Almost 10 years later, NYC remains in 'flagrant' violation of school menstrual products law: lawsuit*. <https://www.chalkbeat.org/newyork/2025/03/17/menstrual-products-missing-school-bathrooms-lawsuit-alleges/> (검색일: 2025.10.20.).

36) 캘리포니아주 입법정보 웹사이트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17.10.13.). *AB-10 Feminine hygiene products: public school restrooms.(2017-2018)*.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10](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10) (검색일: 2025.10.20.).

캘리포니아주 입법정보 웹사이트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21.10.11.). *AB-367 Menstrual products.(2021-2022)*.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367](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367) (검색일: 2025.10.20.).

Dolan Law Firm 홈페이지 (2021.12.). *New California Law Requires Public Schools and Colleges to Carry Free Menstrual Products*. <https://dolanlawfirm.com/2021/12/new-california-law-requires-public-schools-and-colleges-to-carry-free-menstrual-products/> (검색일: 2025.10.20.).

ACLU of Northern California (2023.08). *The Menstrual Equity for All Act: A Toolkit for California K-12*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등록 수가 많은 지역 공립학교 화장실에 무료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법(AB 10)을 시행하며 미국 내에서 학생들에게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동 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6~12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인 공립학교에서 최소 절반 이상(50%)에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비치해 무료로 생리용품(생리대, 탐폰)을 제공하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생리용품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법률로, 2017년 10월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했는데<sup>37)</sup>, 당시 주정부는 각 지역 교육청(학구/카운티 단위)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차후 주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도록 하는 기존의 절차('Mandates Claims Process')와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Block Grant')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들은 사전에 예산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주정부의무위원회(State Mandates Commission)는 주정부가 지자체 등에 관련 비용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환급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2020년 12월에 동 법을 이행하기 위해 주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220만 달러로 추산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정부의무위원회는 2017/18학년도와 2018/19학년도에 지역 교육청들이 제출한 169건의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생리용품 구입 비용, 자동판매기 구매·설치 비용, 기타 간접비용)을 여학생 1인당 2.36달러로 추산<sup>38)</sup>하고, 이를 지원 대상 학교의 학생 수(당시 약 91만 9,000명)에 적용해 주 전체 비용을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해 2021년 캘리포니아 입법분석사무소(Legislative Analyst's Office)는 적격 여학생 1인당 1.86달러(25% 삭감)으로 조정하고, 적격 학생수를 115만 명으로 재산출하여 주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210만 달러로 재산출해 발표하였다.<sup>39)</sup>

*Students.* <https://www.aclusocal.org/sites/default/files/student-toolkit-menstrual-equity-for-all-act.pdf/> (검색일: 2025.10.20.).

California Association of Food Banks (2023.05.). *CALIFORNIA MENSTRUAL PRODUCTS PILOT.* <https://www.cafoodbanks.org/wp-content/uploads/2023/05/Menstrual-Products-Pilot-2.pdf> (검색일: 2025.10.10.).

- 37) 캘리포니아주는 지자체 또는 특정 기관에 주정부가 부여한 새로운 의무 또는 프로그램 수행에 발생한 비용을 주정부에 신청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절차(청구 기반 절차)를 운영하는데, 2012/13학년도에 이러한 절차에 대안으로 'K-12 의무 블록 보조금' 제도를 수립하였음.
- 38) 2018/19학년도에 여성용품 비치에 드는 비용은 1인당 1.90달러, 자동판매기 구매·설치 비용은 1인당 3.70달러(단, 자동판매기 초기 구축 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타 간접 비용은 총 비용의 4%를 산정해 1인당 0.09달러로 책정함.

2021년에 모든 학생을 위한 월경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으로 AB367(Menstrual Equity for All Act of 2021)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를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모든 여자 화장실과 남녀 공용 화장실, 그리고 최소한 한 개의 남자 화장실에 정의된 대로 무료 월경 용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2022~23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된 공지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요건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각 캠퍼스의 지정되고 접근 가능한 중앙 위치 중 적어도 한 곳에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충분한 양의 생리대를 비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sup>40)</sup>

## 6. 캐나다<sup>41)</sup>

### 1) 개요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 간 생리용품 무료 지원 정책을 개발·추진해 왔고, 202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모든 사업장(공공기관, 은행, 철도, 항공, 해운 등)에서 모든 직원에 대한 생리용품 무료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학교 또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캐나다의 여러 주정부는 개별 정책을 도입해 지역 학교에 무료로 생리용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가 대표적이다.<sup>42)43)</sup>

39) Legislative Analyst's Office (2021.03.01.). *Public School Restrooms Feminine Hygiene Products Mandate*. <https://lao.ca.gov/Publications/Report/4392> (검색일: 2025.10.20.).

40) California Legislative Infirmation (2021.10.08.). *AB-367 Menstrual products*.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367&utm\\_source=chatgpt.com](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367&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10.20.).

41)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info.gouv.fr, 2021.02.23.). *Gratuité des protections périodiques pour les étudiantes*. <https://www.info.gouv.fr/actualite/gratuite-des-protections-periodiques-pour-les-etudiantes> (검색일: 2025.10.10.).

Franceinfo (2021.02.23.). *Protections périodiques gratuites pour les étudiantes : la Fage salve "une volonté de lever le tabou"* [https://www.franceinfo.fr/sante/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pour-les-etudiantes-la-fage-salve-une-volonte-de-lever-le-tabou\\_4308151.html](https://www.franceinfo.fr/sante/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pour-les-etudiantes-la-fage-salve-une-volonte-de-lever-le-tabou_4308151.html) (검색일: 2025.10.10.).

Allo Docteurs (2022.11.24.). *Protections périodiques gratuites dans les universités : peut mieux faire*. <https://www.allodocteurs.fr/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dans-les-universites-peut-mieux-faire-33649.html> (검색일: 2025.10.10.).

NHK World (2021.04.30.). *"Period poverty" enters spotlight in France*.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backstories/1607/> (검색일: 2025.10.10.).

42) 이들 주 외에도 매니토바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학교에서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고

## 2) 브리티시컬럼비아주<sup>44)</sup>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19년 4월 3일 자로 교육부 장관 명령(Ministerial Order M127/2019)을 통해 캐나다에서 최초로 학교에서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주가 되었다. 동 명령은 학교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생리用品을 살 돈이 없어 학교나 과외활동, 스포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까지 역내 모든 학구(지역별 교육위원회)에 대해 공립학교 화장실에 무료 생리用品 비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수립·유지·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주정부는 각 학구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예산으로 3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정부는 2019년 4월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웨이 BC(United Way BC)의 생리用品 무료 제공 캠페인 및 관련 연구 프로젝트(Period Promise Research Project)에 9만 5,000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지원했고, 2022년 5월에는 75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유나이티드웨이 BC와 협력해 생리빈곤 종식을 위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출범시켜 100만 개 이상의 생리用品을 주 전역에 제공하였다.<sup>45)</sup>

## 3) 온타리오주<sup>46)</sup>

---

있으며, 뉴브런즈윅 주는 도서관에서 무료로 생리用品을 제공함.

43) HillNotes (2023.12.15.). *Improving Equitable Access to Menstrual Products in Canada*. <https://hillnotes.ca/2023/12/15/improving-equitable-access-to-menstrual-products-in-canada/> (검색일: 2025.10.20.).

44)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19.04.08.). *Provision of Menstrual Products*.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administration/legislation-policy/public-schools/provision-of-menstrual-products> (검색일: 2025.10.20.).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19.04.05). *Government supports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for students, people in need*. <https://news.gov.bc.ca/releases/2019SDPR0033-000587>. (검색일: 2025.10.20.).

CBC News (2022.05.27.). *B.C. spending \$750K to expand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free-menstrual-products-in-bc-1.6468643> (검색일: 2025.10.20.).

National Union of Public and General Employees (2024.02.). *Period Poverty in Canada*, p.3. <https://nupge.ca/wp-content/uploads/2024/04/Period-Poverty-in-Canada-updated-Feb-2024.pdf> (검색일: 2025.10.20.).

45) HillNotes (2023.12.15.). *Improving Equitable Access to Menstrual Products in Canada*. <https://hillnotes.ca/2023/12/15/improving-equitable-access-to-menstrual-products-in-canada/> (검색일: 2025.10.20.).

46) 온타리오 주정부 뉴스룸 (Ontario Newsroom, 2021.10.08.). *Ontario Launches Free Menstrual Products in Schools*. <https://news.ontario.ca/en/release/1000941/ontario-launches-free-menstrual-products-in-schools> (검색일: 2025.10.20.).

온타리오 주정부 뉴스룸 (Ontario Newsroom, 2024.07.29.). *Ontario Increasing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in Schools*. <https://news.ontario.ca/en/release/1004870/ontario-increasing-access-to-free-menstrual-products-in-schools> (검색일: 2025.10.20.).

온타리오주는 2021/22학년도부터 드러그스토어(drug store) 체인 기업인 쇼퍼스 드러그 마트(Shoppers Drug Mart)와 ‘월경 평등 이니셔티브(Menstrual Equity Initiative)’를 추진하여 모든 공립학교에서 생리용품(생리대 및 탐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쇼퍼스 드러그 마트는 2021년 10월 온타리오주 교육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021/22학년도부터 2023/24학년도까지 3년 동안 약 2,000만개(매년 600만 개 이상)의 생리용품을 기부했고, 1,200개의 생리용품 자동판매기를 제공했다. 각 학구에 대한 지원 분량은 해당 학구에 소속된 13~18세 여학생 인구를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생리대 자동판매기는 해당 학구 내 고등학교 수를 기반으로 분배되었다.

2024년 7월 주 교육부가 쇼퍼스 드러그 마트와 다시 한 번 생리용품 무료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생리용품 무료 지원사업이 지속되게 되었다. 쇼퍼스 드러그 마트는 2024/25학년도부터 2026/27학년도까지 3년 동안 이전보다 300만 개 더 많은 2,300만 개의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고, 특히 첫 해에는 추가로 1,380대의 생리용품 자동판매기도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교육청은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차별없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 자동판매기를 학생 접근성이 높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생리빈곤에 대한 학생용 캠페인, 포스터, 워크숍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생리건강 및 형평성과 관련한 교과 연계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sup>47)</sup> 한편 쇼퍼스 드러그 마트는 온타리오주 외에 매니토바주, 서스캐처원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1.10.08.). *Enhanced Student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in Ontario Schools*. [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1/B21\\_EN.pdf](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1/B21_EN.pdf) (검색일: 2025.10.20.).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4.07.31.). *Menstrual Equity Initiative: Continuing to Enhance Student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in Ontario Schools*. [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4/B12\\_EN.pdf](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4/B12_EN.pdf) (검색일: 2025.10.20.).

47)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4.07.31.). *Menstrual Equity Initiative: Continuing to Enhance Student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in Ontario Schools*. [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4/B12\\_EN.pdf](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4/B12_EN.pdf) (검색일: 2025.10.20.).

표 III-3.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의 학교 무료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

구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개요 및 법적 근거	· 주 교육부 장관 명령(2019.4.3.)을 통해 모든 공립학교 화장실에 생리용품 비치 의무화	· 2021/22학년도부터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생리용품 제공. 생리용품 제공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부재
지원 대상	· 모든 공립학교(초·중·고)	· 13~18세 대상 모든 공립학교 ※ 단, 지역별 교육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 4학년 학생(9세-) 등 더 낮은 연령의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제품	· 생리대, 탐폰 등 ※ 팬티라이너, 생리패드 등도 제공할 수 있으나, 예산과 위생, 관리 등의 문제로 대부분이 생리대와 탐폰을 비치	· 생리대, 탐폰
지급 방법	· 각 지역 교육청이 결정 ※ 생리대 자동판매기, 바구니 등 여러 방법 사용 가능	· 교내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 ※ 지역교육청, 학교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 위치는 자율 결정
예산/투자 규모	· 2019년 도입 당시 30만 캐나다달러 투자 발표 ※ 이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 없음	· 민간 파트너(Shoppers Drug Mart)의 현물 기부를 통해 운영 ※ 주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 않음
기타 특징	· 캐나다 주정부 중 최초로 역내 모든 학교에서 생리용품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 · 비영리단체 유니타이즈웨이 BC 등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생리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생리대 자동판매기 설치비용은 각 교육청이 부담하며, 설치 직후부터는 해당 자동판매기는 교육청에 귀속되어 교육청이 유지관리·교체·수리 등을 담당

\* 출처: 각 주정부 홈페이지 등 다수의 자료를 근거로 자체 작성

## 7. 시사점

본 장에서 스코틀랜드, 영국,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생리용품 무상 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생리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학업 및 사회활동 참여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한 접근'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인권과 교육 평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관점을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월경이 개인의 위생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학교 결석 및 부정적인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쳐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나아가 여성의 취업 및 노동 등 사회참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리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생리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교육·노동·참여권 보장이라는 사회참여의 측면에서 생리용품 제공을 개인의 선택이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으로 보고 생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및 공공기관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생리용품 부족 문제가 직접적으로 학업 중단 및 사회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리빈곤’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나아가 교사나 직원의 도움 없이도 학생들이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리용품 수령 시 개인적인 상황이나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 없이 사생활이 보장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생리 인식 개선 및 교육을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보건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과 연계하여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남학생이나 교직원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이 단순히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을 알리는 포용적 생리 인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연령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거나 일정 지역의 학교나 청소년기관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자체 사업들은 ‘보편지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캐나다의 민간기업 협력 사례나 영국의 탐폰세 폐지 등과 같이 정부(지자체)-민간기업 간 협약을 통해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하거나 생리

용품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정부(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 제4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실태조사

- 1. 조사개요
- 2. 실태조사 결과
- 3. 소결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및 방법

본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신청한 여성청소년들의 바우처 이용 실태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본원의 연구진과 성평등가족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한 수차례의 정책실무협의를 추진하였다.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 2,500명(24년 12월 현재 16~21세)에게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한 조사링크가 탑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조사링크를 확인한 후 조사 참여에 동의하면 웹조사가 시작되고, 대상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한하여 조사업체 시스템에 적재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은 2024년 12월 현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신청한 16~21세 여성청소년 2,500명이다. 실태조사를 위해 16~18세 신청인원 51,087명(이용률 85.7%)과 19~21세 신청인원 50,001명(이용률 78.4%)을 모수로 하여 연령대별로 1,250명씩 할당하였고, 이용률에 따라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수를 할당하였다(이용자 2,050명, 82%,

48)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백해정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미이용자 450명, 18%). 또한 권역별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응답인원이 일정 지역에서 편중되어 추출되지 않도록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 인원을 할당하였다. 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권역 및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른 할당 수가 충족되면 해당 집단의 조사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표 IV-1. 권역 및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 할당

(단위: 명, %)

구분	16~18세		19~21세		전체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자	미이용자	사례 수	비율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430	67	394	102	993	39.7
강원권	34	7	31	10	82	3.3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19	20	109	31	279	11.2
경상권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312	52	286	79	729	29.2
전라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75	32	160	49	416	16.6
합계	1,071	179	980	270	2,500	100.0

모집단에 속한 여성청소년 중 유효전화번호를 가진 '03~'08년에 출생한 19~21세 여성 청소년은 약 9만 명이었으며, 조사대상규모는 2,500명으로 하되 권역별/연령별로 대상을 구분한 후 이용자와 미이용자에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사 참여 문자를 발송하였다.<sup>49)</sup> 바우처 이용 여부, 연령 및 권역별로 조사대상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 명부에서 셀별 할당에 부합하게 샘플링하여 문자를 발송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 2일부터 매 주 1~2회 표본크기의 2배수씩 문자를 발송하였다. 7월 말까지 이용자 할당은 모두 충족된 반면, 미이용자의 경우는 조사성공률이 낮아 미이용자 중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체 미이용자에게 조사참여 독려문자를 재발송하는 등의

49) 이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신청한 적이 없거나 탈수급했는데 관련 안내문자가 계속 와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몇몇 사례가 있었음. 특히 전화번호를 변경하면서 신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관계없는 문자가 계속 온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바우처 신청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연락처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즉, 이러한 사례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연락을 받게 되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연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연락을 받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락처 현황화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함.

조치를 취했음에도 조사성공률 증가폭이 미미하여 8월 10일에 조사를 종료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는 총 2,686명이었고 이 중 이용자는 2,391명, 미이용자는 295명이었다. 조사 완료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용자, 미이용자 구성비를 보정하였다. 가중치로 보정한 조사참여자의 특성은 <표 IV-1>과 같다.

### 3) 조사지 개발 및 조사문항

조사지 개발을 위해 연구진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및 여성의 건강권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초안은 성평등가족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연구진과 조사업체 담당자의 검토를 수차례 걸쳐면서 수정·보완되었다. 개발된 조사지는 2025년 6월 27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승인번호: 202506-HR-연개금-002), 조사대상의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웹조사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조사문항은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조사대상 식별문항이 2문항, 배경문항이 3문항이고, 나머지 32문항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16문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9문항),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2. 조사 영역별 내용과 문항(확인 및 배경)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출처
식별문항	조사대상 확인	• 출생년도	• 식별문항1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신청지역	• 식별문항2	연구진 개발
1. 지원사업 이용경험 및 요구	바우처 신청	• 바우처 사용대상자와의 관계	• 문1	연구진 개발
		• '24년 바우처 이용 여부	• 문2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신청 시점	• 문3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신청자	• 문4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신청 경로	• 문5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카드 명의자	• 문6	연구진 개발
	바우처 미이용 이유	• 과거 생리용품 지원 여부 - 지원받은 기관	• 문7, 문7-1	연구진 개발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출처
2.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의견 및 인식		• 바우처 미이용 사유 - 지원받고 있는 기관	• 문8, 문8-1	연구진 개발
		• 올해 바우처 이용 의향 여부 - 올해 바우처 미이용 이유	• 문9, 문9-1	연구진 개발
	바우처 이용 경험	• 생리용품 지원사업 인지 경로	• 문10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이용 생리용품 주요 구매자	• 문11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이용처	• 문12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이용 구매 빈도	• 문13	연구진 개발
		• '24년 바우처 이용 금액 - 바우처 미소진 이유	• 문14, 문14-1	연구진 개발
		• 바우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생각	• 문15	연구진 개발
		•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 문16	연구진 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	• 생리용품 지원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문17	연구진 개발
		•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 시 우선 포함대상	• 문18	연구진 개발
		• 생리용품 무상지원에 대한 인식 - 무상지원이 우선 필요한 연령 - 무상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문19, 문19-1, 문19-2	연구진 개발
		•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대한 인식	• 문20	연구진 개발
		•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인식	• 문21	연구진 개발
• 공공기관 생리용품 지원 이용 경험 - 사용 경험 여부 - 이용의 편리성		• 문22, 문22-1, 문22-1-1	연구진 개발	
• 공공기관 내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에 관한 인식		• 문23	연구진 개발	
• 공공기관 내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 확대 시 가장 필요한 기관		• 문24	연구진 개발	

영역	세부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출처
3.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월경(생리) 관련 경험	• 복지에 관한 인식	• 문25	연구진 개발
		• 초경 시작 연령	• 문26	연구진 개발
		• 생리주기의 규칙성	• 문27	연구진 개발
		• 생리 지속일	• 문28	연구진 개발
		•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	• 문29	연구진 개발
		• 하루 평균 사용하는 생리용품 개수	• 문30	연구진 개발
		• 생리용품 선택 기준	• 문31	연구진 개발
배경문항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험	• 문32	연구진 개발
		• 대상자와의 관계	• 배문1	연구진 개발
		• 응답자의 연령대	• 배문2	연구진 개발
		• 응답자의 성별	• 배문3	연구진 개발
		• 동거가족 여부 및 후보호자	• 배문4	연구진 개발
		• 중복취약 여부	• 배문5	연구진 개발

#### 4) 분석방법

8월 10일까지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정한 후 spss프로그램을 통해 백분율, 평균, chi-square, t/F-test 등의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실태조사 결과<sup>50)</sup>

### 1) 조사대상자 특성

#### (1) 일반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2,686명이었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24년 기준)은 16~18세 50.6%, 19~21세 49.4%였

50) 본 조사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고, 바우처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이용자 82.7%, 미이용자 17.3%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1.9%, 강원권 3.3%, 충청권 11.1%, 경상권 27.8%, 전라제주권 15.9%이었다. 권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수도권 여부를 구분하였으며, 수도권은 41.9%, 비수도권에는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이 포함되며 총 58.1%였다.

표 IV-3. 조사대상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sup>1)</sup>	구분	사례 수	비율 <sup>1)</sup>
전체	(2,686)	100.0	연령 <sup>2)</sup>	16~18세 (1,358)	50.6
권역	수도권 (1,127)	41.9		19~21세 (1,328)	49.4
	강원권 (87)	3.3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82.7
	충청권 (298)	11.1		미이용자 (464)	17.3
	경상권 (748)	27.8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41.9
	전라제주권 (426)	15.9		비수도권 (1,559)	58.1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임.

2) 연령은 2024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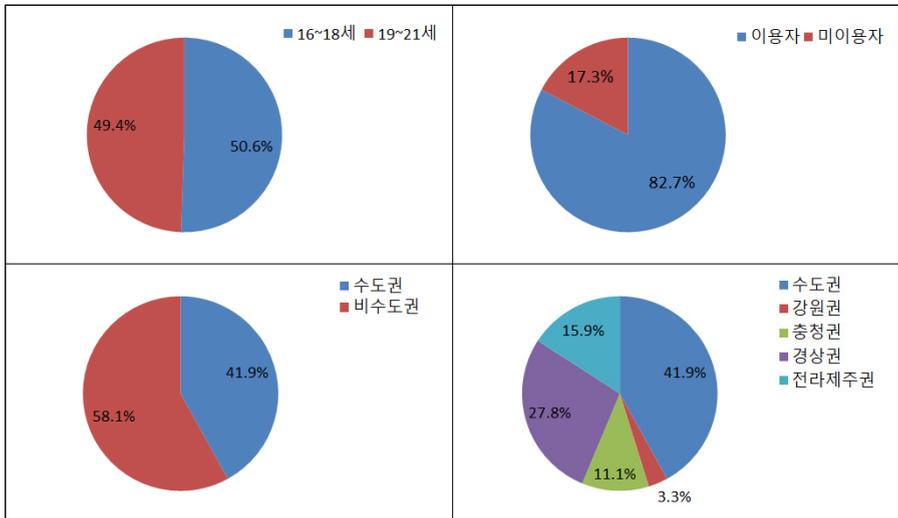


그림 IV-1. 조사참여자 특성

조사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자와의 접촉을 위한 연락처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대상자가 직접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호자가 응답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내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 대상자 본인이 참여한 비율은 24.1%, 보호자가 참여한 비율은 75.9%로 보호자의 참여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미성년자인 16~18세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집단의 경우 대상자 본인이 응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하였다. 성인이 된 19~21세 연령집단의 경우 대상자 본인의 응답비율은 31.4%로 16~18세 집단의 1.8배 이상이었으나, 여전히 보호자의 응답비율이 6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 신청 시 보호자의 연락처가 등록된 비율이 매우 높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V-4.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보호자	$\chi^2$ 검증
전체		24.1	75.9	
연령	16~18세	17.0	83.0	75.956***
	19~21세	31.4	68.6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2) 동거가족 여부

조사참여자의 동거가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동거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12.7%,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87.3%로 대부분의 조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16~18세보다 19~21세 청소년들에게서 9.4%p 높았고, 바우처 이용자보다는 미이용자에게서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4.8%p 높았다.

또한 비수도권, 특히 강원권 청소년들에게서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비수도권 청소년들은 수도권 청소년들에 비해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4.4%p 높았고, 권역별로는 강원권 청소년들에게서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20.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의 순이었으며, 수도권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5. 동거가족 여부

(단위: %)

구분	혼자 살고 있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음	$\chi^2$ 검증
전체	12.7	87.3	
연령	16~18세	8.1	53.149***
	19~21세	17.5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11.9	8.116**
	미이용자	16.7	
수도권 여부	수도권	10.2	11.173**
	비수도권	14.6	
권역	수도권	10.2	17.909**
	강원권	20.6	
	충청권	17.2	
	경상권	12.8	
	전라제주권	14.7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자의 주보호자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71.3%, 아버지가 13.0%로 부모가 84.3%였다. 본인이 주보호자인 경우는 7.1%였고, 조부모가 주보호자인 경우는 3.1%(할아버지0.9%+할머니2.2%)였다. 주보호자가 누구인지는 연령대와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6~18세는 부모가 주보호자인 경우가 85.6%, 19~21세는 83.0%였으며, 19~21세 청소년들은 본인, 친인척, 친구 및 선배 등을 주보호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16~18세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이용자의 경우에 어머니가 주보호자인 경우가 미이용자에 비해 21.8%p 높은 반면, 미이용자의 경우에 아버지가 주 보호자인 경우가 이용자에 비해 12.2%p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이용자는 이용자에 비해 본인이 주보호자인 비율이 5.5%p 높았으며,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친인척, 친구 및 선배 등이 주보호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용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6. 후보호자

(단위: %)

구분	조부	조모	부	모	언니	오빠	동생	친인척	친구, 선배	기타 (본인)	$\chi^2$ 검증	
전체	0.9	2.2	13.0	71.3	1.6	0.6	1.2	1.5	0.5	7.1		
연령	16~18세	0.9	2.4	13.6	72.0	1.9	0.4	1.0	1.0	0.1	6.7	17.076
	19~21세	0.8	2.0	12.4	70.6	1.4	0.9	1.4	2.1	0.9	7.5	*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0.8	2.1	11.0	74.9	1.5	0.8	1.3	1.2	0.3	6.1	103.487
	미이용자	1.3	3.0	23.2	53.1	2.5	-	0.4	3.2	1.7	11.6	***
수도권 여부	수도권	1.0	1.7	12.2	72.5	1.5	1.0	1.4	1.3	0.1	7.3	14.087
	비수도권	0.8	2.6	13.7	70.5	1.7	0.4	1.0	1.7	0.8	6.9	
권역	수도권	1.0	1.7	12.2	72.5	1.5	1.0	1.4	1.3	0.1	7.3	32.850
	강원권	-	2.7	12.5	69.0	1.4	1.4	-	2.7	-	10.3	
	충청권	1.2	1.8	14.9	70.4	3.3	-	1.1	0.9	0.7	5.7	
	경상권	0.7	2.2	13.2	71.9	1.1	0.4	0.8	2.1	0.8	6.7	
전라제주권	0.7	3.7	13.9	68.1	2.0	0.5	1.5	1.4	1.0	7.3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3) 중복취약 여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자의 중복취약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의 9.6%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9.0%는 신용문제가 있는 채무불이행자였으며, 5.8%는 가족돌봄·조손가정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18세 청소년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문제를 가진 경우가 9.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장애(7.0%), 가족돌봄·조손가정(5.9%), 이주배경·다문화가정(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21세 청소년의 경우에 장애 비율이 12.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채무불이행(9.0%), 가족돌봄·조손가정(5.8%) 등의 순이었다.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이용자(8.1%)보다 미이용자(13.2%)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5.1%p 높았고, 이용자의 장애 비율(11.1%)이 미이용자(2.6%)에 비해 8.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이주배경·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강원권에 많았고, 가족돌봄·조손가정 청소년은 전라·제주권에, 시설퇴소 청소년은 수도권과 전라제주권에, 채무불이행 청소년은 경상권과 수도권에, 장애청소년은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에 많았다.

표 IV-7. 중복취약 여부(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가족돌봄· 조손가정	시설퇴소	채무 불이행	장애	해당없음
전체		4.3	5.8	1.9	9.0	9.6	71.3
연령	16~18세	5.2	5.9	1.5	9.0	7.0	73.2
	19~21세	3.4	5.8	2.2	9.0	12.3	69.3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4.3	5.7	1.8	8.1	11.1	71.0
	미이용자	4.7	6.3	2.3	13.2	2.6	72.5
수도권 여부	수도권	3.5	5.1	2.3	9.7	10.9	70.8
	비수도권	4.9	6.3	1.5	8.5	8.7	71.7
권역	수도권	3.5	5.1	2.3	9.7	10.9	70.8
	강원권	10.2	6.8	1.4	8.1	12.4	69.0
	충청권	5.5	6.2	1.6	5.7	11.4	70.3
	경상권	3.1	5.6	1.3	10.1	8.8	72.3
	전라제주권	6.7	7.6	2.0	7.6	5.7	72.1

\* 주: 시설퇴소: 자립준비청(소)년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등 신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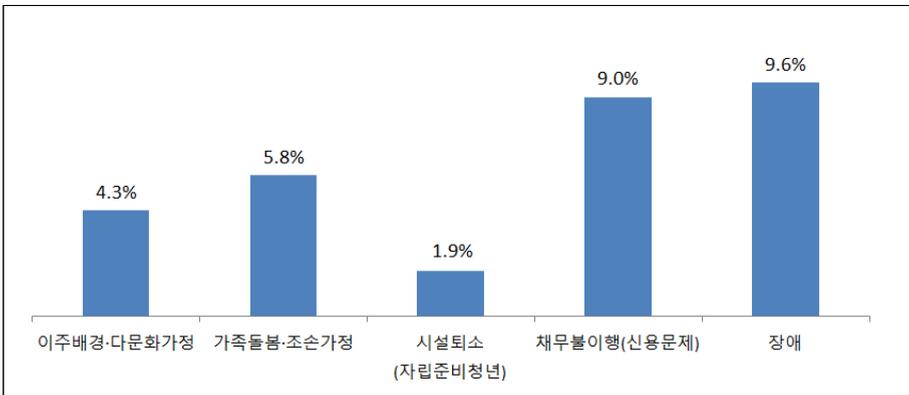


그림 IV-2. 중복취약 여부(복수응답)

##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

###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

#### ① 바우처 사용대상자와의 관계

본 실태조사를 위해 바우처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통해 조사 관련 문자를 발송하였다. 조사에 대한 응답은 가급적 대상자 본인이 하도록 하였고, 보호자가 응답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내용을 확인하여 응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사응답자와 바우처 사용대상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4.1%, 대상자의 보호자가 응답한 경우는 75.9%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대상자의 보호자가 참여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의 대부분이 대상자의 보호자 연락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6~18세 청소년의 경우에 19~21세 청소년에 비해 대상자의 보호자가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14.4%p), 바우처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대상자의 보호자가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27.4%p) 나타났다.

표 IV-8. 바우처 사용 대상자와의 관계

(단위: %)

구분		본인	대상자의 보호자	$\chi^2$ 검증
전체		24.1	75.9	
연령	16~18세	17.0	83.0	75.956***
	19~21세	31.4	68.6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19.4	80.6	15.7090***
	미이용자	46.8	53.2	
수도권 여부	수도권	22.1	77.9	4.285*
	비수도권	25.6	74.4	
권역	수도권	22.1	77.9	8.099
	강원권	30.3	69.7	
	충청권	22.2	77.8	
	경상권	25.1	74.9	
	전라제주권	27.8	72.2	

\* $p < .05$ , \*\* $p < .01$ , \*\*\* $p < .001$

② '24년 바우처 이용 여부

2024년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17.3%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19~21세 청소년 중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9%에 달해 5명 중 1명은 바우처를 신청한 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16~18세 청소년(13.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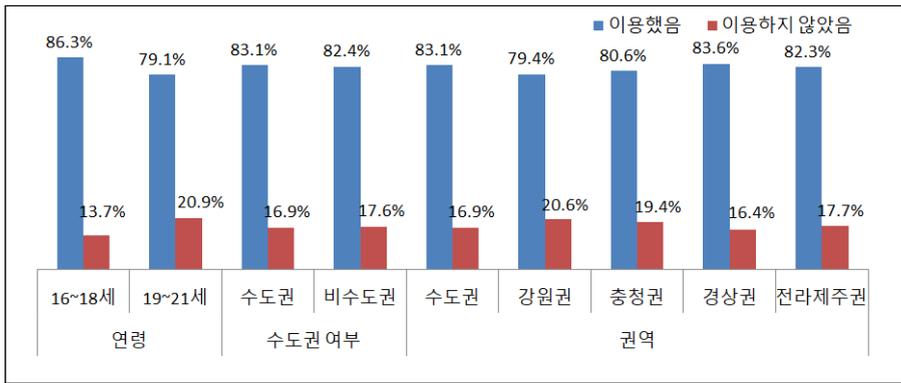


그림 IV-3. '24년 바우처 이용 여부

표 IV-9. '24년 바우처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chi^2$ 검증
전체	82.7	17.3	
연령	16~18세	86.3	24.608***
	19~21세	79.1	
수도권 여부	수도권	83.1	0.218
	비수도권	82.4	
권역	수도권	83.1	2.228
	강원권	79.4	
	충청권	80.6	
	경상권	83.6	
	전라제주권	82.3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③ 바우처 신청 시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처음 신청한 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2년 이전에 신청한 경우가 53.6%로 가장 많았고, 신청 시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3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신청한 경우는 6.3%, 2023년에 신청한 경우는 10.0%에 불과하였다. 미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에 비해 바우처를 최근(2023~2024년)에 신청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용 시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11.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 후 바우처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이용해 보지 못했거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 여부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V-10. 바우처 신청 시점

		2022년 이전				2023년	2024년	모르겠음	χ <sup>2</sup> 검증
전체		53.6	10.0	6.3	30.1				
연령	16~18세	54.8	10.5	6.8	27.9	6.918			
	19~21세	52.4	9.5	5.8	32.3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57.3	9.7	4.8	28.1	95.008 ***			
	미이용자	35.8	11.3	13.4	39.5				
수도권 여부	수도권	54.6	10.3	6.2	28.8	1.639			
	비수도권	52.9	9.8	6.4	31.0				
권역	수도권	54.6	10.3	6.2	28.8	9.837			
	강원권	51.3	11.2	4.6	32.9				
	충청권	50.9	8.7	7.2	33.2				
	경상권	51.2	10.5	6.0	32.4				
	전라제주권	57.5	8.9	6.9	26.7				

\* $p < .05$ , \*\* $p < .01$ , \*\*\* $p < .001$

### ④ 바우처 신청자

바우처 신청자는 대상자의 부모(77.7%)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대상자 본인(11.2%), 기관선생님(3.5%) 등의 순이었다. 바우처 신청자는 연령 및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16~18세의 청소년의 경우에 19~21세 청소년

년에 비해 부모가 신청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9.2%p), 미이용자는 이용자에 비해 부모가 신청한 비율이 16.5%p 낮은 반면, 본인이 신청한 비율은 9.4%p 높았으며, 신청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로 이용자에 비해 7.2%p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바우처 신청자

(단위: %)

구분		대상자 본인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기관 선생님	친인척	모르 겠음	기타	$\chi^2$ 검증
전체		11.2	77.7	1.3	0.4	3.5	0.6	4.9	0.3	
연령	16~18세	8.4	82.2	1.5	0.5	3.1	0.5	3.7	0.1	40.460***
	19~21세	14.2	73.0	1.2	0.3	4.0	0.8	6.1	0.5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9.6	80.5	1.0	0.4	3.9	0.6	3.7	0.3	100.282***
	미이용자	19.0	64.0	2.8	0.5	1.7	0.7	10.9	0.4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	79.4	1.3	0.3	3.1	0.5	4.1	0.2	7.419
	비수도권	11.2	76.4	1.4	0.5	3.8	0.8	5.5	0.4	
권역	수도권	11.2	79.4	1.3	0.3	3.1	0.5	4.1	0.2	47.804*
	강원권	15.9	70.7	1.1	-	4.4	1.1	6.9	-	
	충청권	12.0	76.0	2.3	1.5	4.0	0.3	4.0	-	
	경상권	9.7	77.7	0.2	0.5	3.8	1.2	6.2	0.6	
	전라제주권	12.4	75.6	2.8	-	3.4	0.2	5.1	0.4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⑤ 바우처 신청 경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신청한 방법은 읍, 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57.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28.1%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용자는 이용자에 비해 온라인 신청을 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고(9.4%p), 어떻게 신청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강원권의 경우에 타 권역에 비해 방문신청률이 약 6~10%p 가량 높은 반면, 온라인 신청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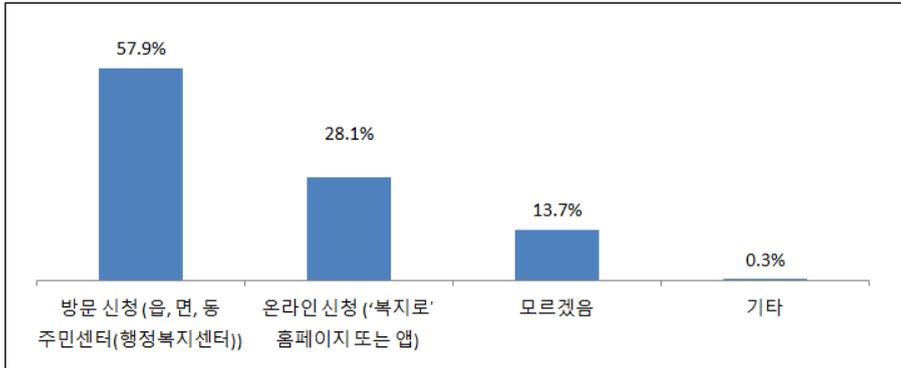


그림 IV-4. 바우처 신청 경로

표 IV-12. 바우처 신청 경로

(단위: %)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르겠음	기타	$\chi^2$ 검증	
전체	57.9	28.1	13.7	0.3		
연령	16~18세	59.1	29.1	11.6	0.1	12.454**
	19~21세	56.7	27.1	15.8	0.5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61.2	26.5	12.0	0.3	62.359***
	미이용자	42.1	35.9	21.6	0.4	
수도권 여부	수도권	57.0	30.0	13.0	0.1	6.375
	비수도권	58.6	26.7	14.2	0.5	
권역	수도권	57.0	30.0	13.0	0.1	18.008
	강원권	65.7	18.4	15.9	-	
	충청권	59.7	28.2	11.8	0.3	
	경상권	59.0	25.5	15.1	0.4	
	전라제주권	55.5	29.6	14.0	0.8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주: 방문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활용하여 신청

### ⑥ 바우처 카드 명의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대상자 본인(33.4%)이었으며, 명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5.6%)는 응답 외에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각각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18세 청소년은 부모의 명의로 된 경우가 69.2%이고 대상자 본인의 명의로 된 경우가 23.9%인 것에 비해, 19~21세 청소년은 본인 명의 카드인 경우가 43.2%, 부모 명의의 카드인 경우가 49.0%로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카드 명의자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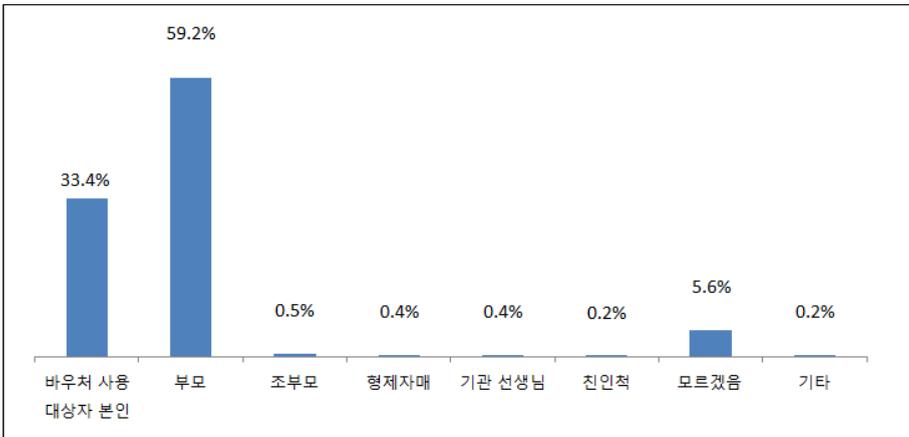


그림 IV-5. 바우처 카드 명의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조부모나 기관선생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고, 명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8.7%(이용자의 경우 2.9%)로 나타나 이용자에 비해 바우처 신청을 누가 했는지, 바우처 카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 IV-13. 바우처 카드 명의자

(단위: %)

구분	대상자 본인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기관 선생님	친인척	모르 겠음	기타	$\chi^2$ 검증	
전체	33.4	59.2	0.5	0.4	0.4	0.2	5.6	0.2		
연령	16~18세	23.9	69.2	0.7	0.4	0.7	0.2	4.7	0.3	133.180 ***
	19~21세	43.2	49.0	0.4	0.3	0.1	0.2	6.5	0.2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31.0	64.2	0.7	0.4	0.5	0.3	2.9	0.3	255.491 ***
	미이용자	45.3	35.7	-	0.3	-	-	18.7	-	
수도권 여부	수도권	32.0	63.2	0.5	0.2	0.3	0.1	3.5	0.3	25.483 **
	비수도권	34.5	56.4	0.6	0.5	0.4	0.3	7.1	0.2	
권역	수도권	32.0	63.2	0.5	0.2	0.3	0.1	3.5	0.3	48.382 *
	강원권	40.8	48.8	1.1	-	-	1.1	7.2	1.1	
	충청권	33.6	56.2	0.6	0.7	0.6	0.3	7.9	-	
	경상권	33.5	58.5	0.1	0.6	0.5	0.4	6.2	0.2	
	전라제주권	35.5	54.5	1.2	0.2	0.2	-	8.1	0.2	

\* $p$ .05, \*\* $p$ .01, \*\*\* $p$ .001

## (2) 바우처 미이용 이유

2024년에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거 지원 여부 및 미이용 이유, 이용의향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과거 지원 여부, 지원받은 기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바우처를 포함하여 이전에도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나 지역화폐, 현물(생리용품) 등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이용자 중 47.4%는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7.6%는 지원받은 경험이 없으며, 15.0%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19~21세 청소년이 16~18세 청소년에 비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13.0%p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청소년들에게서 지원받은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타 권역에 비해 충청권 청소년들에게서 지원받은 경험이 높았던 반면, 강원권은 지원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14. 과거 지원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지원 받은 적 있음	지원 받은 적 없음	모르겠음	$\chi^2$ 검증
미이용자 전체		(464)	47.4	37.6	15.0	
연령	16~18세	(186)	39.6	44.0	16.3	7.482*
	19~21세	(278)	52.6	33.4	14.1	
수도권 여부	수도권	(190)	46.1	40.0	13.9	0.687
	비수도권	(274)	48.3	36.0	15.7	
권역	수도권	(190)	46.1	40.0	13.9	7.302
	강원권	(18)	32.5	60.5	7.0	
	충청권	(58)	54.5	32.1	13.4	
	경상권	(123)	49.8	33.6	16.6	
	전라제주권	(75)	44.8	37.1	18.1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미이용자 중 이전에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나 지역화폐 현물(생리용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지원받은 기관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정부, 각종 후원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지원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 과거 지원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16~18세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비율이 43.6%로 가장 많았고, 19~21세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과는 달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률에 차이가 없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경상권의 경우에 지자체보다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높았고, 강원권의 경우에 후원기관 등을 통해 지원받았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지자체를 제외한 후원기관의 지원에 권역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충청권은 지원을 받은 경험이 타 권역에 비해 높지만, 지원받은 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5.0%로 나타나 지원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IV-15. 과거 지원받은 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정부	지자체	각종 기관	모르겠음	$\chi^2$ 검증
미이용자 중 과거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전체		(220)	27.8	32.6	13.2	34.9	
연령	16~18세	(74)	33.6	43.6	16.9	22.1	17.315 **
	19~21세	(146)	24.9	27.0	11.3	41.3	
수도권 여부	수도권	(88)	20.6	32.6	13.4	38.3	4.754
	비수도권	(132)	32.6	32.6	13.1	32.7	
권역	수도권	(88)	20.6	32.6	13.4	38.3	18.170
	강원권	(6)	42.8	57.2	-	-	
	충청권	(31)	30.6	22.3	18.3	45.0	
	경상권	(61)	33.1	32.4	8.3	32.2	
	전라제주권	(34)	31.9	38.3	19.2	27.7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주: 정부: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시·도  
각종 기관: 후원기관 포함

② 바우처 미이용 이유, 지원받고 있는 기관

2024년에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1.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10.9%),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연령과 권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16~18세 청소년은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가 2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 구매를 할 줄 모르거나 어려워서'(13.0%), '바우처 신청한 것을 몰라서'(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19~21세 청소년 역시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가 21.1%로 가장 많았으나, 그다음으로는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14.0%),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거나 발급받지 않았다는 응답이나 바우처 카드를 분실했다는 응답은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인 반면,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한 미이

용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수이긴 하나 채무불이행자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의견도 약 4.6%로 나타났다. 이에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신청 및 카드 발급 과정에서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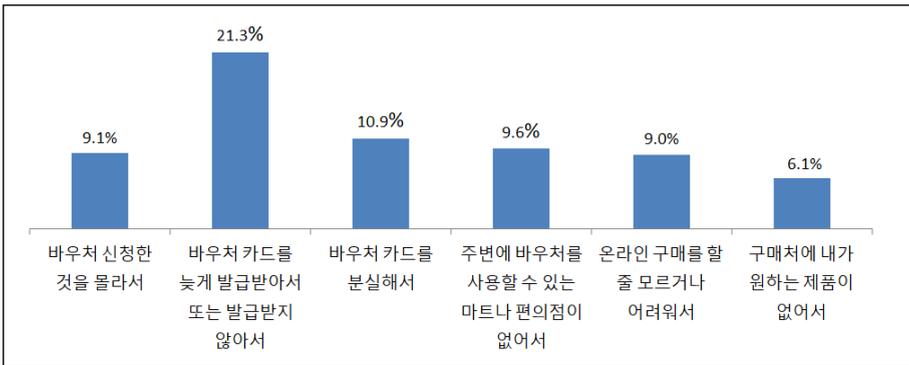


그림 IV-6. 바우처 미이용 (주요) 사유

2024년에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가 19.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11.9%), '온라인 구매를 할 줄 모르거나 어려워서'(9.8%) 등의 순이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22.5%),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12.4%),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형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상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바우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러한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IV-16. '24년 바우처 미이용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미이용자 전체		(464)	9.1	3.8	21.3	10.9	1.5	4.6	2.1	1.3
연령	16~18세	(186)	10.7	3.5	21.4	6.3	2.1	6.9	2.9	1.4
	19~21세	(278)	8.0	4.0	21.1	14.0	1.0	3.1	1.6	1.3
수도권 여부	수도권	(190)	8.1	1.5	19.4	11.9	1.3	3.8	2.2	2.2
	비수도권	(274)	9.8	5.4	22.5	10.2	1.6	5.3	2.1	0.7
권역	수도권	(190)	8.1	1.5	19.4	11.9	1.3	3.8	2.2	2.2
	강원권	(18)	-	7.0	37.2	11.6	-	11.6	-	-
	충청권	(58)	16.6	5.6	25.6	12.3	-	2.2	-	3.3
	경상권	(123)	12.8	3.8	18.8	8.2	1.1	6.1	2.3	-
	전라제주권	(75)	1.9	7.6	22.9	11.4	3.8	4.8	3.8	-

구분		사례 수	⑨	⑩	⑪	⑫	⑬	⑭	⑮	χ <sup>2</sup> 검증
미이용자 전체		(464)	5.3	0.3	1.7	9.6	9.0	6.1	13.4	-
연령	16~18세	(186)	3.0	0.7	3.3	9.9	13.0	4.6	10.3	28.768
	19~21세	(278)	6.8	-	0.6	9.5	6.3	7.1	15.4	*
수도권 여부	수도권	(190)	7.7	0.7	1.5	5.7	9.8	7.5	16.6	21.748
	비수도권	(274)	3.6	-	1.8	12.4	8.4	5.2	11.2	
권역	수도권	(190)	7.7	0.7	1.5	5.7	9.8	7.5	16.6	79.106 *
	강원권	(18)	-	-	7.0	18.6	7.0	-	-	
	충청권	(58)	3.3	-	-	11.1	-	7.8	12.3	
	경상권	(123)	3.0	-	1.1	12.0	14.3	2.6	13.9	
	전라제주권	(75)	5.7	-	2.9	12.4	5.7	8.6	8.6	

- \* ① 바우처 신청한 것을 몰라서
- ② 바우처 신청한 것을 잊어버려서
- ③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
- ④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
- ⑤ 바우처 카드가 가족 명의라서 사용이 불편해서
- ⑥ 채무불이행자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 ⑦ 바우처 카드로 인해 내가 지원대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 ⑧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현재 생리를 하지 않아서
- ⑨ 생리용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 ⑩ 지자체 혹은 다른 기관, 시설에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어서
- ⑪ 학교나 기관 등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 ⑫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
- ⑬ 온라인 구매를 할 줄 모르거나 어려워서
- ⑭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 ⑮ 기타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생리용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7.7%)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강원권에서 ‘학교나 기관 등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어서’(7.0%) 등의 응답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바우처 대상자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 ‘사용 방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다른 의견으로는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거나 잔액이 없다고 나왔다는 응답도 있었고, 구입 후 취소했는데 지원금이 소멸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카드를 발급했으나 밖에 나가기 귀찮고 불편해서 사기 힘들다거나 해외로 출국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바우처 미이용 사유에 대해 응답자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우처 미이용 사유는 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 모두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거나 발급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그다음으로 대상자 본인은 ‘바우처 신청한 것을 몰라서’,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에 비해 대상자의 보호자는 ‘온라인 구매를 할 줄 모르거나 어려워’,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응답자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외에도 보호자들에게서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채무불이행자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등의 응답이 높았다. 즉, 대상자들은 신청 여부를 모르거나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거나 바우처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이유가 높은 반면, 대상자의 보호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문제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카드 분실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현행 방식에서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등록된 경우 보호자에게 신청 여부에 대한 연락이 발송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보호자의 동의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대상자 본인이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바우처를 미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 모두 바우처 카드 분실로 인해 미이용하는 경우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청 후 간소화된 방식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대상자 본인의 연락처를 통해 이용자 여부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할 경우 미이용률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7. '24년 바우처 미이용 사유(응답자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본인	(215)	13.0	4.2	30.7	11.2	0.5	1.9	2.3	2.3
대상자의 보호자	(246)	5.7	3.7	13.4	10.6	2.0	7.3	2.0	0.4

구분	사례 수	⑨	⑩	⑪	⑫	⑬	⑭	⑮	χ <sup>2</sup> 검증
본인	(215)	6.5	0.5	0.5	7.9	6.5	3.7	8.4	56.383
대상자의 보호자	(246)	4.1	0.0	2.4	11.0	11.4	8.1	17.9	***

- \* ① 바우처 신청한 것을 몰라서  
 ② 바우처 신청한 것을 잊어버려서  
 ③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  
 ④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  
 ⑤ 바우처 카드가 가족 명의라서 사용이 불편해서  
 ⑥ 채우불이행자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⑦ 바우처 카드로 인해 내가 지원대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⑧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현재 생리를 하지 않아서  
 ⑨ 생리용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⑩ 지자체 혹은 다른 기관, 시설에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어서  
 ⑪ 학교나 기관 등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⑫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  
 ⑬ 온라인 구매를 할 줄 모르거나 어려워서  
 ⑭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⑮ 기타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현재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 지원받고 있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미이용자는 464명 중 1명이었는데, 이 청소년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수의 사례이긴 하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는 지자체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자체 지원을 받을 경우에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바우처 신청 시 지원대상 자격요건 및 타 지원 수혜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한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③ 올해 바우처 이용 의향, 올해 바우처 미이용 이유

2025년에는 바우처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이용자의 91.3%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7%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과 권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16~18세 청소년 미이용자의 94.4%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9~21세 청소년 미이용자는 89.3%만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미이용청소년들의 93.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강원권 미이용청소년은 81.4%만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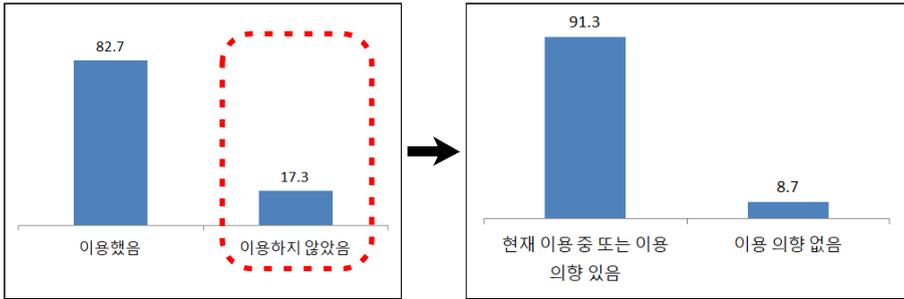


그림 IV-7. 미이용자의 올해 바꾸쳐 이용 의향

표 IV-18. 미이용자의 올해 바꾸쳐 이용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chi^2$ 검증
미이용자 전체	(464)	91.3	8.7	
연령	16~18세 (186)	94.4	5.6	4.148*
	19~21세 (278)	89.3	10.7	
수도권 여부	수도권 (190)	93.6	6.4	2.170
	비수도권 (274)	89.8	10.2	
권역	수도권 (190)	93.6	6.4	9.769*
	강원권 (18)	81.4	18.6	
	충청권 (58)	82.2	17.8	
	경상권 (123)	91.8	8.2	
	전라제주권 (75)	94.3	5.7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주: 예: 현재 이용 중 또는 이용할 의향이 있음  
아니오: 이용할 의향이 없음

바우처 미이용 청소년 중 올해 바우처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아서'(28.5%),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이용 방법이 어려워'(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16~18세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아서'(3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서'(25.7%),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24.2%) 등의 순이었으며, 19~21세는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서'(35.2%),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아서'(25.3%), '현재 생리를 하지 않아서'(11.7%) 등의 순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19. '25년 바우처 미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hi^2$ 검증	
향후 미이용 의사를 보인 미이용자	(40)	8.7	-	3.6	10.4	28.5	3.2	8.3	4.5	32.8		
연령	16~18세	(10)	-	-	24.2	37.9	12.3	-	-	25.7	9.031	
	19~21세	(30)	11.7	-	4.8	5.6	25.3	-	11.2	6.1		35.2
수도권 여부	수도권	(12)	13.7	-	-	13.7	10.5	10.5	27.4	-	24.2	14.206
	비수도권	(28)	6.5	-	5.1	9.0	36.4	-	-	6.5	36.5	*
권역	수도권	(12)	13.7	-	-	13.7	10.5	10.5	27.4	-	24.2	42.298
	강원권	(3)	-	-	-	37.4	-	-	-	-	62.6	
	충청권	(10)	-	-	-	12.4	50.0	-	-	-	37.6	
	경상권	(10)	18.1	-	-	-	50.0	-	-	18.1	13.9	
전라제주권	(4)	-	-	33.3	-	-	-	-	-	66.7	*	

- \* ①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현재 생리를 하지 않아서  
 ② 생리용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③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어서  
 ④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이용 방법이 어려워  
 ⑤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아서  
 ⑥ 바우처 카드가 가족 명의라서 사용이 불편해서  
 ⑦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  
 ⑧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것이 귀찮고 어려워서  
 ⑨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서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소년은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청소년은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서’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수이긴 하나 권역별로는 강원권과 전라제주권의 경우에는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충청권과 경상권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3) 바우처 이용 경험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인지 경로, 바우처 이용 생리용품 구매경험, 바우처 이용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생리용품 지원사업 인지 경로

바우처 이용자들은 행정기관(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안내(56.9%)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유관기관(복지로, 전자바우처시스템, 국민행복카드, 정부24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4.1%, 가족이나 주변 사람, 기관(학교, 직장, 복지관, 복지시설 등)의 안내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1.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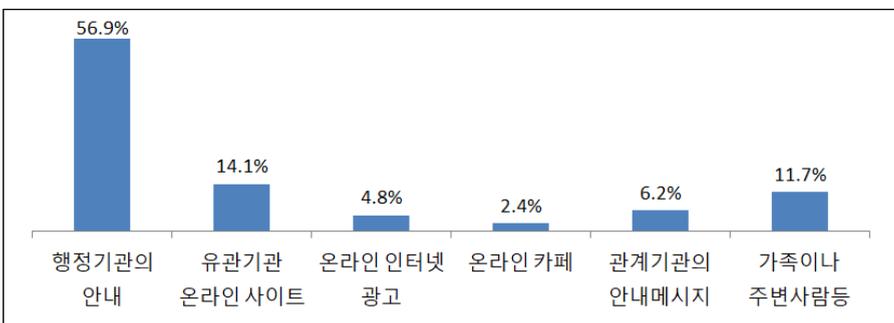


그림 IV-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주요 인지경로

표 IV-2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인지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이용자 전체		(2,222)	56.9	14.1	4.8	0.1	2.4	6.2
연령	16~18세	(1,172)	55.9	15.6	4.8	0.2	3.0	5.8
	19~21세	(1,050)	58.1	12.3	4.9	-	1.7	6.6
수도권 여부	수도권	(936)	56.1	14.3	4.8	-	2.7	6.4
	비수도권	(1,286)	57.5	13.9	4.8	0.1	2.2	6.1
권역	수도권	(936)	56.1	14.3	4.8	-	2.7	6.4
	강원권	(69)	61.6	15.1	2.7	-	-	7.0
	충청권	(240)	56.1	15.7	4.6	-	3.4	6.1
	경상권	(625)	59.1	14.0	5.7	-	2.5	5.5
	전라제주권	(351)	54.6	12.1	3.8	0.5	1.3	6.8

구분		사례 수	⑦	⑧	⑨	⑩	⑪	χ <sup>2</sup> 검증
이용자 전체		(2,222)	1.5	0.8	11.7	1.2	0.4	-
연령	16~18세	(1,172)	1.6	0.9	11.3	0.9	0.2	16.301
	19~21세	(1,050)	1.4	0.8	12.1	1.5	0.7	
수도권 여부	수도권	(936)	1.3	0.5	11.8	1.4	0.6	6.722
	비수도권	(1,286)	1.6	1.0	11.6	1.1	0.2	
권역	수도권	(936)	1.3	0.5	11.8	1.4	0.6	51.127
	강원권	(69)	2.7	-	9.5	-	1.4	
	충청권	(240)	0.8	0.4	10.3	2.3	0.4	
	경상권	(625)	1.9	0.9	9.6	0.7	0.1	
	전라제주권	(351)	1.5	2.0	16.4	1.0	-	

- \* ① 행정기관의 안내  
 ② 유관기관 온라인 사이트  
 ③ 온라인 인터넷 광고  
 ④ 편의점, 엘리베이터TV, 버스TV, 전광판 등의 광고  
 ⑤ 온라인 카페  
 ⑥ 관계기관의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안내메시지  
 ⑦ 신문, 뉴스 등 언론 기사  
 ⑧ 홍보포스터, 리플릿  
 ⑨ 가족이나 주변 사람  
 ⑩ 지자체 기관, 지역행사 등의 홍보  
 ⑪ 기타

### ② 생리용품 주구매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리용품을 주로 구매하는 사람은 부모가 5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대상자 본인(41.6%), 형제자매(0.8%), 기관선생님(0.7%) 등의 순이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16~18세 청소년은 본인(34.1%)보다 부모가 구매하는 비율(63.2%)이 높은 반면, 19~21세 청소년들의 경우는 본인(49.9%)이 구매하는 비율이 부모가 구매하는 비율(47.9%)에 비해 높게 나타나, 16~18세 청소년과 19~21세 청소년 간에 주구매자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IV-21. 생리용품 주구매자

(단위: 명, %)

구분	사제 수	대상자 본인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기관 선생님	기타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222)	41.6	56.0	0.5	0.8	0.7	0.4	-	
연령	16~18세	(1,172)	34.1	63.2	0.6	0.8	0.9	0.4	57.396 ***
	19~21세	(1,050)	49.9	47.9	0.4	0.9	0.5	0.4	
수도권 여부	수도권	(936)	41.3	56.6	0.7	0.5	0.6	0.2	4.659
	비수도권	(1,286)	41.7	55.5	0.4	1.1	0.9	0.5	
권역	수도권	(936)	41.3	56.6	0.7	0.5	0.6	0.2	14.877
	강원권	(69)	41.2	53.3	1.3	1.4	1.4	1.3	
	충청권	(240)	41.1	57.0	0.8	0.4	0.8	-	
	경상권	(625)	42.5	55.1	-	1.0	0.9	0.6	
	전라제주권	(351)	41.0	55.7	0.5	1.5	0.8	0.5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③ 바우처 주 이용처

이용자들이 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곳은 대형마트(50.4%)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일반 온라인 쇼핑몰(25.1%), 편의점(10.0%) 등의 순이었으며, 오프라인 구매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63.4%였고, 온라인 구매처를 이용하는 경우는 36.6%였다. 오프라인 이용률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바우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과 전라제주권 청소년들이 타 권역 청소년들에 비해 온라인보다 오프

라인 구매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 시 섬이나 산간 지역의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고 배송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V-22. 바우처 주이용처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오프라인	온라인	대형마트	소형마트	편의점	카드사 쇼핑몰	국민행복몰	일반 온라인 쇼핑몰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222)	63.4	36.6	50.4	3.0	10.0	7.1	4.4	25.1	-	
연령	16~18세	(1,172)	61.0	39.0	48.1	3.0	9.9	7.9	3.7	27.4	57.386 ***
	19~21세	(1,050)	66.1	33.9	53.0	2.9	10.2	6.2	5.3	22.4	
수도권 여부	수도권	(936)	61.4	38.6	46.0	4.5	10.9	8.0	4.6	26.0	4.659
	비수도권	(1,286)	64.9	35.1	53.7	1.8	9.3	6.4	4.3	24.4	
권역	수도권	(936)	61.4	38.6	46.0	4.5	10.9	8.0	4.6	26.0	14877
	강원권	(69)	71.3	28.7	59.1	2.7	9.5	2.7	5.6	20.5	
	충청권	(240)	64.4	35.6	53.7	1.5	9.2	8.8	6.1	20.6	
	경상권	(625)	61.3	38.7	50.7	1.7	8.8	6.7	3.6	28.4	
	전라제주권	(351)	70.2	29.8	57.9	2.0	10.3	5.0	4.0	20.7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주: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소형마트, 편의점을 의미하고, 온라인은 카드사쇼핑몰, 국민행복몰, 일반온라인쇼핑몰을 의미함.

바우처 이용처를 1,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형마트 이용률이 54.2%로 가장 높고, 일반 온라인 쇼핑몰(36.8%), 편의점(17.0%), 카드사 쇼핑몰(10.6%)의 순이었다.

표 IV-23. 바우처 주이용처 (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오프라인	온라인	대형마트	소형마트	편의점	카드사쇼핑몰	국민행복몰	일반 온라인쇼핑몰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222)	79.2	55.3	54.2	7.9	17.0	10.6	7.9	36.8	-	
연령	16~18세	(1,172)	77.1	56.8	52.1	7.7	17.3	11.2	7.0	38.6	12.219
	19~21세	(1,050)	81.4	53.6	56.7	8.2	16.6	9.9	8.9	34.8	
수도권 여부	수도권	(936)	76.8	57.2	50.0	8.9	17.9	11.7	7.8	37.6	17.456**
	비수도권	(1,286)	80.9	53.9	57.4	7.3	16.3	9.8	8.0	36.2	
권역	수도권	(936)	76.8	57.2	50.0	8.9	17.9	11.7	7.8	37.6	46.480**
	강원권	(69)	86.3	47.8	61.9	9.5	14.9	4.0	13.7	30.1	
	충청권	(240)	78.6	51.6	56.8	7.3	14.5	11.5	9.2	30.9	
	경상권	(625)	78.0	57.8	54.6	7.7	15.7	9.6	7.4	40.8	
전라제주권	(351)	86.6	49.9	61.7	6.0	18.9	10.1	7.0	32.8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주: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소형마트, 편의점을 의미하고, 온라인은 카드사쇼핑몰, 국민행복몰, 일반온라인쇼핑몰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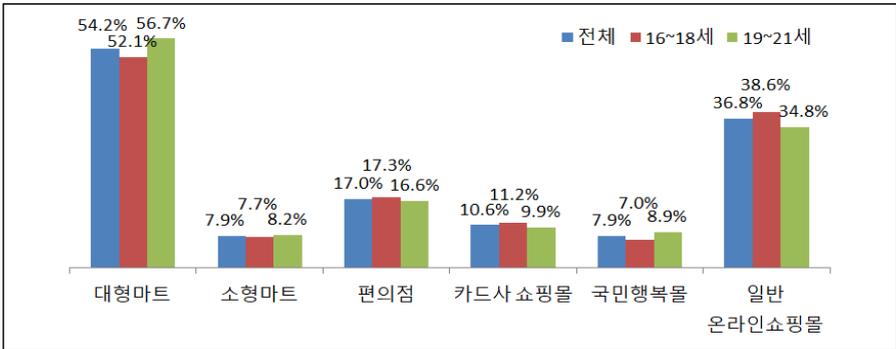


그림 IV-9. 바우처 주이용처(1+2순위)

#### ④ 바우처 이용 생리용품 구입 빈도

바우처를 이용하여 생리용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2~3개월에 한 번 구입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6개월에 한 번(37.6%), 매달(10.6%), 1년에 한 번(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18세 청소년들은

2~3개월에 한 번(45.4%), 6개월에 한 번(34.4%), 매달(12.6%), 1년에 한 번(7.6%) 등의 순이었으나, 19~21세 청소년들은 6개월에 한 번(41.1%), 2~3개월에 한 번(39.3%), 1년에 한 번(11.3%), 매달(8.3%) 등의 순으로 19~21세 청소년들이 16~18세 청소년들에 비해 생리대 구입 빈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바우처 이용 생리용품 구입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달	2~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222)	10.6	42.5	37.6	9.4	-	
연령	16~18세	(1,172)	12.6	45.4	34.4	7.6	29.655 ***
	19~21세	(1,050)	8.3	39.3	41.1	11.3	
수도권 여부	수도권	(936)	11.6	41.6	37.1	9.7	2.284
	비수도권	(1,286)	9.8	43.1	37.9	9.1	
권역	수도권	(936)	11.6	41.6	37.1	9.7	21.712 *
	강원권	(69)	15.0	32.6	40.0	12.3	
	충청권	(240)	8.8	41.3	38.9	11.0	
	경상권	(625)	8.4	48.4	35.6	7.5	
전라제주권	(351)	11.9	37.0	41.0	10.1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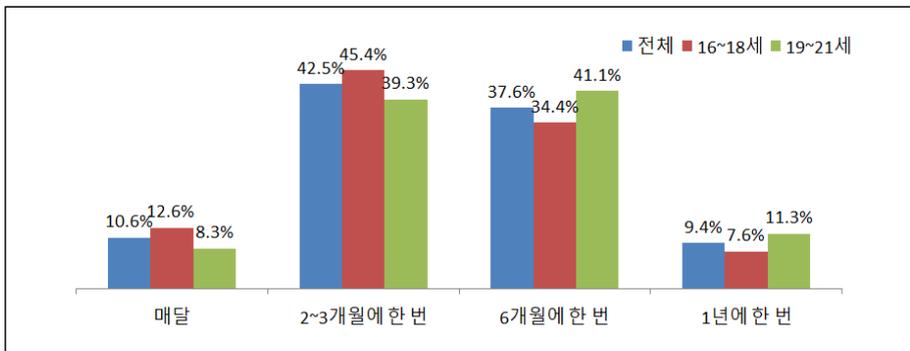


그림 IV-10. 바우처 이용 생리용품 구입 빈도

생리용품 구입 빈도는 권역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강원권과 전라제주권 청소년들은 6개월에 한 번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2~3개월에 한 번, 매달, 1년에 한 번 구입하는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⑤ '24년 바우처 사용 정도,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이유

바우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작년(2024년)에 바우처를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우처 이용자의 55.0%는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37.1%는 거의 다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여 이용자의 92.1%는 바우처를 대부분 사용한 것('모두 사용하였다'와 '거의 다 사용하였다')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용자 중 16~18세 청소년보다는 19~21세 청소년에게서 사용하지 못했다(전혀+거의 사용하지 못함)는 응답률이 2.7%p정도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전혀+거의 사용하지 못함)'는 응답이 경상권에서 가장 낮은 반면 강원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지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2.6% 수준이었으나, 전라제주권 청소년들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24년 바우처 사용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거의	거의 다+ 모두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거의 다 사용 하였다	모두 사용 하였다	잘 모르겠다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222)	5.3	92.1	1.7	3.6	37.1	55.0	2.6		
연령	16~18세	(1,172)	4.0	93.9	1.6	2.4	36.3	57.7	2.1	15.681**
	19~21세	(1,050)	6.7	90.1	1.9	4.8	38.0	52.1	3.2	
수도권 여부	수도권	(936)	5.5	92.4	1.8	3.7	37.5	54.9	2.1	2.398
	비수도권	(1,286)	5.1	91.9	1.7	3.4	36.7	55.1	3.0	
권역	수도권	(936)	5.5	92.4	1.8	3.7	37.5	54.9	2.1	16.116
	강원권	(69)	6.8	90.4	4.1	2.7	39.6	50.8	2.8	
	충청권	(240)	5.3	93.2	1.2	4.2	30.6	62.6	1.5	
	경상권	(625)	4.6	92.3	1.7	2.9	38.1	54.3	3.0	
	전라제주권	(351)	5.5	90.4	1.5	4.0	38.0	52.4	4.0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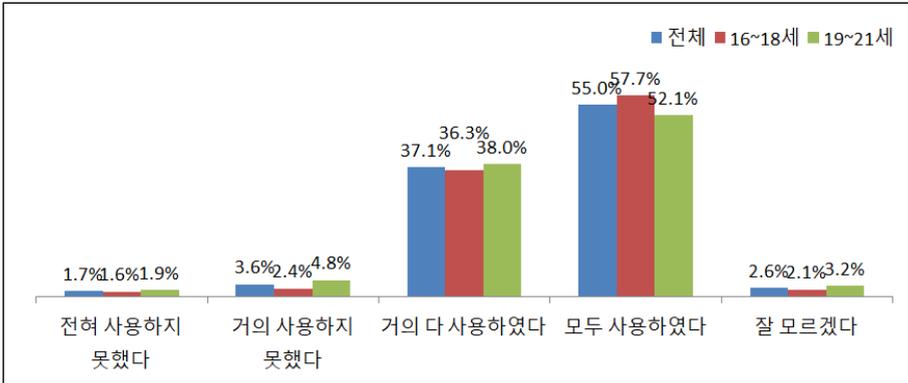


그림 IV-11. '24년 바우처 사용 정도

바우처 이용자 중 바우처를 '전혀,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주요 이유(1순위)를 살펴본 결과,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44.7%)'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이용처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9.3%)',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8.0%)', '이용 방법이 귀찮고 복잡해서(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가 공통적으로 1순위였고, 그다음으로 16~18세 청소년들은 '이용처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17.5%)', '이용 방법이 귀찮고 복잡해서(9.8%)' 등의 응답이, 19~21세 청소년은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9.4%)', '구매처에 내가 사고 싶은 생리용품이 없어서(8.5%)'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26. '24년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이유(1순위)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24 바우처 미소진자 <sup>51)</sup>	(117)	44.7	8.0	9.3	8.0	3.2	6.7	
연령	16~18세	(46)	41.1	5.9	17.5	9.8	4.0	3.9
	19~21세	(71)	47.0	9.4	4.0	6.9	2.7	8.5
수도권 여부	수도권	(51)	42.4	6.0	7.3	7.8	3.8	11.8
	비수도권	(66)	46.5	9.6	10.9	8.3	2.7	2.8
권역	수도권	(51)	42.4	6.0	7.3	7.8	3.8	11.8
	강원권	(5)	40.2	-	19.6	-	-	-
	충청권	(13)	49.9	-	7.0	14.4	7.3	-
	경상권	(29)	46.7	18.7	3.2	6.4	-	6.3
전라제주권	(19)	45.5	4.6	22.8	9.1	4.5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chi^2$ 검증	
'24 바우처 미소진자	3.8	1.6	5.0	2.3	1.7	5.6	-	
연령	16~18세	3.9	-	2.0	3.9	2.0	5.9	10.609
	19~21세	3.7	2.7	7.0	1.3	1.5	5.4	
수도권 여부	수도권	3.5	2.0	6.0	1.8	2.0	5.8	4.312
	비수도권	4.0	1.4	4.3	2.8	1.4	5.5	
권역	수도권	3.5	2.0	6.0	1.8	2.0	5.8	41.887
	강원권	-	-	40.2	-	-	-	
	충청권	7.0	-	7.0	-	-	7.3	
	경상권	-	3.1	-	6.3	3.2	6.3	
전라제주권	9.0	-	-	-	-	4.5		

- \* ①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  
 ②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③ 이용처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④ 이용 방법이 귀찮고 복잡해서  
 ⑤ 구매처를 찾기가 어려워서  
 ⑥ 구매처에 내가 사고 싶은 생리용품이 없어서  
 ⑦ 최근에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⑧ 바우처 카드가 가족 명이라서 사용이 불편해서  
 ⑨ 건강 등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⑩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⑪ 내가 지원대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⑫ 기타

51) '24년 바우처 사용 정도가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거의 사용하지 못했다'에 해당하는 응답자

바우처 이용자 중 바우처를 '전혀,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를 살펴본 결과,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가 57.4%로 가장 많았고,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23.2%), '구매처에 내가 사고 싶은 생리용품이 없어서'(18.8%), '이용 방법이 귀찮고 복잡해서'(15.1%), '이용처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는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56.9%), 이용처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27.3%), 이용 방법이 귀찮고 복잡해서(23.6%)의 순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19~21세는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57.6%),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24.2%), 구매처에 내가 사고 싶은 생리용품이 없어서(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은 아니지만 생리용품 구매 후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볼 때 바우처 신청 및 카드 발급 시 이용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미동의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27. '24년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이유(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24 바우처 미소진자 <sup>52)</sup>		(117)	57.4	23.2	14.7	15.1	12.0	18.8
연령	16~18세	(46)	56.9	21.6	27.3	23.6	13.7	17.7
	19~21세	(71)	57.6	24.2	6.5	9.5	10.8	19.6
수도권 여부	수도권	(51)	53.6	19.5	9.1	11.5	11.5	27.1
	비수도권	(66)	60.3	26.0	19.1	17.9	12.3	12.4
권역	수도권	(51)	53.6	19.5	9.1	11.5	11.5	27.1
	강원권	(5)	79.5	19.6	19.6	39.3	-	-
	충청권	(13)	64.2	28.5	28.5	21.7	14.4	21.4
	경상권	(29)	59.2	31.2	6.4	9.5	12.5	15.7
	전라제주권	(19)	54.5	18.2	32.0	22.7	13.7	4.6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chi^2$ 검증
'24 바우처 미소진자		4.6	2.4	12.3	11.0	4.0	7.1	-
연령	16~18세	3.9	2.0	9.9	9.8	7.9	5.9	18.339
	19~21세	5.0	2.7	13.9	11.7	1.5	7.9	
수도권 여부	수도권	3.5	2.0	12.0	7.5	5.5	5.8	10.587
	비수도권	5.4	2.8	12.5	13.6	2.8	8.2	
권역	수도권	3.5	2.0	12.0	7.5	5.5	5.8	43.489
	강원권	-	-	40.2	-	19.6	-	
	충청권	7.0	-	7.0	14.1	-	7.3	
	경상권	3.1	6.3	15.7	18.7	3.2	12.4	
	전라제주권	9.0	-	4.6	9.1	-	4.5	

\* ①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

- ②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 ③ 이용처나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 ④ 이용 방법이 귀찮고 복잡해서
- ⑤ 구매처를 찾기가 어려워서
- ⑥ 구매처에 내가 사고 싶은 생리용품이 없어서
- ⑦ 최근에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 ⑧ 바우처 카드가 가족 명이라서 사용이 불편해서
- ⑨ 건강 등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 ⑩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 ⑪ 내가 지원대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 ⑫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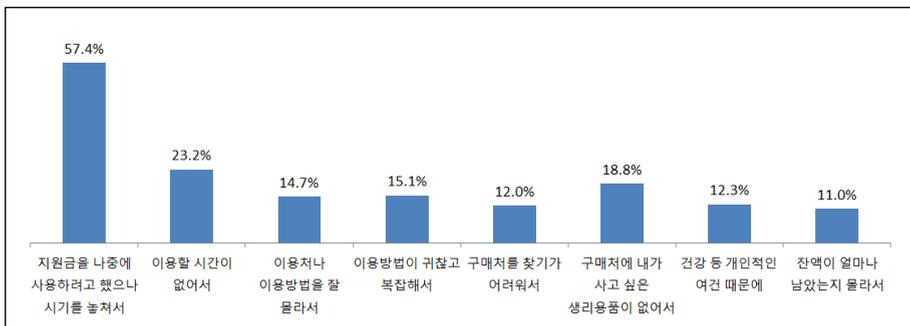


그림 IV-12. '24년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주요 이유(1+2+3순위)

52) '24년 바우처 사용 정도가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거의 사용하지 못했다'에 해당하는 응답자

#### ⑥ 바우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생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이용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신청방법의 편리성,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 바우처 이용기간의 충분성에 대해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오프라인 구매처에서의 구매 편리성, 바우처로 살 수 있는 물품 종류 다양성, 구매 가능한 생리용품 브랜드의 다양성, 바우처 잔액 확인의 편리성 등은 80%대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온라인 구매처에서의 구매 편의성 및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생리용품의 가격 적절성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69.4%, 77.8%에 지나지 않아 온라인 구매처에서의 구매 절차 및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바우처 이용 후 바우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생활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바우처 이용으로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98.0%였으며, 바우처 이용이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96.8%였다. 나아가 바우처 이용으로 생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는 응답은 93.1%로 나타나 바우처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생활, 생리에 대한 인식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바우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생각을 점수로 환산하면 4점 만점 중 평균 2.9~3.7점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평균 3.3점 내외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바우처 이용으로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구매처에서의 구매가 편리하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점을 볼 때 온라인 구매처의 구매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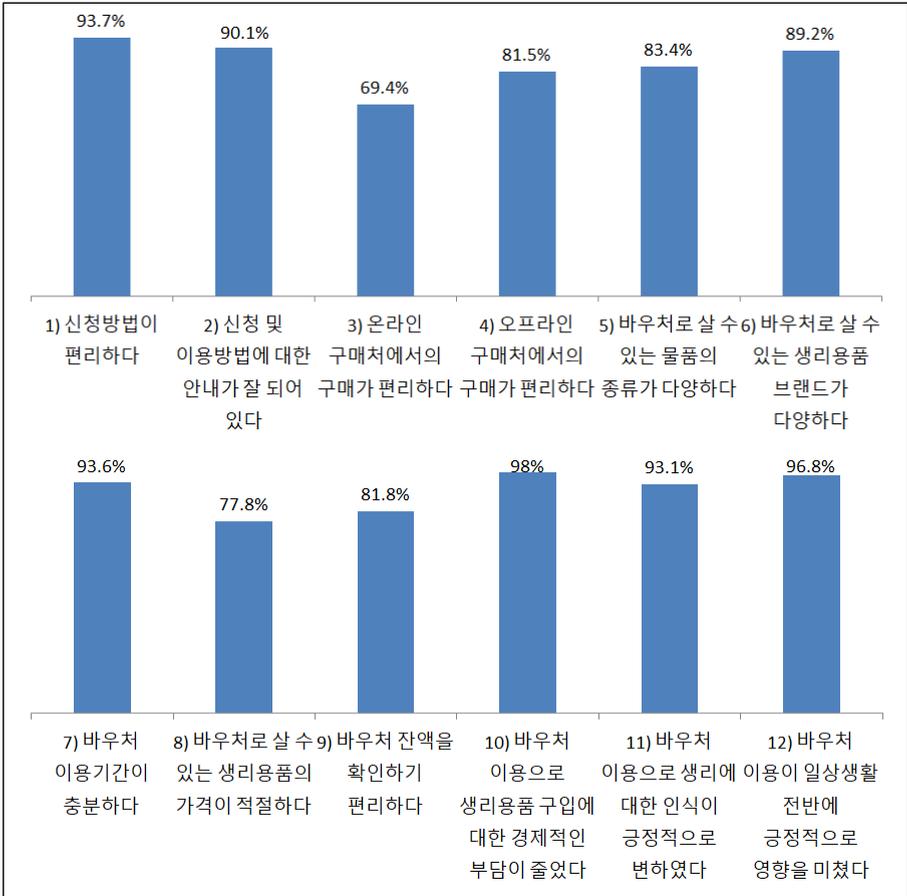


그림 IV-13. 바우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긍정 응답률

표 IV-28. 바우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생각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1) 신청방법이 편리하다	1.5	4.8	48.6	45.1	6.3	93.7	3.4
2)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다	1.6	8.3	47.3	42.8	9.9	90.1	3.3
3) 온라인 구매처에서의 구매가 편리하다	8.1	22.5	38.1	31.3	30.6	69.4	2.9
4) 오프라인 구매처에서의 구매가 편리하다	5.0	13.4	40.7	40.9	18.5	81.5	3.2
5) 바우처로 살 수 있는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3.9	12.7	47.4	36.0	16.6	83.4	3.2
6)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생리용품 브랜드가 다양하다	2.0	8.8	47.6	41.6	10.8	89.2	3.3
7) 바우처 이용기간이 충분하다	0.8	5.6	47.4	46.2	6.4	93.6	3.4
8)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생리용품의 가격이 적절하다	4.1	18.1	52.6	25.2	22.2	77.8	3.0
9)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기 편리하다	4.5	13.6	42.9	39.0	18.2	81.8	3.2
10) 바우처 이용으로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	0.4	1.7	28.6	69.3	2.0	98.0	3.7
11) 바우처 이용으로 생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1.5	5.4	49.1	44.0	6.9	93.1	3.4
12) 바우처 이용이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0.8	2.4	40.2	56.6	3.2	96.8	3.5

\*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는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합임.

\* 주: 평균 점수의 범위는 1~4점임.

### ⑦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만족한다(10점)는 의견이 전체 이용자의 60%를 상회하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점)는 의견이 1% 내외인 것으로 볼 때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IV-2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만족도: 점수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 수	1	2	3	4	5	6	7	8	9	10	
이용자 전체	(2,222)	0.3	0.3	0.7	0.9	5.8	2.7	4.0	7.9	10.9	66.5	
연령	16~18세	(1,172)	0.2	0.3	0.8	0.9	6.1	3.0	4.1	8.4	10.1	66.0
	19~21세	(1,050)	0.3	0.2	0.7	0.9	5.4	2.3	4.0	7.3	11.8	67.0
수도권	수도권	(936)	0.3	0.3	0.4	0.5	6.7	1.6	5.1	8.6	11.1	65.3
여부	비수도권	(1,286)	0.3	0.2	1.0	1.1	5.1	3.5	3.2	7.4	10.8	67.4
권역	수도권	(936)	0.3	0.3	0.4	0.5	6.7	1.6	5.1	8.6	11.1	65.3
	강원권	(69)	1.3	-	1.3	-	2.7	2.8	1.4	9.6	20.7	60.2
	충청권	(240)	-	0.8	0.7	2.3	5.4	3.4	2.7	7.3	9.2	68.3
	경상권	(625)	0.1	0.1	1.2	0.6	4.1	3.1	3.6	8.0	10.3	68.9
	전라제주권	(351)	0.5	-	0.8	1.5	7.1	4.3	3.3	6.0	10.8	65.8

\* 주: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매우 만족한다)으로 평정하였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이용자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9.4%, 보통이다 8.4%, 만족하지 않는다 2.2%로 청소년 이용자의 약 90%가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족도는 연령대나 권역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라제주권(85.9%)과 충청권(87.4%)의 만족도가 타 권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9.1점(10점 만점)이었으며, 연령별,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3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만족하지 않는다 (1~4점)	보통이다 (5~6점)	만족한다 (7~10점)	$\chi^2$ 검증	평균	
이용자 전체	(2222)	2.2	8.4	89.4	-	9.1	
연령	16~18세	(1172)	2.2	9.1	88.7	-1.045	9.0
	19~21세	(1050)	2.1	7.7	90.2		9.1
수도권 여부	수도권	(936)	1.5	8.4	90.1	-0.378	9.0
	비수도권	(1286)	2.6	8.5	88.9		9.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만족하지 않는다 (1~4점)	보통이다 (5~6점)	만족한다 (7~10점)	$\chi^2$ 검증	평균	
권역	수도권	(936)	1.5	8.4	90.1	0.887	9.0
	강원권	(69)	2.7	5.5	91.8		9.1
	충청권	(240)	3.8	8.8	87.4		9.0
	경상권	(625)	2.0	7.1	90.8		9.2
	전라제주권	(351)	2.8	11.3	85.9		9.0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매우 만족한다)으로 평정하였음.

###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

####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 필요 사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16.2%)를 1순위로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확대'(14.1%),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간편화'(14%), '카드 신청 및 발급 간편화'(12.5%) '온라인 구매처 확대'(12.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선 필요 사항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한 응답값을 살펴보면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가 5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온라인 구매처 확대'가 36.2%,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가 31.2%,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간편화'가 30.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31.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 필요 사항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14.1	12.5	14.0	10.5	11.1	12.4	5.8	3.5	16.2	-	
연령	16~18세	(1,358)	13.2	11.2	15.2	10.9	11.1	12.2	5.6	3.7	16.9	9.773
	19~21세	(1,328)	14.9	13.8	12.7	10.0	11.1	12.6	6.1	3.3	15.5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13.7	8.3	15.0	11.3	11.7	12.0	6.3	3.6	18.2	239.435 ***
	미이용자	(464)	15.9	32.4	9.1	6.7	8.4	14.1	3.8	2.9	6.8	







경우는 온오프라인 구매처 확대를 개선 사항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중복 취약성이 있는 경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카드 신청 및 발급 시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에 대한 개선 의견

### ① 지원 대상 확대 시 생리용품 우선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면 우선 확대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청소년이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고 자립준비청(소)년 등 시설퇴소청(소)년이라는 응답이 2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조손가정 청소년이 15.8%, 장애 청소년이 12.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보았을 때 특정 유형의 취약계층보다는 경제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을 지급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모든 하위집단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연령별 집단의 차이를 보면 16~18세는 19~21세 집단에 비해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청소년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19~21세는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응답률이 16~1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19~21세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또래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최근 동년배인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 IV-34. 지원대상 확대 시 우선 지원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12.9	31.3	15.8	8.2	24.0	2.4	3.7	1.8	-	
연령	16~18세	(1,358)	11.9	34.0	15.6	8.6	21.4	3.0	3.9	1.6	21.856 **
	19~21세	(1,328)	13.8	28.5	15.9	7.8	26.7	1.7	3.6	1.9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13.8	32.1	15.3	7.7	23.4	2.3	3.7	1.6	23.121 **
	미이용자	(464)	8.1	27.3	17.9	10.6	27.1	2.6	3.8	2.6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13.7	30.0	14.3	8.5	25.2	2.0	3.9	2.3	10.637
	비수도권	(1,559)	12.3	32.2	16.8	8.0	23.2	2.6	3.6	1.4	
권역	수도권	(1,127)	13.7	30.0	14.3	8.5	25.2	2.0	3.9	2.3	41.301
	강원권	(87)	13.4	28.0	14.7	8.7	21.1	7.2	3.5	3.5	
	충청권	(298)	14.1	29.6	15.1	6.6	27.1	3.5	2.8	1.3	
	경상권	(748)	13.6	31.2	17.3	7.7	23.6	2.0	3.6	1.0	
	전라제주권	(426)	8.5	36.7	17.6	9.1	20.1	2.1	4.3	1.7	

- \* ① 장애 청소년
- ②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청소년
- ③ 조손가정 청소년
- ④ 가족돌봄청(소)년
- ⑤ 자립준비청(소)년 등 시설퇴소청(소)년
- ⑥ 이주배경 다문화가족 청소년(북한이탈, 중도입국 포함)
- ⑦ 대상 확대가 필요하지 않음
- ⑧ 기타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② 단계적 생리용품 무상지원사업 필요 여부, 우선 지원 연령대 및 불필요한 이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9~24세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무상지원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74.1%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응답률은 하위집단별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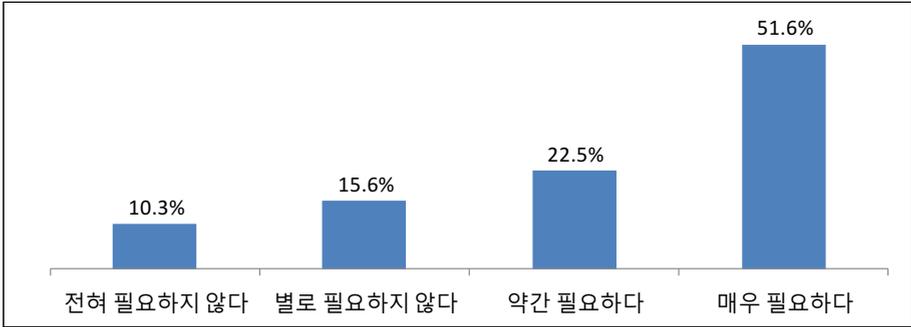


그림 IV-15. 9~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무상지원사업 확대 필요 정도

표 IV-35. 생리용품 무상지원사업 9~24세 연령별 단계적 확대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10.3	15.6	22.5	51.6	25.9	74.1	-	
연령	16~18세	(1,358)	10.7	14.3	22.5	52.5	25.0	75.0	3.561
	19~21세	(1,328)	10.0	16.9	22.4	50.7	26.8	73.2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10.9	15.4	22.1	51.5	26.3	73.7	5.203
	미이용자	(464)	7.5	16.5	24.1	52.0	24.0	76.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11.9	15.1	21.3	51.6	27.0	73.0	5.785
	비수도권	(1,559)	9.2	15.9	23.3	51.6	25.1	74.9	
권역	수도권	(1,127)	11.9	15.1	21.3	51.6	27.0	73.0	23.941*
	강원권	(87)	6.5	17.5	34.4	41.7	24.0	76.0	
	충청권	(298)	9.1	13.2	25.0	52.7	22.3	77.7	
	경상권	(748)	10.6	17.7	22.4	49.3	28.3	71.7	
	전라제주권	(426)	7.4	14.2	21.3	57.0	21.7	78.3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합임.

지원사업의 대상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 중학생 연령과 후기청소년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그 다음으로 바우처 이용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를, 미이용자는 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36. 9~24세 중 우선 지원대상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9~10세 (초등 중학년 연령)	11~12세 (초등 고학년 연령)	13~15세 (중학생 연령)	16~18세 (고등학생 연령)	19~24세 (후기 청소년기)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7.7	16.5	30.8	17.3	27.7	-	
연령	16~18세	(1,358)	7.6	17.3	32.0	18.2	24.8	9.345
	19~21세	(1,328)	7.7	15.7	29.5	16.3	30.7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7.8	17.4	30.6	15.9	28.3	15.683**
	미이용자	(464)	7.0	12.7	31.5	23.9	24.9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8.4	15.9	28.9	18.1	28.7	3.989
	비수도권	(1,559)	7.2	17.0	32.1	16.7	27.0	
권역	수도권	(1,127)	8.4	15.9	28.9	18.1	28.7	13.711
	강원권	(87)	8.1	15.7	31.4	21.6	23.2	
	충청권	(298)	8.3	19.6	27.8	14.8	29.6	
	경상권	(748)	7.7	15.1	34.0	16.1	27.0	
	전라제주권	(426)	5.4	18.5	32.2	18.0	25.8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③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현행 지원 대상 유지’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 확대’가 23.9%, ‘여성청소년(9~24세) 전체로 확대’가 21%, ‘모든 여성(전 연령대)으로 확대’가 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4.2%에 불과하였다. 현행 유지나 일부 저소득층 등을 포함하는 부분적 확대에 대한 의견이 60%가 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보편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연령대별 단계적 확대에서는 7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여 장기적으로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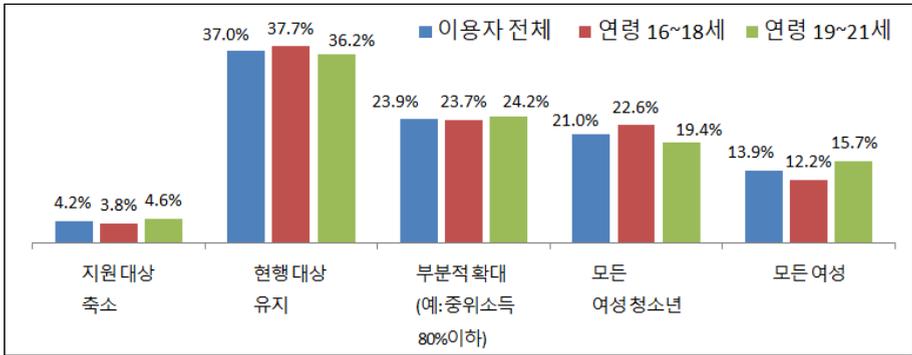


그림 IV-16. 생리용품 지원사업 확대 방법

표 IV-37.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4.2	37.0	23.9	21.0	13.9	-
연령	16~18세 (1,358)	3.8	37.7	23.7	22.6	12.2	10.742*
	19~21세 (1,328)	4.6	36.2	24.2	19.4	15.7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4.0	37.3	24.0	21.2	13.5	3.186
	미이용자 (464)	5.1	35.4	23.6	20.2	15.7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4.8	35.8	24.5	21.3	13.6	2.804
	비수도권 (1,559)	3.8	37.9	23.5	20.8	14.1	
권역	수도권 (1,127)	4.8	35.8	24.5	21.3	13.6	27.202*
	강원권 (87)	4.3	49.9	17.4	16.9	11.5	
	충청권 (298)	4.0	34.3	19.9	23.3	18.5	
	경상권 (748)	3.7	40.5	22.7	19.6	13.6	
전라제주권 (426)	3.7	33.3	28.6	22.0	12.5		

- \* ①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만, 한부모가족 청소년만 등)
- ② 현재 지원 대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③ 지원 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예: 중위소득 80% 이하 등)
- ④ 모든 여성청소년(9~24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 ⑤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전 연령대로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점은 생리용품 구매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들이다. 이들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생리용품 구매가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기간이 긴 경우 생리용품 구매가 더욱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층부터라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환경 이전 연령대에 속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④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원 대상 확대가 '현재 지원 대상에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70.7%,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7.1%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확대를 '과잉복지'(31.8%)로 인식하거나 '남성 청소년에 대한 차별'(22%)로 인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 역시 83.2%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응답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생리용품 지원의 확대가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나 사각지대 발생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할 수 있는 동시에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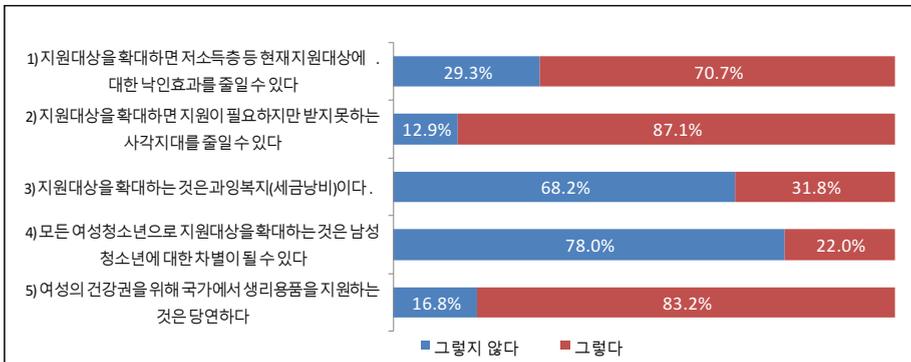


그림 IV-17.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표 IV-38.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저소득층 등 현재 지원대상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10.7	18.6	44.9	25.9	29.3	70.7
2)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3.2	9.8	51.9	35.2	12.9	87.1
3)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과잉복지(세금낭비)이다	34.3	33.9	21.8	10.0	68.2	31.8
4)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남성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49.4	28.6	15.2	6.8	78.0	22.0
5)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4.2	12.6	40.9	42.4	16.8	83.2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는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합임.

### (3) 공공기관 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비치에 대한 개선 의견

#### ① 생리용품 비치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여부

청소년시설, 학교, 도서관, 복지관, 관공서 등 공공기관 내 생리용품이 비치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4%는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6%였다. 공공기관에 비치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사용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3%로 이는 전체 응답자의 15.5%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내에서는 생리용품을 사용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39. 공공기관 내 생리용품 비치 목적 및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목적 여부											
		없다			있다			사용 여부			편리 여부		
		없다	있다	$\chi^2$ 검증	없다	있다	$\chi^2$ 검증	불편	편리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66.4	33.6	-	53.7	46.3	-	5.1	94.9	-			
연령	16~18세	(1,358)	64.7	35.3	3.834	50.6	49.4	3.953 *	3.9	96.1	1.716		
	19~21세	(1,328)	68.2	31.8		57.2	42.8		6.8	93.2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66.7	33.3	0.446	54.3	45.7	0.510	5.5	94.5	0.426		
	미이용자	(464)	65.1	34.9		51.1	48.9		3.5	96.5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68.4	31.6	3.459	55.3	44.7	0.626	3.8	96.2	0.856		
	비수도권	(1,559)	65.0	35.0		52.7	47.3		6.0	94.0			
권역	수도권	(1,127)	68.4	31.6	17.524 **	55.3	44.7	16.807 **	3.8	96.2	7.435		
	강원권	(87)	53.0	47.0		42.9	57.1		-	100.0			
	충청권	(298)	62.3	37.7		45.5	54.5		6.0	94.0			
	경상권	(748)	69.1	30.9		62.9	37.1		10.6	89.4			
	전라제주권	(426)	62.0	38.0		45.5	54.5		3.0	97.0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연령별 차이를 보면, 16~18세 청소년들이 19~21세 청소년들보다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아마도 이들이 아직 학령기여서 학교에서 본 것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권역별 차이를 보면, 경상권이나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에 비치된 것을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있더라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와 해당 지자체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대다수(94.9%)는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여성청소년들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생리용품을 좀 더 손쉽게 이용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② 무상 생리용품(생리대) 자판기 비치의 필요성

지역의 공공기관 내 여성 화장실에 무상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대해 75.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이라면 상당수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미처 생리용품을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번 이상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한 응답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생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생리용품은 이들에게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표 IV-40. 무상 생리용품(생리대) 자판기 설치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6.0	18.7	38.9	36.4	24.7	75.3	-
연령	16~18세 (1,358)	6.8	19.3	37.8	36.1	26.1	73.9	3.887
	19~21세 (1,328)	5.3	18.1	40.0	36.6	23.4	76.6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5.7	19.3	38.9	36.1	25.0	75.0	5.298
	미이용자 (464)	7.7	15.9	38.8	37.6	23.6	76.4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6.5	18.3	37.3	37.9	24.8	75.2	3.296
	비수도권 (1,559)	5.7	19.0	40.1	35.3	24.7	75.3	
권역	수도권 (1,127)	6.5	18.3	37.3	37.9	24.8	75.2	17.744
	강원권 (87)	9.9	19.7	38.7	31.7	29.5	70.5	
	충청권 (298)	4.9	17.7	37.0	40.4	22.6	77.4	
	경상권 (748)	6.7	20.3	39.3	33.6	27.0	73.0	
	전라제주권 (426)	3.6	17.4	43.8	35.2	21.0	79.0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합임.

③ 무상 생리용품 자판기 확대 시 설치 장소

무상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를 확대할 경우에 가장 필요한 곳으로는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을 꼽은 경우가 41.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시·도청 등 공공기관이 23.9%, 구립·시립·국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12.4%, 여성센터, 여성문화회관 등 여성기관이 11.1%,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이 6.1%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소수 의견 중에는 공중화장실에 비치해야 한다거나 무상 설치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IV-41. 무상 생리용품(생리대) 자판기 확대 시 설치 장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청소년 시설	복지관	공공 도서관	여성 기관	공공 기관	기타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41.6	6.1	12.4	11.1	23.9	5.0	-
연령	16~18세 (1,358)	44.1	5.5	11.6	11.4	23.0	4.4	10.235
	19~21세 (1,328)	39.0	6.7	13.3	10.7	24.9	5.5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42.8	6.7	11.7	11.1	22.9	4.8	25.713 ***
	미이용자 (464)	35.6	3.0	15.9	10.7	28.9	5.8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42.5	6.4	10.7	10.9	23.5	6.0	10.037
	비수도권 (1,559)	40.9	5.9	13.7	11.2	24.2	4.2	
권역	수도권 (1,127)	42.5	6.4	10.7	10.9	23.5	6.0	28.956
	강원권 (87)	47.8	7.9	11.2	13.1	15.8	4.3	
	충청권 (298)	38.5	6.1	15.6	13.8	22.3	3.7	
	경상권 (748)	39.2	6.6	12.2	10.8	26.1	5.0	
	전라제주권 (426)	44.1	3.9	15.4	9.5	24.0	3.0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4) 복지에 대한 책임 소재의 상대성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 대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만큼 응답자들의 복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개인이 각자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7~10점에 대한 응답률 8.4%)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1~4점에 대한 응답률 64.3%)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개인보다는 정부에게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IV-42. 복지에 대한 책임 소재의 상대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1	2	3	4	5	6	7	8	9	10	평균	t/F검증
		(정부)				(중간)				(개인)			
이용자 전체	(2,686)	39.4	7.3	10.0	7.6	19.7	7.5	3.0	1.6	1.3	2.5	3.3	-
연령	16~18세	(1,358)	39.3	6.4	10.0	8.4	19.6	7.3	3.0	1.8	1.5	2.7	1.020
	19~21세	(1,328)	39.6	8.2	10.1	6.8	19.8	7.7	3.0	1.5	1.1	2.3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40.2	6.4	9.7	6.8	19.4	8.1	3.2	1.9	1.5	2.7	2.387*
	미이용자	(464)	35.7	11.5	11.6	11.4	21.2	4.4	1.9	0.4	0.4	1.7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40.9	7.2	9.6	7.5	20.5	6.6	2.6	1.6	1.1	2.5	-1.386
	비수도권	(1,559)	38.4	7.4	10.3	7.7	19.2	8.1	3.3	1.6	1.5	2.5	
권역	수도권	(1,127)	40.9	7.2	9.6	7.5	20.5	6.6	2.6	1.6	1.1	2.5	1.723
	강원권	(87)	26.4	10.3	16.9	4.3	24.7	5.5	3.3	2.1	-	6.5	
	충청권	(298)	41.8	5.1	10.0	8.4	21.1	6.2	2.8	1.5	1.2	1.9	
	경상권	(748)	38.5	7.5	9.0	8.2	17.5	9.4	3.6	1.8	1.7	2.8	
	전라제주권	(426)	38.4	8.1	11.5	6.8	19.6	7.8	3.2	1.2	1.7	1.7	

\*p<.05, \*\*p<.01, \*\*\*p<.001

\* 주: 평균 점수의 범위는 1~10점임.

#### 4)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1) 월경(생리) 경험

###### ① 초경 연령

응답자들의 74.2%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초경을 시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 초경을 시작하는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각각 22.4%와 21.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여자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6학년 시기에 초경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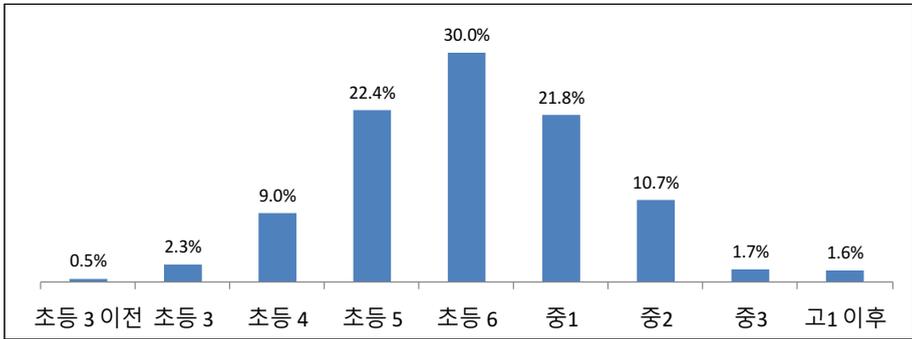


그림 IV-18. 초경 시작 연령(학년)

표 IV-43. 초경 시작 연령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초3 이전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이후	평균	t/F검증
이용자 전체	(2,686)	0.5	2.3	9.0	22.4	30.0	21.8	10.7	1.7	1.6	5.05	-
연령	16~18세	(1,358)	0.4	2.5	8.6	24.7	30.2	20.8	10.0	1.3	4.99	-2.194 *
	19~21세	(1,328)	0.6	2.2	9.4	20.1	29.7	22.8	11.4	2.1	5.11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0.6	1.8	8.6	22.8	29.6	22.3	10.6	1.8	5.08	2.399
	미이용자	(464)	-	4.7	10.8	20.5	31.8	19.3	11.3	1.0	4.91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0.7	2.0	8.3	22.9	30.8	21.1	11.0	1.4	5.07	-.463
	비수도권	(1,559)	0.4	2.6	9.5	22.0	29.4	22.3	10.5	1.9	5.04	
권역	수도권	(1,127)	0.7	2.0	8.3	22.9	30.8	21.1	11.0	1.4	5.07	.722
	강원권	(87)	-	2.2	11.6	21.3	26.6	27.2	6.8	-	4.4	
	충청권	(298)	0.6	2.9	9.4	23.2	33.8	18.7	9.2	0.9	4.92	
	경상권	(748)	0.2	2.1	9.8	22.3	30.0	23.6	8.7	1.9	5.03	
	전라제주권	(426)	0.6	3.3	8.6	20.9	25.8	21.3	15.3	3.0	5.14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주: 평균 및 t/F 검증은 학년(①초등 3학년 이전, ②초등 3학년, ③초등 4학년, ④초등 5학년, ⑤초등 6학년, ⑥중 1학년, ⑦중 2학년, ⑧중 3학년, ⑨고등 1학년 이후)을 연속변수로 가정하여 산출함.

② 생리주기의 규칙성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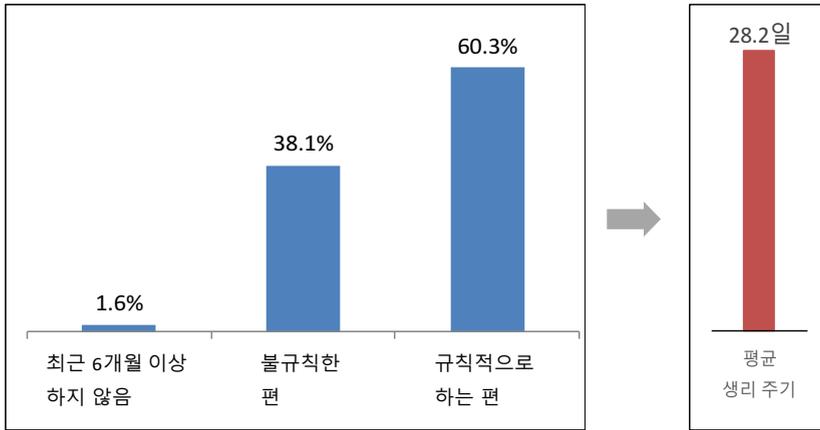


그림 IV-19. 생리의 규칙성 및 평균 주기

생리주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생리가 불규칙한 편이라는 응답은 38.1%였으며 60.3%는 규칙적인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생리가 규칙적인 이들의 평균 생리주기의 범위는 21일~45일이었으며 평균적으로는 28.2일로 보고되었다.

표 IV-44. 생리의 규칙성 및 평균 주기

(단위: 명, %, 일)

구분	사례 수	최근 6개월 이상 하지 않음	불규칙한 편	규칙적으로 하는 편	$\chi^2$ 검증	생리주기	
						평균(일)	t/F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1.6	38.1	60.3	-	28.2	-
연령	16~18세 (1,358)	1.2	36.3	62.5	7.155*	28.1	-1.063
	19~21세 (1,328)	2.0	40.0	58.1		28.3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1.3	36.9	61.8	15.100***	28.1	-2.478*
	미이용자 (464)	2.9	43.9	53.2		28.5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1.5	38.4	60.1	0.316	28.2	-0.356
	비수도권 (1,559)	1.7	37.9	60.5		28.2	

(단위: 명, %, 일)

구분	사례 수	최근 6개월 이상 하지 않음	불규칙한 편	규칙적으로 하는 편	$\chi^2$ 검증	생리주기		
						평균(일)	t/F검증	
권역	수도권	(1,127)	1.5	38.4	60.1	6.931	28.2	0.434
	강원권	(87)	-	38.7	61.3		28.2	
	충청권	(298)	3.2	35.4	61.4		28.3	
	경상권	(748)	1.3	38.9	59.8		28.1	
	전라제주권	(426)	1.5	37.6	60.9		28.3	

\*p<.05, \*\*p<.01, \*\*\*p<.001

\* 주: 평균은 생리주기의 평균(일)임

### ③ 생리 기간

응답자들의 생리 지속 기간은 평균 6.1일로 5~7일 사이의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의 85.5%이다. 한편 3일 이하는 2.1%, 8일 이상은 6.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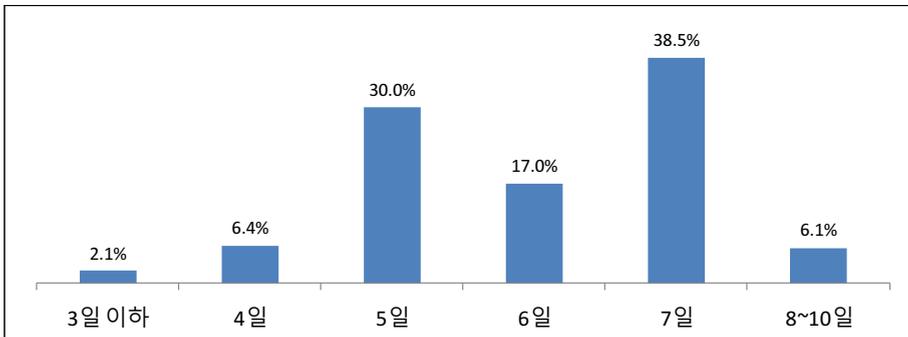


그림 IV-20. 평균 생리 기간

표 IV-45. 평균 생리 기간

(단위: 명, %, 일)

구분	사례 수	3일 이하	4일	5일	6일	7일	8~10일	평균 (일)	t/F검증
이용자 전체	(2,686)	2.1	6.4	30.0	17.0	38.5	6.1	6.1	-
연령	16~18세	(1,358)	1.8	5.7	29.4	16.4	40.1	6.5	2.155*
	19~21세	(1,328)	2.5	7.1	30.5	17.5	36.8	6.0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1.9	6.0	30.3	16.2	39.4	6.1	2.014
	미이용자	(464)	3.0	8.3	28.4	20.5	33.9	6.0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2.2	7.1	28.2	18.5	37.8	6.2	0.179
	비수도권	(1,559)	2.1	5.9	31.2	15.8	39.0	6.0	
권역	수도권	(1,127)	2.2	7.1	28.2	18.5	37.8	6.2	0.205
	강원권	(87)	0.0	6.9	25.4	20.9	41.5	6.2	
	충청권	(298)	2.6	8.4	29.9	12.9	40.0	6.2	
	경상권	(748)	2.6	5.1	31.2	16.3	39.1	6.1	
	전라제주권	(426)	1.4	5.3	33.4	16.0	37.6	6.4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주: 편의상 1~3일, 8~10일은 각각 하나의 셀로 묶어 제시함.

\*주: 평균은 생리주기의 평균(일)임.

## (2) 생리용품 사용 경험

### ①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

응답자들의 대부분(95.6%)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였으며 탐폰이 그 뒤를 이었으나 3.7%에 불과하였다. 탐폰 사용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여 19~21세 집단에서 사용률이 다소 높았다. 전통적인 용품이자 세탁이 가능한 면 생리대와 근래 들어 새롭게 개발된 용품인 생리컵 사용자는 각각 0.3%에 불과하였다. 기타로 생리팬티도 언급되었으나 이 역시 0.1%로 극소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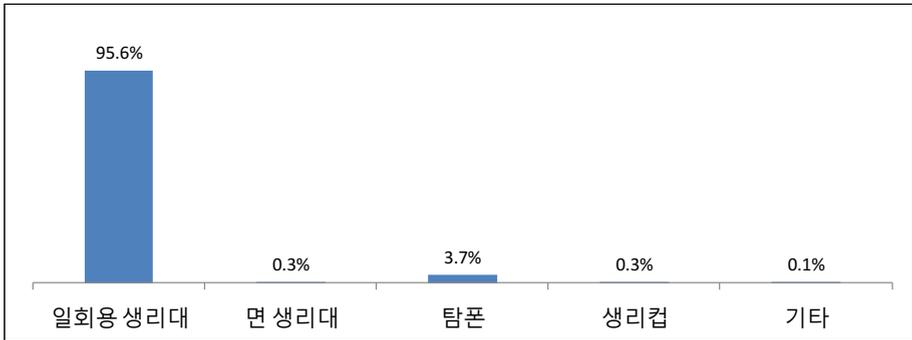


그림 IV-21.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

표 IV-46.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일회용 생리대	면 생리대 (세탁 후 재사용)	탐폰	생리컵	기타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95.6	0.3	3.7	0.3	0.1	-
연령	16~18세 (1,358)	96.8	0.1	2.6	0.2	0.3	16.014**
	19~21세 (1,328)	94.4	0.5	4.8	0.3	-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95.7	0.3	3.7	0.2	0.2	4.203
	미이용자 (464)	95.2	0.4	3.7	0.7	-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96.5	0.2	3.1	0.1	0.1	4.662
	비수도권 (1,559)	95.0	0.4	4.1	0.4	0.2	
권역	수도권 (1,127)	96.5	0.2	3.1	0.1	0.1	17.917
	강원권 (87)	94.1	-	5.9	-	-	
	충청권 (298)	97.2	0.3	2.1	-	0.3	
	경상권 (748)	94.4	0.4	4.4	0.6	0.2	
	전라제주권 (426)	94.5	0.6	4.5	0.3	-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② 일일 평균 생리대(생리용품) 사용 개수

생리량이 중간 정도인 날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은 하루에 평균 5.4개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24분에 한 장씩 사용하는 꼴이다. 생리용품 지원 이용자와 미이용자는 생리대 사용 개수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용자의 1일 평균 이용 개수는 5.5개, 미이용자의 1일 평균 이용 개수는 4.9개로 미이용자의 사용 개수가 다소 낮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한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법에 따르면, 생리량이 적은 날이라도 일회용 생리대는 2~3시간에 한 번씩, 탐폰의 경우는 8시간 이내, 생리컵의 경우는 4~6시간마다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5.5.28).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응답자들의 생리대 교체 주기는 다소 긴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본 사업의 미이용자들은 생리대 교체 주기가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혹시 경제적 부담 때문은 아닌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바우처 이용자들이 생리대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감소로 인해 생리대 이용을 좀 더 위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47. 일일 평균 생리대 사용 개수

(단위: 명, %, 개)

구분		사례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평균	t/F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0.7	3.6	12.1	14.7	31.3	13.8	10.6	5.9	0.9	6.4	5.4	-
연령	16~18세	(1,358)	0.8	3.7	11.8	14.9	29.9	13.4	10.6	6.3	0.8	7.8	5.4	2.072 *
	19~21세	(1,328)	0.7	3.5	12.4	14.6	32.8	14.2	10.5	5.5	0.9	5.0	5.3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0.5	3.6	11.4	13.5	31.3	14.4	10.9	6.1	1.0	7.2	5.5	6.677 ***
	미이용자	(464)	1.8	3.9	15.6	20.5	31.3	10.6	8.9	4.8	-	2.6	4.9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0.8	4.1	12.5	15.5	31.1	12.9	10.0	6.0	1.0	6.0	5.3	-1.365
	비수도권	(1,559)	0.7	3.3	11.9	14.2	31.5	14.4	11.0	5.8	0.7	6.7	5.4	

(단위: 명, %, 개)

구분	사례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평균	t/F 검증	
권역	수도권	(1,127)	0.8	4.1	12.5	15.5	31.1	12.9	10.0	6.0	1.0	6.0	5.3	0.826
	강원권	(87)	1.4	-	14.1	15.5	29.9	18.9	9.3	5.5	-	5.4	5.3	
	충청권	(298)	-	3.7	11.4	18.4	30.9	11.0	11.6	6.2	0.3	6.5	5.3	
	경상권	(748)	0.8	3.3	11.8	13.4	31.9	15.4	11.1	5.3	0.8	6.2	5.4	
	전라제주권	(426)	0.8	3.5	11.9	12.3	31.5	14.1	10.6	6.4	1.0	7.9	5.5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③ 생리용품 선택 기준

응답자들이 생리용품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것은 활동하기 편리함(20.4%)이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률은 두 번째 기준인 저렴한 가격(20.3%)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다음으로는 좋은 흡수력(17.6%), 유기농·순면 등 건강에 안전한 소재(16.6%), 사용 시 쾌적함(1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구입 시 1순위로 고려하는 경우가 바우처 이용자(19.9%)보다는 미이용자(22.4%)에게서 응답률이 다소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건강에 안전한 소재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는 바우처 미이용자(12.3%)보다 이용자(17.5%)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바우처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로 보다 좋은 품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48. 생리용품 선택 기준(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저렴한 가격	구입 쉬움	버리기 쉬움	활동 편리	사용시 쾌적	흡수력 좋음	건강에 안전한 소재	친환경, 쓰레기 적음	기타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20.3	6.0	4.7	20.4	13.8	17.6	16.6	0.5	0.1	-	
연령	16~18세	(1,358)	19.6	6.5	3.7	22.4	14.6	16.6	16.1	0.4	-	18.011 *
	19~21세	(1,328)	20.9	5.6	5.7	18.2	13.2	18.5	17.1	0.5	0.2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19.9	6.3	4.4	20.1	13.5	17.9	17.5	0.5	-	24.263 **
	미이용자	(464)	22.4	5.0	6.2	21.6	15.7	15.7	12.3	0.6	0.4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저렴한 가격	구입 쉬움	버리기 쉬움	활동 편리	사용시 쾌적	흡수력 좋음	건강에 안전한 소재	친환경, 쓰레기 적음	기타	$\chi^2$ 검증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19.3	6.9	4.3	20.9	12.8	16.9	18.5	0.3	0.2	14.920
	비수도권	(1,559)	22.7	5.9	4.6	18.7	13.9	18.2	15.0	1.0	-	
권역	수도권	(1,127)	19.3	6.9	4.3	20.9	12.8	16.9	18.5	0.3	0.2	41.597
	강원권	(87)	25.3	6.9	4.6	16.1	11.5	19.5	13.8	2.3	-	
	충청권	(298)	26.8	6.7	3.0	16.4	12.8	17.8	16.1	0.3	-	
	경상권	(748)	19.4	4.8	5.6	21.6	14.0	18.8	15.2	0.5	-	
	전라제주권	(426)	19.3	5.2	5.2	20.7	17.4	16.5	15.1	0.7	-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한편,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종합하여 볼 때, 생리용품 선택 기준 중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흡수력(62.3%)이었다. 그다음으로는 활동성(50.5%), 안전한 소재(48.4%), 저렴한 가격(30.6%) 등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차이에서는 바우처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건강에 안전한 소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다.

표 IV-49. 생리용품 선택 기준(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저렴한 가격	구입 쉬움	버리기 쉬움	활동 편리	사용시 쾌적	흡수력 좋음	건강에 안전한 소재	친환경, 쓰레기 적음	기타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30.6	16.9	12.0	50.5	43.7	62.3	48.4	5.8	0.2	-
연령	16~18세	(1,358)	28.4	16.7	11.8	52.8	46.6	63.0	48.6	6.3	-	28.981 **
	19~21세	(1,328)	32.7	17.1	12.3	48.2	40.7	61.7	48.3	5.2	0.4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30.4	15.9	11.5	50.9	43.0	63.5	50.0	5.9	0.1	41.860 ***
	미이용자	(464)	31.2	21.8	14.6	48.6	46.7	57.0	41.0	4.9	0.8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30.9	18.2	11.9	51.4	43.0	59.3	48.8	5.1	0.2	12.988
	비수도권	(1,559)	30.3	15.9	12.1	49.9	44.1	64.6	48.2	6.2	0.2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저렴한 가격	구입 쉬움	버리기 쉬움	활동 편리	사용 시 쾌적	흡수력 좋음	건강에 안전한 소재	친환경 쓰레기 적음	기타	$\chi^2$ 검증
권역	수도권	(1,127)	30.9	18.2	11.9	51.4	43.0	59.3	48.8	5.1	0.2
	강원권	(87)	31.9	16.9	13.3	54.0	33.8	65.3	40.4	11.1	-
	충청권	(298)	35.8	19.8	12.0	48.6	43.9	59.7	42.7	5.7	-
	경상권	(748)	29.3	15.2	12.1	49.2	43.9	64.7	53.1	7.0	0.4
	전라제주권	(426)	27.9	14.2	12.0	51.3	46.8	67.6	45.0	4.3	-

\* $p < .05$ , \*\* $p < .01$ , \*\*\* $p < .001$

#### ④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생리용품 구매의 어려움 여부

경제적 상황으로 생리용품 구매가 어려운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8%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바우처 지원 이전에는 있었으나 지원 이후로 없었다는 응답은 57.7%였다. 지원 이후에도 어려움이 (몇 번 또는 자주) 있다는 응답은 8.6%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절반 이상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마도 생리양이 많거나 기간이 길어 평균 이용자에 비해 생리용품 사용량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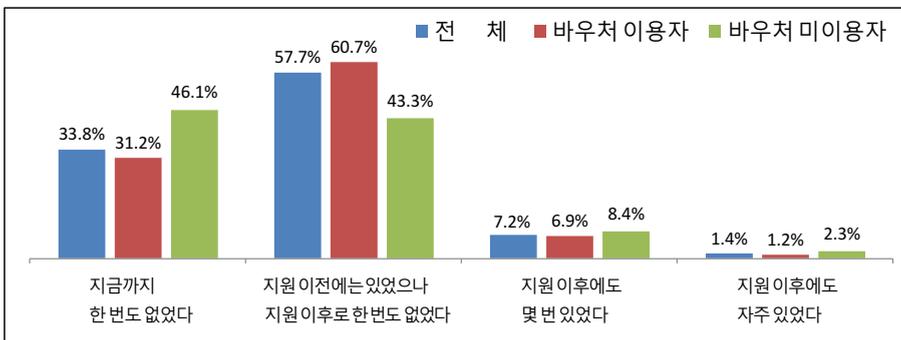


그림 IV-22.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 구매가 곤란했던 경험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지원 이후 어려움 감소에 대해 바우처 이용자의 응답률(60.7%)이 미이용자의 응답률(43.3%)에 비해 17.4%p나 높았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은 이용자(8.1%)보다 미이용자(10.6%)에게서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바우처의 적극적인 사용이 생리대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50.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 구매가 곤란했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원받기 이전에는 있었으나 지원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몇 번 있었다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주 있었다	$\chi^2$ 검증	
이용자 전체	(2,686)	33.8	57.7	7.2	1.4	-	
연령	16~18세	(1,358)	35.1	55.7	7.4	1.8	6.541
	19~21세	(1,328)	32.4	59.7	6.9	1.0	
바우처 이용 여부	이용자	(2,222)	31.2	60.7	6.9	1.2	49.169 ***
	미이용자	(464)	46.1	43.3	8.4	2.3	
수도권 여부	수도권	(1,127)	34.1	57.0	7.5	1.4	0.649
	비수도권	(1,559)	33.5	58.2	6.9	1.4	
권역	수도권	(1,127)	34.1	57.0	7.5	1.4	7.326
	강원권	(87)	36.3	57.9	4.7	1.1	
	충청권	(298)	35.4	58.3	4.6	1.7	
	경상권	(748)	32.2	57.9	8.2	1.6	
	전라제주권	(426)	34.0	58.5	6.5	0.9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 3. 소결

본 장에서는 총 2,686명의 조사대상자(가중치 적용 분석)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이용 경험,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및 월경(생리) 관련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1) 요약

첫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 및 이용 경험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 중 전체 조사대상자 중 17.3%가 2024년에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19~21세(20.9%) 미이용률은 16~18세(13.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바우처 신청 시점은 '2022년 이전'(53.6%)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청자는 '부모'(77.7%)가 대다수였으며, '읍/면/주민센터 방문'(57.9%)을 통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카드 명의자는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19~21세는 그다음으로 '본인 명의'(43.2%) 비율이 16~18세(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이용자(18.7%)의 경우는 이용자(2.9%)에 비해 '명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21.3%)였으며, 비수도권의 미이용자들은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수도권에 비해 높았다. 주요 바우처 이용처는 '대형 마트'(50.4%)였고, 오프라인 이용률(63.4%)이 온라인(36.6%) 이용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리용품의 구입 빈도는 '2~3개월에 한 번'(42.5%)이 가장 많았으나, 19~21세 청소년의 경우 16~18세보다 구입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이용자의 92.1%는 바우처 지원금을 '거의 다 사용'하였으며,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1순위)는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였고, 지원사업에 대해 89.4%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우처 이용으로 인해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98.0%)되었으며, '일상생활 전반 및 생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93.1%)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둘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에 관한 조사에서 이용자들은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56.1%, 1~3순위 합산)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미이용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간편화'(49.8%)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 대상 유지’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80% 이하 등에 대한 ‘부분적 확대’가 23.9%, ‘여성 청소년(9~24세) 전체로 확대’가 21%, ‘모든 여성(전 연령대)으로 확대’가 1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가 ‘현재 지원 대상에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긍정 응답률은 70.7%,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7.1%,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3.2%로 나타나 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현행 및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적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생리용품이 비치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33.6%였으며, 그 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3%로 전체 대상자 중 약 15% 내외 정도 공공기관 내 생리용품이 비치된 것을 보고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공기관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사용한 응답자 중 94.9%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여성청소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생리용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75.3%)’는 응답이 높았고, 가장 설치가 필요한 곳은 청소년시설(41.6%), 공공기관(23.9%), 공공도서관(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청소년의 월경 경험 및 생리용품 사용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74.2%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초경을 시작하였으며, 그 중 ‘초등학교 6학년(30.0%)’에 초경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60.3%는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생리주기는 28.2일이었다. 평균 생리기간은 6.1일이었고,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으로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비율은 95.6%였다. 일일 평균 생리용품 사용 개수는 평균 5.4개였는데, 바우처 이용자(5.5개)가 바우처 미이용자(4.9개)에 비해 생리대 교체주기가 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선택 시에는 ‘활동하기 편리함(20.4%)’과 ‘저렴한 가격(20.3%)’이 주요한 선택 기준이 되었는데, 바우처 미이용자는 이용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1순위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용자들은 미이용자에 비해 ‘건강에 안전한 소재’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생리용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바우처 지원 이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으나 지원 이후

로 없었다는 응답은 57.7%이었고, 특히 바우처 이용자(60.7%)에게서 이러한 응답이 유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의 적극적인 사용이 생리대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2) 시사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실태조사 결과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바우처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이라  
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이용자 비율 문제,  
보호자 중심의 신청 및 이용 구조 등의 문제는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보호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우처 카드 신청 및 이용 구조를 대상자  
본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가 미성년자인 경우 바우처 카드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보호자가 보호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생리용품을 구매하거나 카드 발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  
다. 그러나 대상자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보호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바우처를 처음 신청  
하는 시기에 대상자의 연락처를 등록하고 대상자 명의의 카드를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프라인 구매처 중 주로 대형마트에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구매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구매처 및 이용자들의 요구  
가 높은 온라인 구매처를 발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이용자들의 경우 바우처  
신청 사실을 모르거나 이용처나 이용 방법을 몰라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바우처 신청이  
확정된 경우 주기적인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 이용 가능 금액,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바우처 이용자들은 생리용품의 가격 적절성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77.8%)고  
응답하였으나, ‘바우처 지원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 구매가 곤란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8.6%)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용자들의 경우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월경 기간 동안 필요한 생리용품의 수, 물가 상승 및 이용 생리용품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금액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중복취약계층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복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서는 바우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에 대해 현행 유지나 일부 저소득층 등을 포함하는 부분적 확대에 대한 의견이 60%가 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연령대별 단계적 확대에서는 7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이용한 비율은 낮지만,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볼 때 여성청소년들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생리용품을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중심으로 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무상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74.1%)이 높게 나타났고 조사대상자들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다'(83.2%)는 인식과 복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부에 두는 경향이 강한 점 등을 볼 때,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보편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연령별 지원 확대 시에는 중등 학령기에 대한 보편지원을, 취약대상별 지원 확대 시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 제5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초점집단면접

- 1. 면접개요
- 2. 초점집단면접 결과
- 3. 소결



### 1. 면접개요

#### 1)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대상자

초점집단면접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이용 경험 및 관련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현안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조사>에 참여한 19~21세 참여자 중 관련 의견수렴에 동의한 14명의 여성청소년들(집단별 4~5명)을 대상으로 웹상에서 동의를 받은 후 2025년 8월 25일(미이용자, 1집단)과 8월 27일(이용자, 2집단)에 비대면 화상회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집단별 90분 내외였다. 조사참여자에게는 면접이 종료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3)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V-1.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특성

집단유형	참여자 특성						
	참여자명	출생년도	바우처 신청시기	신청자	카드명의	신청방법	'25년 이용 여부
미이용자 집단	미이용자A	2004년	2022~2023년	엄마	-	-	미이용
	미이용자B	2005년	2~3년 전	부모님	본인	온라인	미이용
	미이용자C	2003년	기억안남 (2~3년 전)	본인	본인	온라인	이용
	미이용자D	2004년	기억안남	할머니	본인	(주민센터)	이용
이용자 집단	이용자A	2003년	2022년	본인	본인	온라인	이용
	이용자B	2003년	기억안남	본인	본인	온라인	이용
	이용자C	2004년	2019년	본인(엄마랑)	본인	주민센터	이용
	이용자D	2005년	2024년	엄마	본인	주민센터	이용
	이용자E	2004년	정확히 기억안남 (사업시작 초기)	엄마	엄마	온라인	이용
	이용자F	2003년	2021년	본인	본인	온라인	이용
	이용자G	2005년	2022년	엄마	본인	주민센터	이용
	이용자H	2005년	2023년	본인	본인	주민센터	이용
	이용자I	2003년	정확히 기억안남 (고등학생 때)	아버지	아버지	주민센터	이용
	이용자J	2004년	정확히 기억안남 (사업시작 초기)	엄마 (초기 신청)/ 본인(2024)	엄마 (초기 신청) /본인(2024)	주민센터	이용

## 2) 질문지 개발 및 주요문항

조사지는 실태조사에서 단편적인 사실 확인만이 가능했던 사항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원 연구진이 실태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조사지는 2025년 8월 12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았다(승인번호: 202506-HR-연개금-002). 질문지의 주요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V-2. 초점집단면접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경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 시기, 신청자, 신청방법 등</li> </ul>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청 연도와 실제 사용 시작 연도는 언제인가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 전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였나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나요? 신청 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나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나요(용품 구매 방법)? 사용 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나요?</li> <li>지난 해에 바우처를 얼마나 사용하였나요?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li> <li>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외에 생리용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 지역화폐, 현물 등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업이 본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li> <li>주변에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가 보다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li> </ul>
미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에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외에 생리용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 지역화폐, 현물 등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업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li> <li>주변에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li> <li>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li> </ul>

### 3) 분석방법

초점집단면접 자료는 기록 및 녹취하여 기 수행된 실태조사 자료, 자문회의 내용 등과의 삼각검증을 통해 실태조사 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줄이고 분석내용을 보완하며 타당성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초점집단면접 결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이용자 및 미이용자로부터 바우처 신청 및 이용 경험과 바우처 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바우처 및 카드 신청 경험, 구매경험, 바우처 이용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바우처 안내 문자 수신 경험, 공공기관 무상 생리대 이용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바우처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1) 바우처 신청 경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들이 바우처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하게 된 경로는 크게 주민센터 홍보물을 보거나 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임을 안내받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주민센터 홍보물

신청자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물을 보고 신청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생리 바우처 이게 2018년, 17년 그때부터라 했잖아요. 그때 한참 홍보도 하고 사업 이런 거 하니까 하면서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했던 터라 그때는 저도 추천을 받아서 엄마가 신청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청한 거는 제가 직접 이미 알고 있던 정책이었던 걸 알고 있어서 직접 가서 했으나 동사무소 가니까 생리대 바우처라고 팸플릿이라고 하나요? 홍보 팸플릿이 있긴 있었어요. (이용자J)
- 저는 23년도 정도부터 신청했고 저는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그 홍보물을 보고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온라인 통해서 신청하게 됐고... (이용자H)

#### ② 주민센터의 대상자 안내

일부 신청자들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나 연락을 받았거나 다른 업무를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직원의 안내로 바우처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저는 안내가 따로 오진 않았는데 다른 업무 보려고 동사무소 갔다가 동사무소에서 해당될 수도 있으니 신청해 보라 정도였어요. (이용자G)
- 저는 제가 신청할 때는 알아서 신청한 건데 그 이후로부터는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그 해당되니까 갱신하라고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문자로. (이용자F)
- 제가 신청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아마 문자가 왔을걸요? 그때 문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대상자다 그게 부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카드를 만들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생 때 알았습니다. (미이용자A)

### ③ 복지포 사이트 검색

또 다른 참여자들은 복지포 사이트를 검색하여 둘러보던 중 본인이 대상자가 됨을 인식하고 직접 신청하였다고 하였다.

- 21년도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복지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하고 그다음에 카드 명의를 제 명의로 했어요. (이용자F)
- 저는 그때 뭐 다른 거 찾아보려고 복지포 들어갔었는데 바우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문자 와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 (미이용자B)
- 그냥 복지포 보다가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신청했어요. (미이용자D)

## 2) 바우처 미이용 사유

실태조사 결과 미이용자의 경우 누가 신청을 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였는지, 카드 명의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이용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현재까지 미이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초점집단면접 미이용 참여자 역시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미이용 상태로 남아있었는데, 그 이유는 카드까지 발급을 받았으나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을 포기하였거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생리대가 남아있어 바우처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카드를 아예 못 썼습니다. 마트를 갔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결제를 해 주셨는데 그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제 기억으로는 ○○마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온라인에서 시도한 적은?)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카드가 국민행복카드였던 것 같은데 거기 자체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카드 등록이 안 됐었나 그래서 '뭐지?' 하고 그거는 넘겼었고 ○○ 말고 그 ○○인가 그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등록이 안 됐어 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재발급을 받은 적은 없는지) 그것도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냅 뒀어겠다 하고 냅 둔 거라서요. (미이용자A)

- 저 다른 데서 생리대에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많이 받아서 딱히 살 필요를 못 느껴서 (어디서?) 그냥 주민센터 모르겠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지원해 주신다 하셔가지고 (언제?) 저는 기억은 잘 안 나긴 하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 (미이용자B)

이 외에도 바우처에 대한 안내나 홍보물을 접하고 나면 대부분 바로 바우처 신청을 하는 것에 비해 바우처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카드 발급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카드 발급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 바우처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바우처 신청 후 카드 발급을 포기하고 있다가 성인이 된 이후 미이용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 제가 좀 학교 일 때문에 많이 바빴을 때라서 신청을 하고 몇 년 뒤에 올해 ○○은행에 가서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 저는 카드 발급 그것도 시간을 좀 내서 간 거였는데 카드 발급을 하러 가니까 뭐 이것저것 쓰고 또 다음 날에 그 카드가 도착을 해야 또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조금... (카드가 주소 쪽으로, 집으로 온다면가 이리저리 않고 직접 가서 받았어야 했나요?) 집으로 배송되는 것도 있었는데 (혼자 살아서) 제가 직접 받아야 되니까, 제가 직접 수령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또 한 3일 뒤인가 ○○은행에 가서 받았어요. (미이용자C)
- 저는 이게 몇 년 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어 가지고... (중략) 카드 발급을 하려는데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이 안 돼 가지고, 근데 생일도 느껴서 성인 지나고 생일 지난 후에 좀 늦게 만들어서 이제야 사용하고 있어요. (중략) 제가 좀 조손가정이어 가지고... 할머니는 있긴 한데 막 핸드폰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려는데 그냥 할머니 명의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게 안 뜨고 그냥 제 명의로만 되더라고요.

동생 거랑 같이 묶여가지고... (미이용자D)

- 일단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 부모님께서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문자가 와서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을 때였는데 처음에는 바우처를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카드를 만들어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미성년자니까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지 만들 수가 있대요. 부모님 사인을 받아서 그걸 또 팩스로 보내달래요. 그게 너무 복잡해서 못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들었어요. 카드를... (신청 당시 카드 발급을) 그거를 해야겠다 했는데 팩스로 또 스캔하고 이렇게 보내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거를 까먹고 있다가 못하다... (미이용자B)

### 3) 이용경험

#### (1) 바우처 신청 및 카드 발급 과정의 복잡함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 이후 카드 발급 과정은 미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불편한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이용자들이 바우처 신청을 하면 바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바우처를 신청하고 나면 바우처 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바우처 신청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카드 발급 시기를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일정기간동안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은 발급 신청 절차가 간편한 반면, 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했다. 더구나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고, 신용카드나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카드를 신청하러 갔다가 카드 발급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드사별 자격심사 후 카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은 바우처 신청과 카드 발급이 구분되어 있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미성년자들의 카드 발급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끝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카드에 찍히는 줄 알아요. 금액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 남았다 이러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카톡으로 문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는데 잔액 확인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카드 이렇게 발급받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그걸로만 일차적으로만 신청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한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끝을 내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나 뭐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일차적으로 그냥 한 번만 신청하는 건 어떤지 그런 것도 관찰을 것 같아요. (이용자J)

-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 건 안 어려워요. 그냥 수기 그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핸드폰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복잡하다. 그리고 은행 볼 일은 보통 4시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다던가 다른 공부를 한다던가 이러면 시간이 또 안 맞으니까 시간 또 비워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갖다가 제가 바로바로 알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쉬운 거. (이용자J)
- 저는 우연히 복지로 들어갔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놓더라고요. 거기서 생리대 이런 게 있다 해서 그거를 보고 신청을 했다가 제가 좀 학교 일 때문에 많이 바빴을 때라서 신청을 하고 몇 년 뒤에 올해 ○○은행에 가서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 저는 카드 발급 그것도 시간을 좀 내서 간 거였는데 카드 발급을 하러 가니까 뭐 이것저것 쓰고 또 다음 날에 그 카드가 도착을 해야 또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조금... (중략) 집으로 배송되는 것도 있었는데 (혼자 살아서) 제가 직접 받아야 되니까, 제가 직접 수령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또 한 3일 뒤인가 ○○은행에 가서 받았어요. (미이용자C)

## (2) 카드회사별 구매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참여자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사별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상이하여 생리용품 구매 시 구매처가 제한되는 점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카톡으로 잔액 확인 문자를 받고는 있지만 잔액 확인을 위해 최근에 받은 문자를 확인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워 생리용품 바우처 앱을 통해 카드 사용처 및 잔액 확인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안내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가 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카드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가 좀 달랐거든요. ○○카드는 ○○온라인몰에서도 쓸 수 있고 △△카드는 온라인 어떤 한 쇼핑몰 같은 데서는 쓸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신청할 때는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는 최대한 그 사용처가 범위가 넓은 □□카드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카드? 은행?

같은 것도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은행들도 다 다른 카드 회사처럼 범위를 넓히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남은 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이 카카오톡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건 맞는데 잔액을 확인하려면 또 카톡 해서 바우처 보내주는 그거를 또 검색해서 찾아봐야 되고, 일일이... 제가 문화누리카드 바우처도 받고 있는데 그 바우처는 어플이 따로 있어서 잔액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생리대 바우처도 따로 그 어플이 있어 가지고 좀 잔액이나 사용처 온라인 사용처나 오프라인 사용처 그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게 있으면 사용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용자F)

- 차라리 이게 문화누리(카드)처럼 은행 독점적으로 하나를 해서 잔액은 은행이랑 연관, 은행을 꼭 꺼야 되는 바우처라고 하면 은행에서 바우처 얼마 남았더라는 금액과 언제 얼마를 결제했더라는 내용이 찍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자J)

### (3) 구매과정에서의 불편함

참여자들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물을 결정한 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도 몇몇 불편한 사항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 ① 오프라인 구매처 결제 과정에서의 불편함

오프라인 구매처에서 결제를 할 때 국민행복카드는 다른 생활용품과 한 번에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생리용품과 생리용품이 아닌 다른 생활용품을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리용품과 생활용품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에 결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판매자는 ‘결제 오류’이고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제 과정에서의 오류는 이용자로 하여금 카드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구매 시 유의할 점을 이용자들에게 상세하게 인식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카드 결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좀 많이 오래 했었는데요. 이게 생리대 생리용품 지원사업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는데 그런 카드를 들고 오셔서 결제를 시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때마다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리대가 아니라 다른 물품이랑 같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손님,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보통 다른 일반생들은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그것처럼 그냥 자기가 사용하는 체크 카드에 그게 그런 기능이 있으면 같이 결제를 하더라도 생리대는 그 바우처로 결제가 되고 다른 생활용품은 제 계좌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이용자C)

- 편의점에서 ○○이었는데 편의점에서 결제를 했더니 그게 결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중략) (다음에) △△에서 결제하려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결제가 안 돼서 현금이랑 체크카드로 했거든요. 체크카드로 돈 있는 걸로 결제했어요. △△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 갖고 그때 갔더니 허탕쳤어요. (이용자J)

또한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무인계산대를 사용할 수 없고 계산원이 있는 계산대에서 다른 생활용품과는 별도로 생리대를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무인계산대를 도입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계산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계산원을 찾아 생리용품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시의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저는 주로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마트에서 결제를 하려면 무조건 캐시가 있는 결제하는 곳으로 가서 생리대만 따로 결제를 해야 돼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인 것 같고요. 거기(무인계산대)서는 이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A)

## ② 온라인 쇼핑몰 구매 절차 및 결제 과정에서의 불편함

### 가. 구매 절차

참여자들은 온라인 쇼핑몰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생리용품'을 검색하여 원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여성생리용품 바우처' 등을 검색한 후 해당 카테고리 로 들어가 원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행복카드'로 구매가 가능한 카테고리 내에서도 다양한 생리용품을 선택할 수 있어 구매가능한 제품의 종류나 가격 등에서 차이를 느끼지는 않지만 절차상의 복잡성은 분명 이용자에게 불편한 요소로 남을 수 있다.

- ××온라인 물에는 그냥 따로 따로 뭐 생리대 바우처인가 뭐 그렇게 따로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좀 제품이 좀 많아요. 탐폰, 생리 팬티, 생리컵 이런 것까지 있고... 근데 제 생각 제가 알기로는 그냥 검색해서 생리대 쳐서 모든 제품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거만 되는데 근데 많아요. 종류가... (미이용자D)
- 저는 초반에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초반에는 제가 어려서 미숙했던 건지 그 사업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결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사는데 그게 ××, △△ 이런 데서 무슨 규칙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사야 되고 한 번에는 못 사고 ××은 꼭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야만 카드 결제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제가 안 된다고 (중략) ××은 꼭 무슨 무슨 무슨 카테고리를 누르고 상품 카테고리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검색해서 그걸 구입하면 안 되고 꼭 무슨 생리대 칸으로 들어가서 뒤에 들어가서 뒤에 들어가서 결제를 안 하셔서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거기 고객센터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중략) 바우처 아니면 ×× 고객센터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 상에는 쇼핑몰 고객센터였던 것 같아요. (이용자B)

#### 나. 결제 과정

참여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에 결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온라인에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때 타 생활용품과 한 번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사나 사이즈가 다른 생리용품을 함께 결제하면 카드 결제에 오류가 있다는 메시지가 떠서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브랜드나 사이즈가 다른 생리용품을 한 번에 구매하고자 할 때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별로 별도 결제를 해야 했고, 각 결제 건마다 배송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배송료는 개인카드로 별도 부담을 해야 했다. 이용자들은 그러한 이유로 본인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무료배송이 가능한 제품을 검색하여 구매하거나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구매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결제 과정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 오류는 아닌데 품목을 생리대 한 품목에서 대형, 중형 이렇게 나누는 걸 선택해서 두 개를 같이 결제를 하려면 그것도 결제가 안 되거든요. 같은 회사 같은 제품에서 옵션을 다르게 넣으면 결제가 안 돼요. 한 번에 (개별 결제 시 배송료는?) 네, 결제해

야 돼요. 택배비도 별도로 계산이 되는데 심지어 택배비는 생리대 바우처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 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무료 배송을 찾아서 쓰기는 하는데 무료 배송으로 찾아서 써도 여러 번 결제해야 되니까. (이용자G)

- □□ 온라인몰에서도 결제를 할 때 가끔 오류가 난다든지 아니면 진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개의 품목을 한 번에 사는데 따로따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지 이런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이용자A)
- 저는 그 뭐냐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품목을 여러 개로 하면 하나씩 결제하라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났었던 적은 있었어요. (이용자F)
- ××도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랑 ◇◇제품 이렇게 두 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생리대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아니면 얼마 이상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는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조금 더 비싼 걸 고르게 된다든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게 A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를 선택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용자J)

일부 참여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리용품 구매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간편결제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등록하는 과정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 저는 ◇◇을 주로 사용하는데 ◇◇은 행복바우처 카드를 따로 결제해야 돼서 ∇∇앱(간편결제 앱)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등록하는 데도 오래 걸렸고 그 앱을 따로 핸드폰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용자G)

이 외에도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해 놓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끔 발생하는 결제 오류로 인해 재시도를 해야 해서 불편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해 놓은 어플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려고 보면 은행사의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갑자기 없다고 뜨거나... 그래서 그 어플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뜨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정도는 네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A)
-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 연동이 되고 체크카드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돼야 되는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생리대를 구매를 하는데

잔액이 부족하대요. 저는 그 체크카드 안에 돈을 넣어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오류도 있고 잔액 확인도 어렵고... (이용자J)

#### (4) 바우처 이용 전후로 달라진 점

바우처 이용자들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를 이용한 이후로 경제적 부담 해소, 생리대 교체 주기 단축, 이용 제품 품질 향상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① 경제적 부담 해소

먼저 참여자들은 용돈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 생리용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구매 부담이 있어서 이용 개수를 줄이거나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곤 하였으나 바우처를 지원받은 이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생리대를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거나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였다.

- 저는 원래 제가 지금 자취를 하는데 본가에서 생리대를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출하는 금액은 없어서 그렇게 부담이 안 됐었는데 자취 생활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사야 될 때가 많아져서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용해보니 어떨지?) 저는 원래는 원래 온라인 몰에서 되는지 모르고 편의점에 가면 많이 봤자 4개 정도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사는 사야 하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몰 사용하니까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배송이 와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미이용자C)
- 저도 혼자 살고 있어서 이게 좀 용돈으로 생리대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용돈으로 사용하니까 뭐랄까 좀 아껴서 쓰게 되고 많이 못 사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 온라인 몰로 부르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부르면서 쓰니까 바로 하루 만에 오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미이용자D)
- 아무래도 그 생리대가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오버나이트 생리대는 가격대가 엄청 높는데 그것도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중략) 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미이용자C)
- 저는 거의 대형으로 한 4장? 평균 4장 정도를 거의 기간 내내 쓰는 것 같고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좀 어쨌든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미리 좀 구비를 해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쓸 수 있다는 점은 좀 이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H)

## ② 생리대 교체 주기 단축

생리대 교체 주기는 개인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바우처 이용 이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생리대를 자주 교체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바우처를 이용한 이후에는 자신의 생리양에 맞춰 생리대의 사이즈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주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옛날에는 카드를 쓰기 전이나 제가 어려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걸 자주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이 많은 편이 아니라 같지 않으면 계속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양이 없어서 엄청 오래 썼었고요, 하나를. 지금은 제가 성인이 되기도 했고 카드로 살 수 있는 만큼 쓰다 보니까 보통 저는 3~4시간에 한 번 갈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갈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엄청 오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아니라 찰 때까지 쓰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찢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용자B)
- 저는 생리대 바우처를 21년도부터 신청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금액이 지금처럼 막 올랐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좀 사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금액이 좀 올라서 저도 첫날이랑 둘째 날 그때 초반쯤에 양이 많아서 입는 팬티형 오버나이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거의 안 샀다시피 했는데 (바우처) 가격이 오르니까 좀 사는 데 부담이 없어져가지고 입는 오버나이트도 잘 살 수 있게 되고 또 양이 그 뭐냐 교체 시기도 확실히 더 자주 갈게 되고 또 팬티라이너도 저 별로 안 썼거든요. 근데 생리 끝날 때쯤도 약간 그게 갑자기 안 나왔다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그냥 아까워서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팬티라이너도 좀 사게 되는 그런...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이용자F)
- 저는 그래도 (경제적 부담은) 비슷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패턴이 다르다면 교체 시기는 조금 자주 가는 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E)

## ③ 이용 생리용품의 품질 향상, 종류의 다양성 확대

또한 바우처를 지원받은 이후 이용하는 생리용품의 품질도 좀 더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리양에 맞는 다양한 사이즈의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살 수 없었던 새로운 생리대 사용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위주로 선택했었던 것에 비해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착용 시 몸에 자극이 덜하고 활동이 편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저는 한 6년 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머니랑 같이 생리대를 직접 사다 보니 직접 행사하는 제품이나 그런 걸 고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략) 예전에는 시도해 보지 못했던 쿨링 생리대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오버사이즈 입는 생리대 같은 걸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용자C)
- 네. 제가 필요한 만큼 살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양이 적어서 생리대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 금액이 충분해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요. 그 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생리대를 받게 되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큰 게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작은 게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크기 측면에서도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용자C)
- 저는 사용하는 양이 많아졌다기보다 사용하는 질적인 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저렴한 거 위주로 구매하고 좀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좀 비싸더라도 괜찮은 거, 좀 내 몸에 덜 자극적인 제품들로 구매하고 있어요. (이용자A)
- 저는 제 돈으로 샀을 때는 약간 가격 보고 많이 샀었는데 근데 지금은 지원받으니까 약간 질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품질?) 그렇게 찾을 때 뭔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약간 없는... (미이용자B)

#### (5)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

참여자들은 대체로 바우처 지원금액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용자B)
- 이것도 오른 금액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돈을 안 주고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용자C)
- 저도 금액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A)
- 저는 근데 생리를 남들에 비해서 양도 적고 하는 일수도 좀 적은 편이라서 그리고 제가 오버나이트나 입는형 생리대나 이런 걸 아예 안 쓰고 저는 탐폰만 사용을 하고 탐폰도 외국계 기업 걸 쓰고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워낙 적은 편인데 딱 맞춰서 각 금액을 딱 맞춰서 쓰는 거니까... (중략) (이용자D)

- 저는 좀 한 달에 1만 4천 원 나오는 거 한 달씩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구입을 한 거여서 딱 받고 냈을 때 1년은 거뜨하겠다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미이용자C)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지원금액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생리량이 많은 참여자들은 생리기간 내내 사이즈가 큰 생리용품을 착용해야 하므로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큰 사이즈의 생리용품이 많이 필요하여 현재의 지원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였다.

- 저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중략) 편의점은 행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략)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좀 더 지원이 되거나 생리대 가격을 낮추거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자H)
- 오버나이트랑 슈퍼롱이랑... (중략) 양이 많은 날은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금액 선에서 (이용자D)
- 진짜 양이 많을 때는 이틀에 대형 28개 드는 걸 다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렴한 걸 사서 쓰는 편이기도 한데 하도 양이 많기도 하고 하니까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연말쯤에는 그냥 사비로 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양이 많아서 사용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좋은 생리대를 쓸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중략) 비싼 걸 쓰면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걸 쓰는데도 부족해서 조금 금액이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이용자G)
- 제가 워낙 (생리량이) 적은 편인데 딱 맞춰서 각 금액을 딱 맞춰서 쓰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오버나이트도 많이 쓰시고 하니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지만 제가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요. (이용자E)
- 8만 4천 원을 받는데 사실 8만 4천 원이면 이 생리량이 많고 뭐 그러다 보면 금방 써요. 정말 금방 써요. 거기다가 생리대에서 유해물질 이 발견이 됐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쓰던 걸 쓰거나 성분을 계속 고려를 해서 하게 되는데 성분을 계속 고려해서 찾아보게 되면 그거대로 8만 4천 원은 정말 순식간에 써버려요. (중략) 생리용품이 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8만 4천 원씩 들어오거든요. 지원금이 좀 그래서 이제 7만 얼마 정도 남은 거 같긴 한데 그 오버나이트랑 슈퍼롱이랑... 팬티라이너는 안 쓰고 팬티형도 쓰거든요. 네네 양이 많은 날은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금액 선에서 (중략) 네. 사실 그거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잘 때는 입는 오버나이트를 사용해도 셀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생리컵이나 탐폰을 썼는데 너무 아프고 이래서. (이용자J)

## (6) 바우처 안내 및 잔액 확인 문자 수신

바우처 이용 안내 및 잔액 확인 문자 수신 주기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안내 및 잔액 확인 문자를 자주 받는 편이지만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고 개인별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다.

- 일단 온라인별 결제 방법은 저희 바우처 잔액 알람 올 때마다 전자 바우처 포털 링크를 띄워주셔서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고객센터 번호도 보내주셔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네 잔액 카톡은 매달 5일에 계속 꾸준히 넣어주셔서 잔액 확인하고 있고, 결제할 때마다 카드사에서 얼마 결제됐다, 남은 잔액은 얼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A)
- 저는 확인했을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카톡 카톡으로 알림이 왔었어요. (이용자E)
- 약간 제 예상이고 생각이긴 한데 이게 결제를 하고 나면 얼마 뒤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용자J)
- 그것도(잔액 확인) 오고 아니면 좀 일정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안 하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막 이렇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미이용자D)
- 좀 많이 오긴 하는데 근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얼마나 자주?) 그냥 이거 와 가지고 지우면 또 오고 좀 그런 느낌... 한 몇 주나 한 달이나 그런 주기로 오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는 않은지?) 그냥 맞다 써야지 하는데 바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안 썼을 때 또 와가지고 이번엔 써야겠다하고 쓰는 느낌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이용자D)
- 저는 카톡이나 문자가 정말 자주 오는 편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용자C)
- 저 방금 봤는데 초반에는 한 10일에 한 번씩 오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다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딱히 없어... 없는 거 같아요. (미이용자B)

또한 일부 면접 참여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이나 지원 관련 안내 및 잔액 확인 문자 알림이 올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바우처 대상자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 막 이렇게 기록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와서 짜증 날 정도도 아니고 그냥 잊을

때쯤 한 번씩 카톡이 와요. 얼마 남았으니까 쓰라고. 근데 문자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쨌든 저소득층,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알람이 오면 제가 결제를 해서 알람이 오는 거는 뭐 얼마 남았다 이런 건 당연한 건데 갑자기 '얼마 남았습니다. 쓰세요' 이렇게 오면 제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알람이 뜨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이용자B)

일부 참여자들은 안내문자나 잔액 확인 문자 알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어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사회보장바우처시스템 내에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참여자가 알람 설정에 동의하였는지, 사회보장바우처시스템 내 오류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저는 지금 찾아보니까 그 문자가 안 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연락처가 변경된 경험은 없는지?) 네. 없어요. (미이용자C)
- 저 찾아보니까 작년 초를 끝으로 그 문자가 안 왔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었더니 아마 자격 요건이 안 됐다 모르겠는데 어느새부터 끊겼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변경된 건 아닌지?) 예. 그건 아닙니다. 언제부터가 끊겨버려 가지고 그냥 내가 너무 하도 안 써서 그런가 이거. (미이용자A)

#### (7) 공공기관 무상 생리대 이용 경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외에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생리용품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참여자들은 무상생리용품이 비치되어 있어 급한 상황에서 대처하기에는 편리하고 급하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품질이라고 하였다. 비록 공공기관에 비치된 생리대가 무상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생리용품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건강을 고려한 제품을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여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비치되어 있는 생리용품의 질은) 제 기억상 질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리하기는 하셨나요? 사용하실 때?) 네네. (미이용자D)

- 사실 저는 조금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러니까 좀 긴 시간 사용하기에는 조금 예민한 편이라 조금 따갑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당장 급한 상황에는 조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빨리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용자H)
- 진짜 급한 경우에 편의점도 못 갈 경우면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만큼의 질을 기대하는 건 솔직히 욕심인 것 같고 그냥 급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딱 적당한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A)

특히 학교 보건실에서 제공하는 생리용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보건실에 다양한 크기의 생리용품이 구비되어 있어 편하게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보건실 등에서 생리용품을 주는 교사가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어 사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고, 특정 사이즈의 생리대만 구비되어 있어 생리량이 많을 때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건실 등에서 면대면으로 직접 나누어 주기보다는 화장실에 다양한 사이즈의 생리용품을 구비한 자판기를 설치한다면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때 다양한 사이즈의 생리용품을 구비한다면 학생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교에 (중략) 보건실 들어가면 입구 앞에 생리대 박스가 있었는데 (중략) 갑자기 터지면 거기서 그냥 꺼내서 쓰고 했는데 그때 그 생리대 브랜드가 그냥 되게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생리대였어서 편하게 썼던... (미이용자C)
- 중학교 때는 크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아예 보건실 창문 이렇게 열면 손 닿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중형 대형 이렇게 쭉르륵 놔 주셔가지고 눈치 안 보고 쓰기도 했고 그래도 좀 편히 썼던 것 같아요. (이용자G)
- 중고등학생 때는 보건실에 가본 적은 있는데 저도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없을 때가 있고 친구들도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랑은 반대로 선생님들이 좀 잘 챙겨 다니라고 '다음부터는 잘 챙겨 다녀라. 여기가 생리대거 꼭 필요할 때만 오는 거지 그렇게 자주 들락밀락하지 마라', '네가 챙겨 다녀라'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셔서 웬만하면 친구들끼리 빌리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최대한 선생님들이 맨날 잔소리하시고 막 뭐라 하시니까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용자B)
- 가끔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본 적 있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보건소 가서 받아오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략) 거의 여자 선생님들이셔서 웬만하면 다 빨리 주고 화장실부터 먼저 가라고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용자A)

- 고등학생 때는 보건실에서 그거 있었어요. 생리대 같은 거 그냥 주시기도 하고 근데 조금 눈치를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걸 갖다 안 챙겨 다니냐고 그랬는데 (중략) 근데 그거(보건실 생리대)는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받는 입장이지만 이제 두 장을 받아서 이어서 붙이거나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경험... (이용자J)

#### 4) 개선사항

##### (1) 바우처 신청 및 카드 발급 간편화

사용자들이 바우처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것은 이들의 상당수가 성인기 이전에 대상자로 선정되지만 이후 성인기가 되어 카드 발급을 받고 본격적인 사용을 시작하면서는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몇 년 뒤에 카드 발급을 받은 거라서 일단 카드 발급받을 때는 그런 안내는 못 들었거든요. (안내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솔직히 안내 책자는 다들 잘 안 읽으실 것 같고 카톡으로 온라인몰이나 이런 거 링크랑 같이 해서 보내면 보내주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미이용자C)
- (안내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주기적으로 1년마다 6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못 쓰신 잔액이 있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그 사용처를 링크를 주거나 하면 어떨까요? (미이용자A)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면접 참여자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신청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다른 지원을 신청하러 갔다가 본 사업도 신청해 보라는 담당자의 권유를 받거나 복지포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신청하는 경우들이 보고되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포함하여 1년에 1회 정도 지원 가능한 사업 안내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전달하거나 대중교통 정류장 등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냥 복지로 보다가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신청했어요. (미이용자D)
- 우연히 복지로 들어갔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놓더라고요. 거기서 생리대 이런 게 있다 해서 그거를 보고 신청을 했다가... (중략) (미이용자C)
- 인내가 따로 오진 않았는데 다른 업무 보려고 동사무소 갔다가 동사무소에서 해당될 수도 있으니 신청해 보라 정도였어요. (이용자G)
- 동사무소 가니까 생리대 바우처라고 пам플릿이라고 하나요? 홍보 пам플릿이 있긴 있었어요. (이용자J)

이러한 어려움은 정보 수집 및 이용이 특히 어려운 중복취약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중복 취약성이 있는 경우, 특히 보호자나 대상자가 정보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 및 이용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세심한 안내 및 지원이 필요하다.

- 카드 발급을 하려는데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이 안 돼 가지고, 근데 생일도 느껴서 성인 지나고 생일 지난 후에 좀 늦게 만들어서 이제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미성년자 분들은 부모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좀 조손가정이어가지고... 할머니는 있긴 한데 막 핸드폰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려는데 그냥 할머니 명의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게 안 뜨고 그냥 제 명의로만 되더라고요. 동생 거랑 같이 묶여가지고... (미이용자D)
-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중략) 보호자분들이 못 도와주시는 경우도 파다할 것 같다고 (중략) (인터넷 신청 절차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많이 헷갈릴 것 같은 말이에요. (중략)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끝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카드에 찍히는 줄 알아요. (중략)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 건 안 어려워요. 그냥 수기 그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핸드폰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복잡하다... (중략)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그걸로만 일차적으로만 신청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한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끝을 내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나 뭐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일차적으로 그냥 한 번만 신청하는 건 어떤지 그런 것도 관찰을 것 같아요. (이용자J)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개선 사항 외에 면접조사에서는 바우처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일환으로 포인트처럼 사용하는 방안이나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 구매처마다 다른 결제 방식의 개선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제 생각에 요즘 또 민생 쿠폰이 또 발급됐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약간 포인트처럼 쓰는 기능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카드를 발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하고 막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 생각에는 포인트처럼 카드를 쓰면 그냥 자동적으로 결제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미이용자A)
- 자기가 사용하는 체크 카드에 그게 그런 기능이 있으면 같이 결제를 하더라도 생리대는 그 바우처로 결제가 되고 다른 생활용품은 제 계좌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이용자C)
- 저는 보통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편이라서 아니면 뭐 간편 결제 같은 식으로도 포인트 같은 거 좀 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중략) 좀 그런 거는 보통 간편 결제도 가능하고 또 편의점에서 그냥 바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가능하니까... (미이용자D)
- 저는 그래서 그냥 회원 가입 인증하면 그냥 포인트처럼 이렇게 삭감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편할 것 같긴 해요. (미이용자B)
-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키면 어떤가, 카드사 여러 군데를 하지 말고 독점적으로 한 군데를 한다던가 아니면 행복 바우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만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 어떨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던데요. (이용자J)
- 근데 바우처 신청할 때 그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지 몰랐던 분도 계시고 막 그러시니까 제가 볼 때는 포인트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카드를 동시에 같이 발급하게 된다면 그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미이용자A)

## (2) 카드 등록 및 결제 방식 개선

또 다른 구매 방법에서의 개선점으로는 품목별 별도 결제의 불편함이 언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매처에 따라 한 번에 용품의 브랜드나 크기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품목 구매가 제한되어 있어 여러 품목을 구매할 경우에 각 품목마다 결제를 일일이 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결제를 여러 번에 나누어 구매하면 그에 따라 배송비를 각각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근데 이게 □□물, △△물뿐만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로예요. ××물도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랑 ◇◇제품 이렇게 두 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생리대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아니면 얼마 이상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는 구매를 포기할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조금 더 비싼 걸 고르게 된다든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게 A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를 선택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용자J)
- 저도 막 무료 배송이 거의 없어서 그 회사 사이트에서 사야 되는데... (중략)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브랜드여도 그냥 대형, 중형 이게 달라지면 함께 구매가 아예 안 돼서 배송비도 다 따로 결제해야 되고 결제를 몇 번 나눠서 해야 되고 한 번 살 때 대형 하나 중형 하나 이렇게 못 사고 항상 중형 많이 사 놓고 대형 많이 사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게 그게 엄청 엄청 많이 불편했어요. 그 부분이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자E)

결제 방식의 개선 필요성은 오프라인 구매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인 결제시스템으로도 생리용품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고 생리용품과 일반 생활용품을 동시에 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프라인 결제 시) 진짜 다른 게 안 돼도 상관없는데 진짜 무인결제 시스템에서도 결제가 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마트 같은 데 큰 데를 가도 캐셔 분들이 한두 분밖에 없을 때도 많고 이래가지고 무인 결제에서 생리대만 결제해도 괜찮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자A)
- 근데 저도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그것처럼 그냥 자기가 사용하는 체크 카드에 그게 그런 기능이 있으면 같이 결제를 하더라도 생리대는 그 바우처로 결제가 되고 다른 생활용품은 제 계좌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이용자C)
- 저 불편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사용처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디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디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거는 알겠는데 정작 예를 들어서 ○○물에서의 사용법이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거를 못 썼던 것 같은데 아마 쓸 수 있으면 각각 뭐라고 그러지 사용처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이용자A)

-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생활용품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결제 오류 이렇게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뭐 다른 해당이 안 되는 제품이 같이 있어서 결제가 안 된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이용자C)

### (3) 상세한 바우처 이용 안내

면접 참여자 중에는 바우처 이용 안내가 좀 더 상세하게 제시되길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거나 온라인몰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몰에서의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온라인 뭐 되는 곳 없을까 찾았는데 정부에서 홍보하는 그런 걸로 본 게 아니라 일반 맘카페 같은 곳에서 엄마들이 '국민행복물 가면 기저귀랑 이런 거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글을 봐서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 건데 국민행복물 저는 써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서 그런 거를 좀 여기서도 쓸 수 있다 이런 어플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이용자C)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디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디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거는 알겠는데 정작 예를 들어서 ○○몰에서의 사용법이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거를 못 썼던 것 같은데 아마 쓸 수 있으면 (중략) 사용처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몰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은근 차이가 있어요. (미이용자A)
- 아마 그 카드 등록을 해야지 결제를 할 때 그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략) 다른 생활용품이 이렇게 돼 있으면(같이 구매하려고 하면) 그냥 결제 오류 이렇게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뭐 다른 해당이 안 되는 제품이 같이 있어서 결제가 안 된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이용자C)
- ◇◇은 행복바우처 카드를 따로 결제해야 돼서 ∇∇앱(간편결제 앱)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등록하는 데도 오래 걸렸고 그 앱을 따로 핸드폰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생리대 바우처 이거 하나 사용하려고 계속 핸드폰에 자리 잡고 있는 애라 이런 걸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자G)

#### (4) 구매처 확대

구매처의 확대와 관련하여 면접조사에서 수렴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권이 잘 갖추어진 곳이나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권이 충분히 발달하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인터넷 구매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구매처로 인해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매처 확대 및 카드별 구매처 제한을 해제하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카드사가 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카드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가 좀 달랐거든요. ○카드는 ○몰에서도 쓸 수 있고 △카드는 온라인 어떤 한 쇼핑몰 같은 데서는 쓸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신청할 때는 그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용자F)

#### (5) 카드 사용 방식 개선

이용자들이 바우처 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인해 자신이 바우처 대상자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며 바우처 대상자로서 낙인이 생길까 걱정하기도 하였다. 국민행복카드를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용자들의 선호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양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국민행복카드를 연동하도록 개선한다면 이용자들이 타인의 이목을 신경쓰지 않고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일단 저는 지금 뭐 발급을 받았지만 저는 보통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편이라서 아니면 뭐 간편 결제 같은 식으로도 포인트 같은 거 좀 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막 ○○페이나 막 이런 거 △△페이... (미이용자D)
- 저는 약간 행복몰 그것도 카드 만들어야지 회원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회원 가입 인증하면 그냥 포인트처럼 이렇게 삭감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편할 것 같긴 해요. (미이용자B)
- 국민행복카드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굳이 더 혜택이 좋은 카드가 있으니까 신용카드로는 안 쓸 것 같아요. (이용자B)

## (6) 바우처 이용 및 잔액 안내 누락 방지

그 외에도 면접조사에서 미사용자 중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안내가 오지 않는다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담당자나 구매처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는 동시에 담당자들이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저 찾아보니까 작년 초를 끝으로 그 문자가 안 왔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었더니 아마 자격 요건이 안 됐나 모르겠는데 어느 새부터 끊겼더라고요. (전화번호 바뀐 거 아니시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언제부터가 끊겨버려 가지고 그냥 내가 너무 하도 안 써서 그런가 이거... (중략) 작년 2월에 온 메시지가 끝으로 더 문자를 받은 적은 없어요. (미이용자A)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면접조사에서도 현행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보다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의견도 수렴되었다.

- 얼마 남았다 이러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카톡으로 문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는데 잔액 확인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고요. (잔액 확인 문자 주기는?) 두 달에 한 번씩이요. (중략)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농협 사가 독점적으로 하거든요. 농협이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카드가 이렇게 있고 핸드폰에 보면 얼마 남았고 이제 카드 얼마 결제가 됐다 이게 일반 결제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중략) 차라리 이게 문화누리처럼 은행 독점적으로 하나를 해서 잔액을 은행이랑 연관, 은행을 꼭 껴야 되는 바우처라고 하면 은행에서 바우처 얼마 남았더라는 금액과 언제 얼마를 결제를 했다는 내용이 찍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자J)
- 사용 금액 남은 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이 카카오톡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건 맞는데 그게 그걸 잔액을 확인하려면 또 카톡 그거 해서 바우처 보내주시는 그거를 또 검색해서 찾아봐야 되고, 일일이. (문화누리카드) 바우처는 그 어플이 따로 있어서 잔액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중략) 생리대 바우처도 따로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좀 잔액이나 사용처 온라인 사용처나 오프라인 사용처 그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게 있으면 사용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용자F)

### (7)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참여자들 중에는 바우처 신청 후 바로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카드를 바로 발급받아 이용했다더라도 각 온라인 구매처나 오프라인 구매처별로 적용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바우처 이용 과정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바우처 이용 시 결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우처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용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개선 방안 그런 건데 국민행복물을 찾는 계기도 그냥 저는 오프라인에 서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온라인 뭐 되는 곳 없을까 찾았는데 정부에서 홍보하는 그런 걸로 본 게 아니라 일반 맘카페 같은 곳에서 엄마들이 ‘국민행복물 가면 기저귀랑 이런 거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글을 봐서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 건데 국민행복물 저는 써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서 그런 거를 좀 여기서도 쓸 수 있다 이런 어플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이용자C)
- (바우처 신청 시 안내 받았는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몇 년 뒤에 카드 발급을 받은 거라서 일단 카드 발급받을 때는 그런 안내는 못 들었거든요. (중략) 솔직히 안내 책자는 다들 잘 안 읽으실 것 같고 카톡으로 온라인 몰이나 이런 거 링크랑 같이 해서 보내면 보내주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언제 안내하는 것이 좋을지?) (바우처) 신청했을 때랑 (카드) 발급받았을 때 한 번씩 하면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미이용자C)

### (8) 복지로 등 다양한 지원사업 안내 사이트 홍보를 통한 신청자 제고

참여자들 중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복지로 사이트의 경우 한 번 가입으로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로 서비스에 바우처 신청과 동시에 카드 발급, 바우처 이용 안내 및 이용 정보, 대상자 관리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로 자체를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복지로 들어가면 내가 해당하는 혜택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를 좀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복지로에서 그렇게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주는지는 모르고 있었어 가지고. (미이용자C)
- 저도 잘은 안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들어오고 나서 말았던 것 같은데 그때 한 번에 볼 수 있어 갖고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미이용자B)
- 저는 뭐 그냥 알아서 막 찾아보다가 있으니까 알아서 막 다 신청한 건데 남들은 고등학생들이 솔직히 복지로 잘 열어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게 홍보가 잘 됐으면 여러 명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이용자D)
- 저는 주변에 생리대 못 써 가지고 그런 거는 못 봤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안 찾아보면 잘 모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홍보 같은 거 좀 있으면 다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미이용자B)

### 3. 소결

본 장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이용자 10명과 미이용자 4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통해 바우처 사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었고 면접 시간은 집단별 90분 내외였고 바우처 신청 및 카드 발급 경험, 구매 경험, 이용 후 생활 변화, 안내 문자 수신, 공공기관 무상 생리대 이용 경험 등을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1) 결과 요약

첫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에 대해 주민센터 홍보물, 주민센터 직원의 개별 안내·연락, 복지로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민센터의 안내도 있었지만, 대체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지원 정보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자들은 바우처를 신청하였지만 카드 발급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카드 발급을 포기하거나 카드 발급 후에도 구매처에서 결제 오류를

경험하면서 사용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바우처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의 바우처 신청과 은행에서의 카드 발급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점,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을 동행해야 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바우처 지원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카드를 본인이 수령해야 하는 점 역시 카드 발급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카드사별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상이한 점과 잔액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문자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생리용품과 타 생활용품을 분리하여 결제해야 한다거나 무인계산대 사용이 불가능하여 계산원을 찾아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온라인 구매 시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리용품을 찾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또는 ‘생리용품 바우처’ 등 전용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생리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로 다른 제조사(브랜드)나 사이즈의 생리용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없어 동일 품목별로 별도 결제하고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불편하다고 하였다.

넷째, 참여자들은 생리용품 바우처를 이용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어 생리대 교체 주기가 단축되는 등의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가격 부담으로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던 것에서 벗어나 제품의 품질과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체로는 지원 금액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리량이 많은 등 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섯째,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알림문자 설정 문제 혹은 시스템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안내 및 잔액 확인 문자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바우처 대상자임이 드러날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및 공공기관에 비치된 무상생리대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교에서 편리하게 이용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보건교사가 눈치를 주거나 일정 사이즈만 구비되어 있어 아쉬웠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의 경우 보건실이 아닌 화장실에 무인자판기가 설치될 경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2) 시사점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들의 경제적, 위생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신청 절차에서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바우처 신청 및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및 보호자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바우처 지원 대상군에 정기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한 안내를 확대해야 하며, 특히 중복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안내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온·오프라인 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구매처의 경우 생리용품과 일반 생활용품을 동시에 결제하고, 무인계산대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바우처 대상자리는 낙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구매처의 경우 브랜드나 사이즈가 다른 생리용품에 대한 통합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다건 결제로 인한 배송비 중복 부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낙인의 우려 없이 편리하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바우처 관련 이용 안내, 잔액 확인, 구매처 정보 등을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또는 통합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정보 분산으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고 바우처 대상자임이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문자가 누락되거나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자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오류를 점검하고 연락처를 현행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에 비치된 무상 생리용품에 대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즈의 생리용품을 구비하고, 안내데스크나 보건실 등을 통해 생리용품을 배포하는 방식보다는 화장실 내 무인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를 확대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제6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1.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의 편의성 제고
- 2.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지속적인 안내
- 3. 생리대 바우처 금액 책정 시 현실적 기준 적용
- 4. 신청률 및 이용률(실이용률),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 5. 낙인효과에 대한 예방책 마련
- 6.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대 비치 확대·강화
- 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모색  
: 보편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해외 주요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현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1.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의 편의성 제고

#### 1) 신청방법의 편의성 제고

현행 제도의 바우처 이용 방법은 지원사업(바우처) 신청과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후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순으로 이어진다. 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조사 결과, 일부 대상자에게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례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바우처 미이용자의 경우는 '카드신청 및 발급 간편화'(32.4%)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 〈연구결과〉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 (바우처 미이용자 대상)  
: 카드 신청 및 발급 간편화(32.4%)>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확대(15.9%)> 온라인 구매처 확대(14.1%)

주민센터에서의 신청은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더구나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고, 신용카드나 전용카

54) 본 장은 김승경 선임연구위원, 백해정 선임연구위원, 김경준 명예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우처 신청과 카드 발급이 구분되어 있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미성년자들의 카드 발급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주배경, 가족돌봄, 조손가정, 시설퇴소(자립준비청(소)년), 채무불이행자, 장애인 등 중복 취약이 있는 경우는 카드신청 및 발급 간편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연구결과〉

- 카드 신청 및 발급 시

카드 신청 및 발급 간편화의 개선 필요 : 중복 취약이 있는 경우(14.2%) > 중복 취약이 없는 경우(11.8%)

이러한 의견은 면접조사에서도 제시되었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인터넷 사용 등에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받아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법, 은행계좌나 신용(체크)카드 없이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청 → 카드 발급 → 구매”에 이르는 바우처 이용 절차 자체의 번거로움 및 단계별 이용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바우처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기술적·시스템적·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적으로는 사업 주관을 맡고 있는 성평등가족부와 복지로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인 관련 카드사, 주민센터 전산망과 정부 24시 등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적·시스템적으로는 복지로 시스템과 카드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의 연동, 정부 24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 원스톱 신청을 위한 UX/UI(사용자 경험/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전자 바우처 발급 및 복지급여 수단(국민행복카드 등)과의 연계 발급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 VI-1. 바우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행정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가족부(사업 주관), 보건복지부(복지로 운영 등),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발급 주체), 행정안전부(주민센터 전산망, 정부 24시 등 연계)</li> </ul>
기술적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로 시스템과 카드사 API 연동 : 사용자 본인 인증 후 카드 신청시 카드 신청 정보를 카드사에 전송하고, 카드 발급 완료 시 자동으로 바우처 계정에 반영</li> <li>• 정부 24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 : 주민등록, 소득 정보를 자동 확인해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li> <li>• 원스톱 신청을 위한 UX/UI 개선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카드 선택 기능을 추가하여 신청서 생성 및 전자서명 기능 연계</li> </ul>
법·제도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전자적 바우처 발급 및 복지급여 수단(국민행복카드 등)과의 연계 발급 근거 조항 마련</li> </ul>

둘째, 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sup>55)</sup> 사례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등록 청소년들에게 자동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해왔는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sup>56)</sup>

5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①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②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지자체 공무원이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 확인 후 해당계좌로 장애아동수당 입금)

5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7).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524&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524&tag=&nPage=1) (검색일: 2025.10.27.).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대통령 지시로 전 부처에서 복지제도 수급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소득·재산 조회 등의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sup>57)</sup>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기초생활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기존의 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정의 청소년들이므로 수급자격을 선정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자동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e음과 바우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급자 연락처 열람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처 현행화 부족</li> <li>• 신청 시점부터 지원</li> <li>• 서비스 신청 누락자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정보 열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li> <li>• 소급 지원(신청하면 연간 지원금 지원)</li> <li>• 신청 누락자 조회 기능 도입 또는 자동지원 방식 도입(개인정보 조회 근거 필요)</li> </ul>

셋째, 은행계좌나 신용(체크)카드 없이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 QR·바코드형 전자바우처, 선불형 IC칩 카드, 정부 전자지갑(디지털 신분증) 통합 바우처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QR·바코드형 전자바우처 방식은 바우처 지원대상자에게 고유 QR(또는 바코드)를 발급하여 제휴 매장에서 스캔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선불형 IC칩 카드 방식은 지역상품권 카드와 같은 형태의 선불충전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휴대폰이 없거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사람

57) 중앙일보 (2025.08.14.). **후 지시한 '복지 자동지급제' ...소득·재산 정보 실시간 연계 등 난제 수두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147> (검색일: 2025. 10. 27.).

들에게도 사용 가능한 방식이다. 정부 전자지갑(디지털 신분증) 통합 바우처 방식은 복지로, 정부 24시, 전자지갑 등의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공공플랫폼에서 직접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표 VI-2. 은행계좌나 신용(체크)카드 없이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구분	주요 내용
QR·바코드형 전자바우처	• 대상자에게 고유 QR(또는 바코드)를 발급하여 제휴 매장에서 스캔하여 결제
선불형 IC칩 카드	• 지역상품권 카드와 같은 형태의 선불충전카드
정부 전자지갑 (디지털 신분증) 기반 통합 바우처	• 모바일 신분증 전자지갑 앱 내에 바우처 탭을 만들어 본인 인증만으로 사용 가능 • 복지로, 정부 24시, 전자지갑 등을 통합한 플랫폼 구축

## 2) 구매처 확대 및 이용 방식 개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중 구매처의 확대는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가 52.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온라인 구매처의 확대(36.2%),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31.2%)의 순으로 나타나, 구매처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연구결과〉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 필요사항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한 응답)  
: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52.0%) > 온라인 구매처 확대(36.2%) >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31.2%) > 바우처 잔액조회방법 간편화(30.6%)
- 바우처 이용자 : 온라인 구매처 확대(35.2%),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31.3%)
- 바우처 미이용자 : 온라인 구매처 확대(41.3%),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30.9%)

특히 바우처 이용자와 미이용자들 모두에게서 온라인 구매처 확대 요구가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 요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서 추정컨대 상권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터넷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제한된 구매처로 인해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짐작된다.

<b>'24년</b>	⇒	<b>'25년</b>
• 온라인 12개, 오프라인 12개		• 온라인 12개, 오프라인 14개(+2)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총 17곳)	G마켓, 옥션,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 6곳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5월 예정),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11곳
삼성카드 (총 13곳)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2곳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 11곳
롯데카드 (12곳)	롯데카드 핑샵, 엘포인트몰, 베짱몰 / 3곳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롯데마트, VIC마켓, 세븐일레븐편의점 / 9곳
신한카드 (4곳)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 2곳	GS25편의점, CU편의점 / 2곳
KB국민카드 (5곳)	KB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 3곳	GS25편의점, CU편의점 / 2곳

**그림 VI-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처**

성평등가족부에서도 구매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매권(바우처) 사용처를 2024년에 24개에서 2025년에는 26개로 확대하고, 카드사와 개별 협의 등을 통해 구매처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월부터는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BC카드와 삼성카드를 이용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5월부터는 BC카드를 이용해서 이마트24에서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sup>58)</sup> 그러나 여전히 구매처마다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달라 이용자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 종류에 관계 없이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든 생리대 구매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으므로 농협하나로마트 등 전국적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구매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sup>59)</sup>

5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4.0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0452](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0452) (검색일: 2025.11.27.).

또한, 구매처 이용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언급한 개선사항 중 하나는 구매처에서의 상품 구매 및 결제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상품 구매 방식과 관련하여 대형 온라인 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몰에서는 일반 생리용품 카테고리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고 별도의 바우처 생리용품 구매 카테고리를 검색해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바우처 결제용 API를 결제수단 중 하나로 등록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으로써 일반 결제창에서도 생리용품 바우처를 선택 가능하게끔 결제 연동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바우처 결제 방식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바우처 사용 시 생리용품을 단독 구매만 가능하여 다른 물품과 같이 구매할 때 생리용품은 별도로 결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생리용품만을 구매하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같은 브랜드라도 크기를 달리하여 2가지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한 번에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결제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구매 방식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한꺼번에 결제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 오류로 인하여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바우처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몇 번의 시도 과정에서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바우처 사용을 포기하고 자비 부담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를 품목 단위에서 복수 품목 승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여러 제품을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복수 품목 결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배송료가 부가되거나 배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배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별 이용 방식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sup>60)</sup>

그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경우에 무인 판매대에서 구매가 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계산대에 계산원이 점차 줄어들고 무인 판매대나 셀프 계산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무인판매대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표준화·통합화할 필요가 있다.

---

59) 2025년 11월 4일 지자체 사업담당자 자문회의 의견임.

60) 2025년 11월 4일 지자체 사업담당자 자문회의 의견임.

### 3) 잔액조회 등 사용 방식의 편의성 제고

실시간 바우처 잔액조회 등 사용 방식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정기적으로 바우처 잔액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면접조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잔액을 문자로 안내받는다든 경우도 있었으나 잔액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또 다른 지원사업인 문화누리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면 사용 금액 및 잔액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사용처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이 둘을 모두 사용하는 참여자들은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식을 더 선호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역시 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앱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사용 금액 및 잔액조회, 구매처 및 방식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카드사 API 및 모바일 인증시스템의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동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복지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VI-3. 바우처 잔액조회 등 편의성 제고 통합 복지 플랫폼의 구성 내용

구분	주요 데이터
카드사	• 바우처 잔액, 사용내역, 한도금액
복지로 행복e음	• 대상자 자격 확인, 지원금 지급현황
사용자 앱서버	• 이력 조회, 알림설정

모바일 앱에는 사용자 인증, 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내역 확인, 자동알림 서비스, 지원 안내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표 VI-4. 바우처 사용방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

기능	기능 설명
사용자 인증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네이버), 카드사 로그인 연계
바우처 잔액조회	• 카드사 API 호출 : 실시간 잔액 및 잔액한도 표시
사용내역 확인	• 가맹점명, 결제일자, 금액 등 내역 조회
자동알림 서비스	• 월 한도 사용률, 잔액 소멸예정 알림

기능	기능 설명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이용 안내</li> <li>• 오프라인 구매처 안내지도</li> <li>• 개인정보 현행화</li> <li>• 관련 지원 기능 제도, 신청방법 등</li> </ul>	

이 밖에도 바우처로 결제한 후에 바우처 사용내역(사용금액, 사용일자, 바우처 잔량 등)을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 System)에서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정산기관에서 거래 승인 및 잔액을 계산하고, 바우처 관리시스템에서 알림 데이터를 생성하여 SMS와 이메일 발송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이용자는 복지로 앱 또는 정부24에서 누적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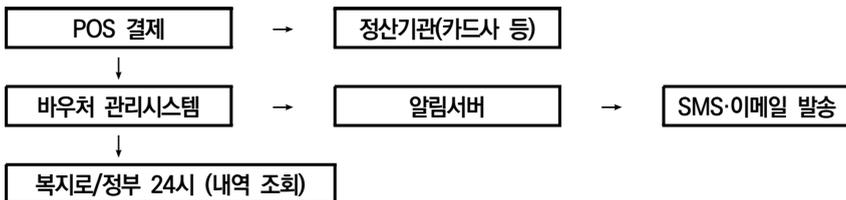


그림 VI-2. 바우처 사용내역 조회 절차

## 2.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지속적인 안내

### 1) 부모,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본 설문조사 결과, 바우처 신청자는 대상자 부모(77.7%)가 청소년(11.2%)에 비해서 신청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경우에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비율(16~18세 82.2%, 19~21세 73.0%)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 바우처 신청자  
: 바우처 대상자 부모(77.7%) > 대상자 본인(11.2%) > 기관선생님(3.5%)
  - 16~18세 신청자 : 바우처 대상자 부모(82.2%) > 대상자 본인(8.4%)
  - 19~21세 신청자 : 바우처 대상자 부모(73.0%) > 대상자 본인(14.2%)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의 경우에 청소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보다 부모(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는 비율이 높으나 현재 이를 감안한 홍보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 대상자들에게 바우처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은 바우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홍보 전략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청소년, 부모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자 부모에 초점을 맞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모 대상의 홍보는 학교, 지역 커뮤니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 유관기관 온라인 사이트 홍보, 캠페인 홍보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학교 대상의 홍보는 학교 가정통신문, 학부모 설명회, 학부모용 앱(아이엠스쿨 등) 등을 활용하고, 지역 커뮤니티 홍보는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지자체 SNS 채널, 지역 신문, 케이블 TV 자막, 지역 내 종교기관 등의 소식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는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의 안내가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관기관 온라인 사이트는 14.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바우처 관련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려면 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여 안내하고, 복지부와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지원 가능한 제도를 정리하여 조건별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제도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 및 구매방법 전반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담당자 대상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sup>61)</sup> 유관기관 온라인 사이트 홍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중에서 바우처 신청 누락자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별로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포 사이트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팝업을 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캠페인 등의 홍보는 생리용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외에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1~2분 영상 제작·보급, 카카오톡 채널 챗봇 안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중복 취약계층의 경우는 주민센터 등 기관 방문 시 안내 및 동행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해당 모국어 팩트 시트 및 영상 제작과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 커뮤니티 내에서 모국어 직접 안내 등을 하고, 장애 청소년의 경우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신청의 날을 운영하며, 모바일 간편 신청 QR 키트를 제작하여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약국·편의점 등에 배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표 VI-5. 부모 대상의 홍보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통신문, 학부모설명회</li> <li>• 학부모용 앱(아이엠스쿨 등)</li> </ul>
지역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li> <li>• 지자체 SNS 채널</li> <li>• 지역 신문, 케이블 TV 자막</li> <li>• 지역 내 종교기관 등의 소식지</li> </ul>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등에 리플릿 비치 및 교육</li> <li>•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필수 안내</li> </ul>

61) 2025년 11월 4일 지자체 사업담당자 자문회의 의견임.

구 분	주요 내용
유관기관 온라인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중 바우처 신청 누락자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별 개별 안내 강화</li> <li>•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팝업 표출</li> </ul>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보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리용품 지원의 중요성 강조 등 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1~2분 영상 제작 제공, 카카오톡 채널 챗봇 안내 등</li> </ul>
중복취약계층 대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센터 등 기관 방문 시 안내 및 동행 신청</li> <li>•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 해당 모국어 팻트시트 및 영상을 제작하여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 커뮤니티 내 모국어 직접 안내</li> <li>• 장애청소년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신청의 날 운영</li> <li>• 모바일 간편 신청 QR 키트 제작 및 배포</li> </ul>

둘째, 청소년 대상의 홍보는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학교, 청소년시설 등의 시설과 SNS 플랫폼, 메신저·알림톡, 모바일 앱·웹, 디지털 캠페인 등 디지털·모바일 중심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 청소년시설 등의 홍보는 휴게 시간 등에 교사들의 안내, 보건실에 홍보전단 비치, 상담시간이나 보건실 방문 시 사업 안내, 교육청, 학교 또는 학생회 중심의 캠페인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 전단을 비치하고 바우처 사업을 안내할 수 있다. SNS 플랫폼 홍보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인스타그램(카드뉴스, 릴스), 틱톡, 유튜브 숏츠, X(트위터)(인포그래픽형 게시글, 해시태그 캠페인) 등을 활용하고,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식 채널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 바우처 신청 도우미로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 앱 배너, 청소년 전용 앱(배너·푸시 알림), 지자체 앱 또는 지역 포털 등을 통한 홍보와 QR 이벤트형 홍보, 웹툰·이모티콘 캠페인, 디지털 스탬프 챌린지, AR 포스터 홍보 등의 디지털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다.

표 VI-6. 청소년 대상의 홍보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학교, 청소년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간 교사 안내</li> <li>• 보건실에 홍보전단 비치, 상담시간이나 보건실 방문 시 안내</li> <li>• 교육청, 학교 또는 학생회 캠페인 운영</li> <li>•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li> </ul>
SNS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스타그램(카드뉴스, 릴스), 틱톡, 유튜브 숏츠, X(트위터)(인포그래픽형 게시물, 해시태그 캠페인)</li> </ul>
메신저 알림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카오톡 알림톡(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식 채널을 통한 안내),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바우처 신청도우미 챗봇 운영)</li> </ul>
모바일 앱 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로 앱 배너, 청소년 전용 앱(배너·푸시 알림), 지자체 앱 또는 지역 포털</li> </ul>
디지털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R 이벤트형 홍보, 웹툰·이모티콘 캠페인, 디지털 스탬프 챌린지, AR 포스터 홍보</li> </ul>

## 2) 바우처 지급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지속적인 안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자임에도 일 년 이상 바우처 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서 정보 누락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바우처 지원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자체의 안내나 홍보 부족, 주소·연락처 변경 등 개인정보 불일치,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밖 청소년의 정보 접근의 한계,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알림 시스템의 구축,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복수 채널 안내 도입, 셋째,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 넷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중 바우처 신청 누락자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 점검 방식의 제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VI-7. 바우처 지급 대상자 누락 방지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자동 알림 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정 시 문자·카카오톡 알림톡·정부24 앱 알림 자동 발송
복수 채널 안내	• 온라인(문자·앱)과 오프라인(학교 가정통신문, 지자체 및 시설 안내문) 병행 안내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 연계	•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하여 안내
이용자 점검 제도화	• 바우처 미사용자 명단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중 바우처 신청 누락자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지자체별 개별 안내 강화

### 3. 생리대 바우처 금액 책정 시 현실적 기준 적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한 생리용품 사용 기준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은 날이라도 2~3시간에 한 번씩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생리대 개수를 산정하면 최소 필요 수량을 주간용(날개형 중형 생리대) 6개, 야간용(오버나이트) 1개 정도로 가정<sup>62)</sup>할 수 있다. 이를 평균 생리 기간인 6일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회에 필요한 생리대 개수는 최소 일반 생리대 36개에 야간용 6개이다. 또한 생리주기를 평균 28일로 산정하면 1년에 총 13회의 생리를 하게 되므로 1년에 필요한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일반 생리대 468개, 야간용 생리대 78개(1개월 당 일반 생리대 39개, 야간용 생리대 6.5개)로 가정할 수 있다.

#### 〈연구결과〉

- 생리의 규칙성: 규칙적으로 하는 편(60.3%) > 불규칙한 편(38.1%)
- 평균 생리주기: 28.2일
- 평균 생리기간: 6.1일 (5~7일 85.5%)
-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 일회용 생리대(95.6%) > 탐폰(3.7%) > 면생리대, 생리컵(각 0.3%) 등
- 일일 평균 생리대 사용 개수: 5.4개
  - 바우처 이용자(5.5개) > 미이용자 (4.9개)

날개형 중형 생리대를 개당 400원, 야간용 생리대를 개당 700원이라고 가정할 때 1년에 필요한 생리용품 가격은 각각 187,200원과 54,600원으로 총 241,800원(1개월 당 일반 생리대 15,600원, 야간용 생리대 4,550원, 총 20,150원)이다. 현재 지원금액은

62) 수면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고 수면 중에는 생리대 교체를 하지 않으며 비수면 시간(16시간)에 3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고 가정하였음.

연 168,000원으로 1년 예상 사용 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이다. 따라서 생리용품 지원 금액 책정 시 평균 생리 주기 및 일수와 생리대 교체시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4. 신청률 및 이용률(실이용률),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25)에 따르면 최근 3년('22~'24년)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이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신청률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용률은 82~8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신청률 뿐만 아니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연구결과〉

- 최근 3년('22~'24년)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신청률: ('22) 71.2% →('23) 80.1% →('24) 87.4%
  - 이용률: ('22) 82.7% →('23) 85.4% →('24) 83.7%

각 지자체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요청으로 시·도 및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동 소식지 홍보, 읍·면·동 대상 신청률 제고 요청 공문, 홍보물 포스터 제작<sup>63)</sup>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청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용률의 변화는 미미한 편이다. 사업 신청률이나 이용률, 예산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지자체의 자체 추진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먼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교나 시설을 통해 생리용품이 제공되고 있어 여성청소년들이 바우처 사업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예산 산출방식은 지원대상 인원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신청률이나 이용률, 예산집행률이 낮을 경우 불용예산이 발생하게 된다. 불용예산의 발생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규모나 필요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문제는 제한된 국고보조금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며, 차년도 예산편성의 정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불용예산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지자체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예산을 조정·배분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63) 2025년 11월 4일 지자체 사업담당자 자문회의 의견임.

성을 높임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신청률과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낙인효과에 대한 예방책 마련

면접조사에서 일부 참여자는 바우처 이용 과정에서 자신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공개 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례로 휴대전화에 정기적으로 뜨는 안내문 제나 신용카드에 “국민행복카드”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통해 제삼자가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에 민감하였다. 이에 휴대전화 화면에 뜬 안내문자를 제삼자가 보지 않도록 앞서 언급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전용 앱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상황에서 이용안내, 잔액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드에 인쇄된 “국민행복카드” 문구를 삭제하고 이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면 암호화하는 방안 또는 다양한 간편결제시스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SSG페이 등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 삼성페이·애플페이·구글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 기반 간편결제, KB페이·우리페이·토스페이 등 금융·카드사 기반 간편결제, 제로페이 등 공공/지역화폐 기반 간편결제, 통신사 기반 간편결제 등)에 국민행복카드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나아가 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생리용품 구매 시 무인 판매대 등에서 타 생활용품과 통합하여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카드 이용 시 바우처 대상이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지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학교나 시설 중심의 생리용품 비치는 바우처 제공에 비해 추진 절차가 간소하게 보일 수 있으나 보관함, 자판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생리대를 한꺼번에 가져가거나 바닥에 떨어진 생리대를 쉽게 버리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생리용품이 낭비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며, 보건실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생리용품 이용 시 이용자들이 관리자의 눈치를 보거나 보건실까지의 이동으로 인해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보편적 지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학교나 시설 중심의 지원보다는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전체로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sup>64)</sup>

## 6.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대 비치 확대·강화

### 〈연구결과〉

- 공공기관 내 생리용품 비치 목격 여부: 없음(66.4%) > 있음(33.6%)
  - 사용 여부: 없음(53.7%) > 있음(46.3%)
  - (사용자의) 편리 여부: 편리(94.9%) > 불편(5.1%)
- 무상 생리용품 자판기 확대 시 설치 장소: 청소년시설(41.6%) > 공공기관(23.9%) > 공공도서관(12.4%) > 여성기관(11.1%) 등

현재 서울·경기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공공 생리대 비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생리용품이 비치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3.6%,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 중에서는 31.6%에 불과하였다. 이는 생리용품을 사용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 생리용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면접조사에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공공 생리대는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공공 생리용품 사업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시사한다. 다만 무상 생리용품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갑작스런 생리의 시작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생리용품을 받기 위해 보건실이나 담당자를 거쳐 화장실로 가야 하는 등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해 불편하고, 일부의 경우 교사가 생리대 사용 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공공기관에 비치된 생리대의 질이 좋지 않거나 특정 사이즈의 생리대만 구비되어 있어 불편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 중심의 무상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을 시사하지만, 생리용품을 지원받기 위해 개인적인 상황이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같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은 대상자의 존엄성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 없이 특정 사이즈의 생리대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침해받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무상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64) 2025년 11월 4일 지자체 사업담당자 자문회의 의견임. 담당자들은 바우처 제공을 통한 보편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전체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바우처 제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는 매우 미진한 상황임.

있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구비한 자판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심리적 당혹감을 줄일 수 있도록 화장실 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보편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연구결과〉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확대 시
  - 우선 지원 대상: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청소년(31.3%) > 자립준비청(소)년 등 시설외 청소년(24.0%) > 조손가정 청소년(15.8%) > 장애 청소년 (12.9%) 등
  - 전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상지원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51.6%) > 약간 필요하다(22.5%) > 별로 필요하지 않다(15.6%) > 전혀 필요하지 않다(10.3%)
  - 9~24세 중 우선 지원대상 연령대: 중학생 연령(30.8%) > 후기청소년기(27.7%) > 고등학생 연령(17.3%) > 초등 고학년 연령(16.5%) > 초등 중학년 연령(7.7%)
-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현재 대상 유지(37.0%) > 부분적 확대(23.9%) >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21.0%) >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13.9%) > 대상 축소(4.2%)
-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87.1%
  -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가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83.2%
  -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지원대상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70.7%

본 조사의 결과 9~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지원에 대해 74.1%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연령대별 우선 지원대상은 중학생 연령 청소년기(13~15세), 후기 청소년기(19~24세), 고등학생 연령 청소년(16~18세) 순이었고, 지원대상별 우선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이하 청소년, 자립준비청소년, 조손가정 청소년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지원대상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체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지원보다는 현재 대상을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더 많이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의 대상이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보편지원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낙인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지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감소의 측면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나, 지원확대의 범위 및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여성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부터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과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방법,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 수혜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리용품 지원에서 나아가 월경이나 성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지원, 생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지원 등으로 지원의 폭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단순히 공공복지의 차원을 넘어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을 기본적인 인권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조사와 더불어 지자체 지원 예산 및 방법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사업을 조정하고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보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 국내문헌

-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김명희, 송현중, 서상희, 김정우 (2019). **여자청소년의 건강이슈 분석과 월경관리 현황 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지은 (2018). 글로벌 월경위생 캠페인의 전개와 월경인권 담론 연구. **여성연구**, 99(4). 219-24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3). **2023-2027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a). **202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b).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a).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II)**. 서울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부 (2025b).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23~'27) 2025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c). 내부자료.
- 정혜원 (2019).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월경 실태 및 향후 과제. **이슈분석, 제141호**(19-14).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내부자료.
- 홍창호 (2006). 청소년의 월경장애.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49(12). 1257-1262.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 국내 인터넷 자료

- UNDP 서울정책센터 홈페이지,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sustainable-development-goals> (검색일: 2025.11.25).

- 경기신문 (2021.03.28.). **이재명이 쏘아올린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전국화된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444> (검색일: 2025.05.2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4.27.).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524&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524&tag=&nPage=1) (검색일: 2025.10.27.).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4.0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452](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452) (검색일: 2025.11.27.).
-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카드뉴스 (2024.10.30.). **사례조사를 통해 본 월경 빈곤의 사각지대.** <https://www.ecofem.or.kr/92/?bmode=view&idx=124223068> (검색일: 2025.10.30.).
- 오마이뉴스 (2020.05.28.). **월경에 대해 차마 묻지 못했던 것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4150](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4150) (검색일: 2025.10.30.).
- 외교부 홈페이지. **MDGs개요** <https://www.mofa.go.kr> > www > brd > down (검색일: 2025.11.25.).
- 주야 (2025.1.15.). **여성의 기본 인권, 월경권을 소개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7879](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7879) (검색일: 2025.11.25.).
- 중앙일보 (2025.08.14.). **李 지시한 ‘복지 자동지급제’ ...소득·재산 정보 실시간 연계 등 난제 수두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147> (검색일: 2025.10.27.).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01.10.). **정상월경의 이해.**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618](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618) (검색일: 2025.11.25.).
- 프레시안 (2021.05.06.).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 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월경과 월경 빈곤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0612484139228> (검색일: 2025.11.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03.31). **영국, 2020년 12월 말부터 여성용품 부가가치세 폐지.**  
<https://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p=1&idx=125563> (검색일 : 2025.05.20.).

## ■ 국외문헌 · 국외 웹사이트

- ACLU of Northern California (2023.08.). *The Menstrual Equity for All Act: A Toolkit for California K-12 Students.* <https://www.aclusocal.org/sites/default/files/student-toolkit-menstrual-equity-for-all-act.pdf/> (검색일: 2025.10.20.).
- Alliance for Period Supplies 웹사이트. *Period Products in Schools.* [https://allianceforperiodsupplies.org/period-products-in-schools/.](https://allianceforperiodsupplies.org/period-products-in-schools/) (검색일: 2025.05.18.).
- Allo Docteurs (2022.11.24.). *Protections périodiques gratuites dans les universités : peut mieux faire.* <https://www.allodocteurs.fr/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dans-les-universites-peut-mieux-faire-33649.html> (검색일: 2025.10.10.).
- Bharadwaj, S. and Patkar, A.(2004). *Menstrual Hygiene and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Taking Stock,* Junction Social, SociaDevelopment Consultants. (검색일: 2025.11.25.).
- California Association of Food Banks (2023.05.). *CALIFORNIA MENSTRUAL PRODUCTS PILOT.* <https://www.cafoodbanks.org/wp-content/uploads/2023/05/Menstrual-Products-Pilot-2.pdf> (검색일: 2025.10.10.).
- California Legislative Infirmation (2021.10.08.). *AB-367 Menstrual products.*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367&utm\\_source=chatgpt.com](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367&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10.20.).
- CBC News (2022.05.27.). *B.C. spending \$750K to expand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free-menstrual-products-in-bc-1.6468643> (검색일: 2025.10.20.).
- CBS News (2020.11.25). *Scotland becomes 1st country to make free period products the law.* <https://www.cbsnews.com/news/free-period-product-scotland/> (검색일: 2025.10.10.).

- Chalkbeat (2025.03.18.). *Almost 10 years later, NYC remains in 'flagrant' violation of school menstrual products law: lawsuit.* <https://www.chalkbeat.org/newyork/2025/03/17/menstrual-products-missing-school-bathrooms-lawsuit-alleges/> (검색일: 2025.10.20.).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01.21.). *Period product scheme Management information: 2023 to 2024 academic year.*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798ed1f4686aac158606421/Period\\_product\\_scheme\\_management\\_information\\_2023\\_to\\_2024.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798ed1f4686aac158606421/Period_product_scheme_management_information_2023_to_2024.pdf) (검색일: 2025.10.10.).
- Dolan Law Firm 홈페이지 (2021.12.). *New California Law Requires Public Schools and Colleges to Carry Free Menstrual Products.* <https://dolanlawfirm.com/2021/12/new-california-law-requires-public-schools-and-colleges-to-carry-free-menstrual-products/> (검색일: 2025.10.20.).
- Euro News (2023.10.03.). *Rising period poverty: France announces free sanitary products for under 25s.* <https://www.euronews.com/2023/03/10/rising-period-poverty-france-announces-free-sanitary-products-for-under-25s> (검색일: 2025.10.10.).
- Franceinfo (2021.02.23.). *Protections périodiques gratuites pour les étudiantes : la Fage salue "une volonté de lever le tabou"* [https://www.franceinfo.fr/sante/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pour-les-etudiantes-la-fage-salue-une-volonte-de-lever-le-tabou\\_4308151.html](https://www.franceinfo.fr/sante/protections-periodiques-gratuites-pour-les-etudiantes-la-fage-salue-une-volonte-de-lever-le-tabou_4308151.html) (검색일: 2025.10.10.).
-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19.04.05.). *Government supports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for students, people in need.* <https://news.gov.bc.ca/releases/2019SDPR0033-000587>. (검색일: 2025.10.20.).
-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19.04.08.). *Provision of Menstrual Products.*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administration/legislation-policy/public-schools/provision-of-menstrual-products> (검색일: 2025.10.20.).
- HillNotes (2023.12.15.). *Improving Equitable Access to Menstrual Products in Canada.* <https://hillnotes.ca/2023/12/15/improving-equitable-access-to-m>

- menstrual-products-in-canada/ (검색일: 2025.10.20.). <https://www.cafoodbanks.org/wp-content/uploads/2023/05/Menstrual-Products-Pilot-2.pdf> (검색일: 2025.10.20.).
- Legislative Analyst's Office (2021.03.01). *Public School Restrooms Feminine Hygiene Products Mandate*. <https://lao.ca.gov/Publications/Report/4392> (검색일: 2025.10.20.).
- National Union of Public and General Employees (2024.02.). *Period Poverty in Canada*, p.3. <https://nupge.ca/wp-content/uploads/2024/04/Period-Poverty-in-Canada-updated-Feb-2024.pdf> (검색일: 2025.10.20.).
- NHK World (2021.04.30.). *"Period poverty" enters spotlight in France*.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backstories/1607/> (검색일: 2025.10.10.).
- NYC Council Seal New York City Council (2023.12.06). *New York City Council Votes to Pass Comprehensive Menstrual Equity Package that Expands Access to Products in City Facilities*. <https://council.nyc.gov/press/2023/12/06/2511/> (검색일: 2025.10.20.).
- OfficeMax 웹사이트. *Ordering Guidance*. <https://www.officemax.co.nz/Ministry-Of-Education-Period-Products?srsId=AfmBOoqkmKpASVgBtqFhLsTRZPee6oDIBl7a3YtH2au1JdXJLKXnIntR> (검색일: 2025.10.10.).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1.10.08.). *Enhanced Student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in Ontario Schools*. [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1/B21\\_EN.pdf](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1/B21_EN.pdf) (검색일: 2025.10.20.).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4.07.31.). *Menstrual Equity Initiative: Continuing to Enhance Student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in Ontario Schools*. [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4/B12\\_EN.pdf](https://efis.fma.csc.gov.on.ca/faab/Memos/B2024/B12_EN.pdf) (검색일: 2025.10.20.).
- Schmitt, M. L., Booth, K., & Sommer, M. (2022). A policy for addressing menstrual equity in schools: a case study from New York City, USA. *Frontiers in Reproductive Health*, 3, 725805.
- Scottish Funding Council (2024.11.08.). *Access to Free Period Products FY 202*

- 4-25. <https://www.sfc.ac.uk/wp-content/uploads/2024/11/Access-to-Free-Period-Products-2024-25.pdf> (검색일: 2025.10.10.).
- The Ferret (2023.3.12). *Scotland's councils underspend on period products*. <https://theferret.scot/scotlands-councils-underspending-period-products/> (검색일: 2025.10.10.).
- UNFPA (2022.05.). *Menstruation and human right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unfpa.org/menstruationfaq> (검색일: 2025.11.25.).
- Vox (2016.06.23.). *New York City to provide free tampons and pads in public schools, jails, and shelters*. <https://www.vox.com/2016/6/22/12005866/free-tampons-pads-in-new-york-city> (검색일: 2025.10.20.).
- 뉴욕시 웹사이트 (NYC, 2016.07.13.). *Transcript: Mayor de Blasio Signs Intros. 1122-A, 1123-A and 1128-A*. <https://www.nyc.gov/office-of-the-mayor/news/622-16/transcript-mayor-de-blasio-signs-intros-1122-a-1123-a-1128-a> (검색일: 2025.10.20.).
- 뉴질랜드 교육부 웹사이트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24.08.14.). *Period products for schools*. <https://www.education.govt.nz/education-professionals/schools-year-0-13/administration-and-management/period-products-schools#about-the-programme-1> (검색일: 2025.10.10.).
-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 (Beehive.govt.nz, 2021.02.18.). *Free Period products to be available in all schools and kura*. <https://www.beehive.govt.nz/release/free-period-products-be-available-all-schools-and-kura> (검색일: 2025.10.10.).
-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 (Beehive.govt.nz, 2024.03.24.). *Government commits nearly \$3 million for period products in schools*. <https://www.beehive.govt.nz/release/government-commits-nearly-3-million-period-products-schools> (검색일: 2025.10.10.).
-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 (Scottish Government). *Period Products (Free Provision) (Scotland) Act 2021: Equality Impact Assessment*. <https://www.gov.scot/publications/period-products-free-provision-scotland-act-2021-equality-impact-assessment/> (검색일: 2025.10.10.).

-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 (Scottish Government). *Poverty and social justice*. <https://www.gov.scot/policies/poverty-and-social-justice/access-to-free-period-products/> (검색일: 2025.05.14.)
-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 (Scottish Government, 2021.09.27.). *Period Products (Free Provision) (Scotland) Act 2021: guidance – September 2021*. <https://www.gov.scot/publications/period-products-free-provision-scotland-act-2021-guidance-responsible-bodies-september-2021/pages/2/> (검색일: 2025.10.10.).
-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 (Scottish Government, 2022.09.29.). *Access to free period products in educational settings during the 2018-19 academic year: monitoring and evaluation report*. <https://www.gov.scot/publications/access-free-period-products-educational-settings-during-2018-19-academic-year-monitoring-evaluation-report/pages/2/> (검색일: 2025.10.10.).
-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 (Updated 2024.09.0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riod-products-in-schools-and-colleges/period-product-scheme-for-schools-and-colleges-in-england> (검색일: 2025.10.10.).
-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2025.01.21). *Period product scheme: management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riod-products-scheme-management-information> (검색일: 2025.10.10.).
- 온타리오 주정부 뉴스룸 (Ontario Newsroom, 2021.10.08). *Ontario Launches Free Menstrual Products in Schools*. <https://news.ontario.ca/en/release/1000941/ontario-launches-free-menstrual-products-in-schools> (검색일: 2025.10.20.).
- 온타리오 주정부 뉴스룸 (Ontario Newsroom, 2024.07.29.). *Ontario Increasing Access to Free Menstrual Products in Schools*. <https://news.ontario.ca/en/release/1004870/ontario-increasing-access-to-free-menstrual-products-in-schools> (검색일: 2025.10.20.).
- 캘리포니아주 입법정보 웹사이트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17.10.13.). *AB-10 Feminine hygiene products: public school restrooms.(2017-2018)*.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

B10 (검색일: 2025.10.20.).  
 캘리포니아주 입법정보 웹사이트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21.10.11.).  
*AB-367 Menstrual products. (2021-2022)*.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367](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367) (검색일: 2025.10.20.).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info.gouv.fr, 2021.2.23.). *Gratuité des protections périodiques pour les étudiantes*. <https://www.info.gouv.fr/actualite/gratuite-des-protections-periodiques-pour-les-etudiantes> (검색일: 2025.10.10.).

## ■ 법령 · 법률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고등교육법> (검색일: 2025.05.1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검색일: 2025.05.15.).  
 「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검색일: 2025.05.15.).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검색일: 2025.05.15.).  
 「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자치법규(조례·규칙)(검색일: 2025.07.25.).  
 「학교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학교보건법시행령> (검색일: 2025.05.15.).  
 「학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법령/학교보건법> (검색일: 2025.05.15.).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자치법규(조례·규칙) (검색일: 2025.07.2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검색일: 2025.5.19.~5.22.).

## ○ ————— 부 록

- 1. '25년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현황
- 2. '25년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및 자체 사업 추진 현황
-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설문지



## 부록

### 1. '25년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현황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사·도명	총계	국비	사·도 예산	사·군·구 예산
<b>합계</b>	33,781	16,046	8,359.4	9,375.6
서울특별시	4,540	1,362	1,589	1,589
부산광역시	2,540	1,270	635	635
대구광역시	1,938	969	485	484
인천광역시	2,428	1,214	607	607
대전광역시	1,126	563	281.5	281.5
광주광역시	1,524	762	381	381
울산광역시	668	334	167	167
세종특별자치시	146	73	73	-
경기도	6,803	3,465	1,701	1,637
강원특별자치도	1,072	536	107	429
충청북도	1,114	557	278.5	278.5
충청남도	1,316	658	197.4	460.6
전북특별자치도	1,964	982	393	589
전라남도	1,466	733	219	514
경상북도	1,906	953	286	667
경상남도	2,624	1,312	656	656
제주특별자치도	606	303	303	-

출처: 여성가족부(2025c).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 2. '25년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및 자체 사업 추진 현황

(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시·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574	-	574	-	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11,000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권 지원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 비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비상용 생리대 비치 지원	11	-	11	-	학교화장실, 생리대 15,000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바우처 반기별 72,000원)	590	-	590	-	11~18세 4,500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직접 교부 또는 이용권 교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물품 지원 조례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여성 및 남성) <sup>66)</sup>	건강·위생용품 구입비, 이용권, 한물 등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19세 미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부산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sup>96)</sup>	생리용품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지원 (지역화폐 쿠폰 13,000원)	157	-	157	-	11~18세 1,000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용품 비치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이용시설 비상용 생리용품 비치	10	10	-	-	청소년 이용시설 22곳, 36개소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	221	-	221	-	9~18세 1,400명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광주광역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광주광역시 여성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 청소년, 25~50세 이하 여성 <sup>67)</sup>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교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2,905	1,478 +교육청 (1,427)	-	-	16~18세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우치지원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 지급 보건위생용품 공공시설 등 비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연 156,000원)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 지급 보건위생용품 공공시설 등 비치							
	광주광역시 관산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 지급 보건위생용품 공공시설 등 비치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 지급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 지급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 지급							
울산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직접 교부 또는 이용권 지급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세종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직접 교부 또는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	180	-	180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 1,000명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상품권 교부						
경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68)</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강화 (보편지원)	30,490	9,147	21,343	기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동두천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의왕, 이천, 오산,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의정부 등	11~18세, 지역화폐 월 14,000원
경기	평택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69)</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양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70)</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회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1)</sup>	생리용품 구입비 지급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함 지원	30	-	30	-	초·중·고등학교 40개소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의왕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2)</sup>	생리용품 지원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3)</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4)</sup>	생리용품 구입비 지급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급						
	구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5)</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예산	시·군·구 참여 시·군·구 예산	대상
	인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76)</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77)</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기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78)</sup>	생리용품 구입비 지급					
	이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79)</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80)</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sup>81)</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sup>82)</sup>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여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등둔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예산	시·군·구 참여 시·군·구	대상	
강원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18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 이용권 등 지급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이용 증표 교부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다자녀가정 중 19~54세 여성	보건위생물품 직접 교부 또는 이용권 교부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위생물품 비치	청소년시설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22	-	22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행사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및 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비치					개최 시 보건 위생용품 지원 및 비치(40개소)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83)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생리용품 패키지 배급)	120	-	120	-	9~18세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25	-	125	-	11~18세 1,150명 (월13천원)
	영동군 위생용품 지원 조례	9~18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125	-	125	-	11~18세 1,150명 (월13천원)
충남	<b>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b>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b>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b>	109.2	32.8	76.4	천안, 공주, 보령, 이천, 서산, 논산, 금산, 청양, 홍성, 계룡 등	청소년시설에 자판기 설치 및 생리대 지원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13~18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364	-	364	-	13~18세 여성청소년 4,000명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 이용권 지급						
	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원내용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산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3~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교부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직접 지급 또는 이용권 지급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등 지급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전북	<b>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b>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등 지급	109	109	-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600명(연 156천원) 바우처 지급 및 시군센터에 생리대 현물 비치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직접 교부 또는 구입비 지원	80	-	80	-	11~18세 550명, 현물지원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294	-	294	-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700명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원내용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9~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직접 교부 또는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등 지급						
	순창군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11~24세 여성청소년, 다자녀가정 중 11~49세 여성 <sup>84)</sup>	보건위생용품 직접 교부 또는 이용권 교부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등 지원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sup>85)</sup>	생리용품 직접 지급 또는 이용권 교부	청소년 건강지원	137	-	137	-	11~18세, 900명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예산	시군구 참여 시군구	대상
전남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교부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반기별 6만 원 상당 위생용품 직접 교부 또는 이용권 교부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연12만 원)	76	-	-	11~18세, 640명
	보성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교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월14,000원)	103	-	-	13~18세, 600명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교부	청소년 건강지원	303	-	-	16~18세, 2,100명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비 또는 이용권 지급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교부					
	담양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86)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173	-	-	11~18세, 1,450명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대상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경북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82	29	53	여성청소년 이용시설 내 생리대 무료제공기 설치 및 생리대 지원 (44개소 76대)
	성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경주, 경산, 의성, 예천, 울진 등 18개 시군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sup>87)</sup>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등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9~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청소년시설 <sup>88)</sup>	보건위생물품 비치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등 지급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영양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25년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사업					
	조례명	대상	지원내용	사업명	총계	사도 예산	시군구 예산	참여 시군구	대상
경남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등 지급						
	통해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44.8	-	44.8	-	주·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내 지급기 및 생리용품 지원
	청송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제주	양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b>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b>	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출처: 여성가족부(2025c),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 6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처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6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범정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학부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6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 68)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69)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평택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70)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7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화성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 72)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의왕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의왕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73)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74)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군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군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75)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구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76)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안산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안산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77)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78)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가평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가평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79)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80)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안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8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8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83)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8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 8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8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8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88) 「정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정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설문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및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설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24세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월 14,000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24년 12월 기준 16~21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및 보호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답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된 형태로 수집되고 설문 결과는 개별 응답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내용은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책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운영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참여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렴 및 다품품 제공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조사대상 식별문항

※ 각 문항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9~24세)' 바우처 사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바우처 사용 대상자의 출생년도는 언제인가요? (            )년  
*(①사보정 바우처 신청자 중 2024년 12월 기준 만 16~21세, ②2002년~2008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함.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 중단)*
  
2. 귀하(대상자)의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지역은 어디인가요?  
*응답자는 시·도 선택 후 해당 시·도의 시·군·구를 드롭다운 방식으로 선택*

권역	시·도	시·군·구
1. 수도권	1) 서울	(25구)
	2) 인천	(8구 2군)
	3) 경기	(28시 3군)
2. 강원권	4) 강원	(7시 11군)
3. 충청권	5) 대전	(5구)
	6) 세종	(1시)
	7) 충북	(3시 8군)
	8) 충남	(8시 7군)
4. 경상권	9) 대구	(7구 2군)
	10) 부산	(15구 1군)
	11) 울산	(4구 1군)
	12) 경북	(10시 12군)
	13) 경남	(8시 10군)
5. 전라·제주권	14) 광주	(5구)
	15) 전북	(6시 8군)
	16) 전남	(5시 17군)
	17) 제주	(2시)



문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를 포함하여 이전에도 생리용품 구매용품 바우처나, 지역화폐, 현물(생리용품) 등을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 생리용품 지원은 생리용품 구매용 바우처나 지역화폐, 현물(생리용품) 지급 등을 의미합니다.

- 1) 예 (지원받은 적 있음) → 하위문1로 이동
- 2) 아니오 (지원받은 적 없음) → 다음 문항으로 이동
- 3) 모르겠음 → 다음 문항으로 이동

문7-1. 어디에서 지원받았나요? (복수응답)

- 1) 정부(여성가족부) 2) 지자체(시·도) 3) 각종 기관(후원기관 포함) 4) 모르겠음
- '4) 모르겠음'에 응답한 경우 다른 보기 응답 불가

문8. 귀하(대상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작년(2024년)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목	바우처 미이용 이유	응답
1. 바우처 신청 미인지	1) 바우처 신청한 것을 몰라서 2) 바우처 신청한 것을 잊어버려서	
2.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이용 문제	3)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아서 또는 발급받지 않아서	
	4) 바우처 카드를 분실해서	
	5) 바우처 카드가 가족 명이라서 사용이 불편해서 (내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서)	
	6) 채무불이행자(신용문제)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7) 바우처 카드로 인해 내가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3. 생리용품 불필요	8)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현재 생리를 하지 않아서 9) 생리용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4.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10) 지자체 혹은 다른 기관·시설에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어서	
	11) 학교나 기관 등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5. 구매처 문제	12)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	
	13) 온라인 구매를 할 줄 모르거나 어려워서	
	14)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6. 기타	15) _____	

문8-1. (문8의 문항4-10)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지원받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1) 지자체(시·도, 시·군·구)
- 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 3)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등), 소년보호시설 등 거주시설
- 4) 후원기관
- 5) 학교
- 6) 기타 \_\_\_\_\_

문9. 귀하(대상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자입니다. 올해(2025년)는 바우처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나요?

- 1) 예 (현재 이용 중 또는 이용할 의향이 있음)
- 2) 아니오 (이용할 의향이 없음) → 하위문1로 이동

문9-1. 올해(2025년)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목	바우처 미이용 이유	응답
1. 생리용품 불필요	1)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현재 생리를 하지 않아서	
	2) 생리용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3) 지자체(시·도, 시·군·구)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어서	
2. 이용의 어려움	4) 이용방법을 모르거나 이용방법이 어려워서	
	5)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거나 귀찮아서	
	6) 바우처 카드가 가족 명이라서 사용이 불편해서 (내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서)	
3. 구매처 문제	7) 주변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서	
	8)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것이 귀찮고 어려워서	
	9) 구매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서	
4. 기타		

**이하 이용자 문항** -----

문1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1) 행정기관(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안내
- 2) 유관기관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전자바우처시스템, 국민행복카드, 정부24 등)
- 3) 온라인 인터넷 광고(다음, 네이버, 유튜브, SNS 등)
- 4) 편의점, 엘리베이터TV, 버스TV, 전광판 등의 광고
- 5) 온라인 카페(복지카페, 지역카페, 맘카페 등)
- 6) 관계기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안내메시지
- 7) 신문, 뉴스 등 언론 기사
- 8) 홍보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전광판 등의 광고
- 9) 가족이나 주변사람(친구, 교사, 이웃 등), 기관(학교, 직장, 복지관, 복지시설 등)의 안내나 소개
- 10) 지자체 기관(시청, 도청, 구청, 군청 등), 지역행사 등의 홍보
- 11) 기타

문1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로 생리용품을 주로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1) 대상자 본인      2) 부모      3) 조부모      4) 형제자매
- 5) 기관 선생님      6) 기타 \_\_\_\_\_



문1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의 신청 및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신청방법이 편리하다	1	2	3	4
2)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3) 온라인 구매처에서의 구매가 편리하다	1	2	3	4
4) 오프라인 구매처에서의 구매가 편리하다	1	2	3	4
5) 바우처로 살 수 있는 물품(일회용 생리대, 탐폰)의 종류가 다양하다	1	2	3	4
6)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생리용품 브랜드가 다양하다	1	2	3	4
7) 바우처 이용기간이 충분하다 (1년 내 소진)	1	2	3	4
8)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생리용품의 가격이 적절하다	1	2	3	4
9)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기 편리하다	1	2	3	4
10) 바우처 이용으로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줄었다	1	2	3	4
11) 바우처 이용으로 생리(월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1	2	3	4
12) 바우처 이용이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	2	3	4

문1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0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

이하 전체 응답 -----

문1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복수 응답)

- 1) 신청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확대
- 2) 카드신청 및 발급 간편화
- 3)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간편화
- 4) 지원대상 확대
- 5)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
- 6) 온라인 구매처 확대
- 7) 생리용품 종류 및 브랜드 다양화
- 8) 바우처 사용 기간 확대 (현행 1년)
- 9)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 (현행 월 14,000원)

문1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살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배부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장애청소년
- 2)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청소년 (25년 1인 가구 소득기준 1,913,610원)
- 3) 조손가정 청소년
- 4) 가정돌봄청(소)년
- 5) 자립준비청(소)년 등 시설퇴소청(소)년
- 6) 이주배경·다문화가족 청소년(북한이탈, 중도입국 포함)
- 7) 대상 확대가 필요하지 않음
- 8) 기타 \_\_\_\_\_

문19.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9세~24세 여성청소년 전체에 대한 단계적인 생리용품 무상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살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배부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별로 그렇지 않다
- 3) 약간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문19-1.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무상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다음 중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하는 연령대는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 1) 9~10세 (초등중학령기)
- 2) 11~12세 (초등고학령기)
- 3) 13~15세 (중등학령기)
- 4) 16~18세 (고등학령기)
- 3) 19~24세 (후기 청소년기)

문19-2.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 2) 학교나 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 3) 지원 신청하기가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 4)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없으니까
- 5) 기타 \_\_\_\_\_

문20. 생리용품 지원 사업 대상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1)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만, 한부모가족 청소년만 등)
- 2) 현재 지원 대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3) 지원 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예: 중위소득 80% 이하 등)
- 4) 모든 여성청소년(9~24세)에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 5)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문2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저소득층 등 현재 지원대상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1	2	3	4
2)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1	2	3	4
3)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과잉복지(세금낭비)이다	1	2	3	4
4)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남성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1	2	3	4
5)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4

문22. 공공기관에 생리용품이 비치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공공기관은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교, 공공도서관, 복지관, 공공기관(시·도)청, 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등을 의미합니다.

- 1) 예 → 문22-1로 이동
- 2) 아니오

문22-1. 공공기관에 비치된 생리용품(생리대)을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 1) 예 → 문22-1-1.로 이동
- 2) 아니오

문22-1-1.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용이 편리하였나요?

- 1) 예
- 2) 아니오 (이유: )

문23. 지역의 공공기관 내 여성 화장실에 무상 생리용품(생리대) 자판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별로 그렇지 않다
- 3) 약간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문24. 공공기관에 무상 생리용품(생리대) 자판기를 확대한다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 1)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 2)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 3) 공공도서관(구립/시립/국립도서관 등)
- 4) 여성기관(여성센터, 여성문화회관 등)
- 5)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시·도청 등)
- 6) 기타 \_\_\_\_\_

문25. 아래에 제시된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지야 한다			-	보통			-	개인이 각자 생계에 책임을 지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문26. 귀하(대상자)는 언제 초경을 시작하였나요?

만8세		만9세		만10세		만11세		만 12세		만13세		만14세		만15세	
초등 3학년 이전	초등 3학년	초등 4학년	초등 4학년	초등 5학년	초등 5학년	중1학년	중1학년	중2학년	중2학년	중3학년	중3학년	고등 1학년 이후	고등 1학년 이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문27. 생리주기는 규칙적인가요?

- 1)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다 → (하위문항: 생리주기 \_\_\_\_\_ 일)
- 2) 불규칙한 편이다
- 3) 최근 6개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았다

문28. 생리가 시작되면 평균 며칠 정도 지속되나요? \_\_\_\_\_ 일

문29. 귀하(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은 무엇인가요?

- 1) 일회용 생리대
- 2) 면 생리대 (세탁 후 재사용 가능)
- 3) 탐폰
- 4) 생리컵
- 5) 기타 \_\_\_\_\_

문30. 귀하(대상자)는 하루 평균 몇 개의 생리대(생리용품)를 사용하나요? \_\_\_\_\_ 개

※ 생리량이 중간 정도인 날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31. 귀하(대상자)가 생리용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복수 응답)

- 1) 저렴한 가격
- 2) 구입하기 쉬움
- 3) 처리하기(버리기) 쉬움
- 4) 활동하기 편리함
- 5) 사용할 때 쾌적함
- 6) 흡수력이 좋음
- 7) 건강에 안전한 소재 (유기농, 순면 등)
- 8) 친환경적이고 쓰레기 배출이 적음
- 9) 기타\_\_\_\_\_

문3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지 못해 곤란한 적이 있었나요?

- 1)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 2) 생리용품 지원을 받기 이전에는 있었으나 지원을 받은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
- 3)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몇 번 있었다
- 4)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주 있었다

## 배경문항

**응답자가 보호자인 경우만 응답**-----

배문1. 귀하는 **대상자**와 어떤 관계인가요?

- 1) 할아버지      2) 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 5) 언니 또는 오빠      6) 후견인(친인척, 시설담당자 등)

배문2.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배문3.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1) 남성      2) 여성

**전제 응답**

배문4. 현재 **귀하(대상자)**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 직장, 학업 등을 이유로 주중에만 따로 사는 경우 등에는 '함께 살고 있다'로 응답해 주세요.  
 ※ 반려동물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항목		1.1. 인원 수 표시	1.2. 주 보호자 여부
1. 혼자 살고 있다		-	-
2.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1) 할아버지(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명	
	2)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	명	
	3) 아버지/새아버지	명	
	4) 어머니/새어머니	명	
	5) 언니	명	
	6) 오빠	명	
	7) 동생(남, 여)	명	
	8) 친인척(고모, 이모, 삼촌, 친척 등)	명	
	9)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명	
	10) 기타(본인)	명	
총 가족 수 산출		명	

배문5. **귀하(대상자)**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해당 항목의 응답 칸에 O표해 주세요. (복수응답)

항목	정의	응답
1. 이주배경·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경우) · 북한이탈가정(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중도입국(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도중에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	
2. 가족돌봄·조손가정	· 만성화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	
3. 시설되소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 등), 소년보호시설(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을 퇴소한 경우	
4. 채무불이행 (신용문제)	· 부모 또는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문제)인 경우	
5. 장애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국문초록

2016년,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7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18년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 정부 주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 실적행률은 매년 80% 전후로 저조한 편이며,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이용자 실태 및 사업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와 이용자의 지원요구 및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인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국내 법 및 지자체 조례 검토, 이용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해외 주요국(스코틀랜드,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생리용품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파악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 중 이용률이 높은 16~18세 연령군과 이용률이 가장 낮은 19~21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와 미이용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바우처 이용 경험 및 요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 지원사업 이용 현황,

이용실태,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 등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바우처 신청 방법의 편의성 제고, ②전국적으로 접근이 편리한 구매처 확보, ③복수 품목 결제 및 무인판매대에서 결제가능하도록 구매처 이용방식 개선, ④잔액조회가 가능한 통합복지 플랫폼 개발 및 모바일앱 제공 등을 통한 사용방식의 편의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주로 신청하는 대상자의 부모, 청소년 대상자 등 대상의 특성 및 접근 가능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통합 모바일 앱을 개발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바우처 지급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지속적인 안내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지속적인 이용 안내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생리대 바우처 금액 책정 시 현실적 기준 적용, 낙인효과에 대한 예방책 마련, 신청률 및 이용률(실이용률),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대 비치 개선, 보편적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2016, media reports revealed that some female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were using shoe insoles as menstrual pads due to insufficient financial means to purchase menstrual products. This prompt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to begin providing menstrual hygiene products as in-kind support through public health centers. To safeguard the health rights of female adolescents, this support was extended not only to those receiving medical aid and livelihood assistance but also to adolescents using facilities such as local children's centers. In 2017, the government-led menstrual product support program for female adolescents was formally implemented through the addition of a new clause in Article 5(3) of the Adolescent Welfare Support Act, stating that "essential health and hygiene products for female adolescents may be provided." In 2018, the program was transferred to the then-Ministry of Women and Family (now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gency primarily responsible for youth affairs. However, the program's annual budget execution rate has remained low at around 80%, and since its implementation,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user conditions or explored program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was therefore conduct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support program and identify improvement strategies. To develop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menstrual product support program and inform its future direc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rogram usage patterns, user needs, and potential area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domestic law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lated to menstrual product support for female adolescents were reviewed, along with program usage data. The study also examined menstrual product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broad (Scotland, England, New Zealand, France, the United States, Canada, etc.). Additionally,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adolescents aged 16–18 years, who showed the highest utilization rate among applicants, and those aged 19–21 years, who recorded the lowest rate.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both users and non-users provided insight into attitudes and experiences related to menstruation, percep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support program, and experiences and needs related to voucher use. These analyses helped elucidate the current state of the program, usage patterns, barriers and challeng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key tasks for future implementation were developed.

First,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voucher application and use, several measures were proposed: (1) simplifying the voucher application process; (2) securing easily accessible retailers nationwide; (3) improving retailer systems to allow payment for multiple items and use at unmanned kiosks; and (4) enhancing ease of use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mobile app and integrated welfare platform that enables balance inquiries.

Second, the study recommended strengthening tailored outreach through appropriate promotional media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main applicants, including parents of eligible adolescents and adolescent beneficiaries themselves. Other suggestions included developing an integrated mobile app for menstrual product support vouchers, linking it with the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to enable targeted outreach and continued usage guidance, and preventing eligible beneficiaries from being missed.

Third, improvement measures included strategies to enhance the supply of free sanitary pads in public institutions; increase the application, utilization, and budget execution rates; apply realistic standards in determining voucher amounts;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tigma; and explore ways to expand menstrual product support for female adolescents by building a foundation for universal provision.



##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해정
-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수
-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연경·정승
-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I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 수탁과제

### <일반>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세션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자·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교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공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 자 료 집

### 〈세미나〉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크숍〉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공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럼〉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로키움〉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타자료집〉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연적급01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프리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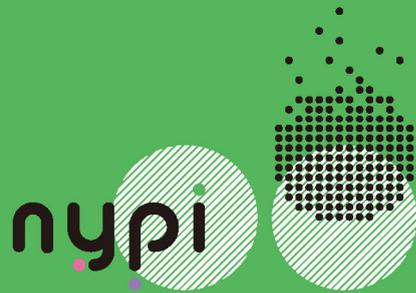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69-2

연구보고25-연적금01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69-2